

2022

昌寧文化

제42호



창녕문화원

문예중흥선언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 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 속에 꽃피우고 우리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년 10월 20일

문화비전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CONTENTS •차 례

◆ 문예중흥선언문

◆ 문화비전선언문

◆ 발간사

- 창녕문화원장_ 이수영..... 008

◆ 축사

- 창녕군수_ 김부영 010
- 창녕군 의회 의장_ 김재한..... 011
- 창녕경찰서장_ 이준호..... 012
- 경상남도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_ 김성근 013

◆ 2022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016

◆ 일본 문화협회와의 문화교류 041

◆ 2022 제4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개최..... 042

◆ 좋은 생각 좋은 글

- 허원인생(虛圓人生)의 꿈_ 김동식..... 044
- 아리랑의 원류(源流)에 대한 이야기_ 김동주 049
-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배우 윤여정에 대한 단상_ 문경주 060
- 전환기의 대한민국과 선진문화국가_ 성낙인 070
- 고향길_ 신익교 079
- 천혜의 고장 창녕, 지금은 축복의 땅일까?_ 심재만 085



- 우리 마을 새댁_ 우오도 089
- 고향(故郷)이 있다는 것_ 장혁표 091
- 주역의 프레임으로 전망해 보는 2023년_ 한삼윤 097
- 반포지효 (反哺之孝)가 필요한 현대사회_ 서창호 102
- 도암재 및 시조 영적비와 보호수_ 조병암 105
- '둘만낱자'에서 '더많이낱자'로_ 유영숙 109

◆ 향토문화 연구 및 자원 소개

- 천년 고찰 창녕 용흥사지 발굴 조사 현장을 찾아서_ 김화영 112
- 낙동강 지배자 비사벌(比斯伐)_ 남중희 143
- 만년동안 사라지지 않는 무지개 만년교(萬年橋)_ 한삼윤 151

◆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 애처로븐 북극곰_ 이해윤, 김리유 158
- 옴마와 쿠레용_ 김숙이 160
- 창녕을 소개합니다_ 이승준, 조영민, 김담결 163
- 우포늪 소개_ 박진화, 공재민 165

◆ 시와 한시 / 서예 작품

- 구사구용가_ 김희덕 168
- 문화원 行_ 문경주 169
- 시조의 음표를 노래하다_ 문경주 170

CONTENTS •차 례

- 한시백일장 장원시_ 창녕향교..... 175
- 병풍/명인대상/기다린 세월/요지경/풀뿌리 한/무지개_ 신익교..... 176
- 편조왕사_ 신용태 179
- 서예작품_ 성태기/보라 이봉임/도연 김경옥/혜암 이두채/성지 김동식/석호 하명술/
청아 사공 순/고야 최상교 180

◆ 역사문화 및 여행기

- 문화탐방에 대한 소회_ 한삼운..... 186
- ‘온달장군과 문경새재’ 답사 기행문_ 김효식..... 189

◆ 교양 및 정보

- 고전(古典)이야기 논어(論語)_ 성낙은 200
- ‘인의예지를 알자’ _ 진태홍..... 218

◆ 창녕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나무들

- ‘창녕의 물’ 이야기를 전하는 만옥정 나무들_ 한삼운..... 222
- 내야역참(內野驛站)의 회화나무와 은행나무_ 김동주..... 228
- 태고의 이야기를 품은 우포늪 팽나무와 왕버들 군락_ 노용호..... 232
- 유어 가향 수향 덧목마을 소나무와 느티나무_ 김동주..... 237
- 군목(郡木)이 된 고암 계팔(야동) 은행나무_ 유영숙 242
- 길곡면 경덕서당 배롱나무_ 김부열 245
- 남지제방 축조를 지켜본 은행나무_ 한삼운..... 250
- 남지철교와 500년 된 은행나무_ 김부열 256



- 용산리 간송(澗松) 조임도(趙壬道)선생과 자미화(紫薇花)_ 박태명 .. 264
- 600여년을 지켜온 영산읍성 수호목 팽나무_ 한삼윤 270

◆ 수상소식

- 2022년 경상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부곡농협 가마골 풍물단 최우수상 수상..... 278
- 2022년 제4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구계목도 최우수상 수상 279
- 제22회 황우문화상 수상 280

◆ 2023년 창녕문화원 주요활동계획 281

◆ 2023년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 283

◆ 창녕문화원 조직도..... 284

◆ 창녕문화원 부설단체(동아리)현황..... 285

◆ 창녕문화원 원고모집 및 기사제보..... 287



창녕문화원장
이수영

새롭게 더 크게 성장하는 우리 문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긴 터널에서 지난 3년을 보내고 대망의 계묘년 새해를 맞는 시점에, 창녕문화 제 42호가 발간됨을 진심으로 자축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창녕문화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힘껏 노력해 주신 문화원 임직원과 문화가족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어 각종 집회가 허용되면서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창녕문화원 70년사를 군비 5천만원의 사업비로 발간하여 창녕문화원의 역사를 총 집대성하면서 더 큰 성장을 위한 탄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색소폰 동아리가 추가 공모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사업으로 사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문화재를 찾는 문화탐방이 3회에 걸쳐 추진되었습니다. 일본 사쓰마 센다이시 문화협회와는 영상교류를 통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9월 말에 의령에서 개최된 2022년도 경상남도지사 어르신 농악경연대회에서는 부곡농협 가마골 풍물단이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창녕문화원이 주관되어 추진된 제4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를 창녕에서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제36회 비사벌 문화예술제를 성공리에 추진하여 창녕인의 화합과 안녕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원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된 한 해였습니다.

향토사연구소를 비롯해서 문화탐방, 한문, 서예, 시조창 활동이 지속되었고 특히 색소폰은 기존 A반에다 추가로 B반이 늘어났으며, 요가와 난타, 건강체조,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민요, 수석반이 활성화 되고 있고, 사진반과 바둑교실, 율타리파크골프가 추가로 결성되어 각종 문화향수권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뜻을 함께 모아주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는 무엇을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지난해에 이룩한 적지 않은 업적을 토대로 더욱 발전되고 성장하는 창녕문화가 될 수 있도록 늘 같은 마음으로 더욱 많은 성원과 동참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축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창녕군수
김부영

「제42호 창녕문화」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인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정리한「제42호 창녕문화」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녕의 문화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지역 문화지 발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신 창녕 문화원 이수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가치를 미래에 전승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올해로 제42호째를 맞이하는 「창녕문화」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 창녕의 기록입니다. 창녕의 문화와 정신을 지키고 이어 줄 뿐 아니라 지역 문화발전에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창녕문화」가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어우러져 우리 고장 문화발전의 초석이 되는 문화지로서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제42호 창녕문화」발간을 축하드리며,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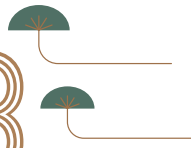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023



우수한 지역문화창조의 촉매제가 되길!

우리 창녕문화의 발자취로서, 향토 문화의 보존과 창조적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될 「창녕문화」제4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녕군의회위원장
김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녕문화」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이수영 창녕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문화원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문화 사랑방으로써 지역문화를 선도하며 우리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에서 펼쳐진 문화와 창작활동을 모아 책으로 남김으로써 우리 군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녕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료집이 꾸준히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발간되는 「창녕문화」가 우리 창녕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문화 창조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녕문화」제42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원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창녕경찰서장
이준호

창녕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중한 밑알이 되길!

안녕하십니까? 창녕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창녕경찰서장 이준호입니다. 「창녕문화」제42호 발간을 창녕경찰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군민의 문화역량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영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우리지역은 예로부터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고 훌륭한 유형 문화재와 수준 높은 무형문화재가 찬란하게 꽃피웠으며 이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높은 곳입니다.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녕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문화유적지 탐방, 향토사 발굴, 문화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역문화예술품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창녕문화」또한 우리고장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중한 밑알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시대는 정신문화가 삶을 주도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이수영 문화원장님의 말씀처럼 문화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창녕경찰도 문화의 고장, 창녕에서 근무한다는 긍지를 갖고 문화재 보호활동과 홍보는 물론 군민과 함께하는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창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제42호 창녕문화」발간을 축하드리며

자랑스러운 창녕의 문화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는 「제42호 창녕문화」 발간을 전 교육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가야시대부터 우수한 문화를 꽃 피운 창녕의 수준 높은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영 원장님 외 창녕문화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근

「창녕문화」는 시, 수필, 역사문화 탐방기 등 창녕인의 삶과 애환이 들어 있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매우 가치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녕문화」를 발간하고 있는 창녕문화원은 창녕군의 문화와 예술단체를 수용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화강좌, 문화유적 탐방활동, 문화재 행사, 문화회보의 정기적 발간 등의 사업으로 군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녕문화원의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녕의 문화와 예술을 담고 있는 「제42호 창녕문화」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리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2022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2022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2022년 제1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1. 20 (목) 14:00
- 장소 : 본관2층 회의실
- 대상 : 이사, 감사 22명 참석.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별관 증축공사 보고의 건타토의



2022년 제2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2. 18 (금) 14:00
- 장소 : 본관2층 회의실
- 대상 : 이사, 감사 18명 참석.
- 안건 :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심의의결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의결 건, 정기총회 서면결의의 건



2022년 문화학교 개강

- 일시 : 4 - 12 (9개월)
- 대상 : 문화원 회원
- 과목 : 시조창, 요가, 서예, 건강체조, 한문, 민요,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사진, 난타, 색소폰(A,B), 바둑.

• 장소 : 문화원 본관 2층



2022년 제3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4. 1 (목) 14:00
- 장소 : 본관2층 회의실
- 대상 : 이사, 감사 19명 참석.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사무국장 선임 동의 건



2022 우리문화재를 찾아서 문화탐방

- 일시 : 4. 28 (목)
- 장소 : 경기도 양평 용문사, 다산 정약용 유적지
- 대상 :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2022 제2차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탐방

- 일시 : 6. 21 (화)
- 장소 : 포항 호미곶, 영천 임고서원
- 대상 :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2022 문화나눔 봉사 공연 제5회 우포농협 조합원 한마음대회

- 일시 : 6. 23 (목)
- 장소 : 우포농협 산지유통센터
- 참가팀 : 댄스스포츠, 난타



☉ 2022년 제4차 창녕문화원 이사회

- 일시 : 7. 12 (화) 11:00 • 장소 : 별관3층 1강의실
- 대상 : 이사, 감사 22명 참석
- 내용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기타 토의



☉ 2022년 실버 문화 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영상 촬영

- 일시 : 7. 22 (금) 09:0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참가팀 :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색소폰



2022년 KNN (찬란한 유산 100선) 인터뷰 방영

- 방영일시 : 8. 6 (토) 09:00 • 촬영장소 : 영산 만년교
- 인터뷰 : 한삼운 부원장
- 촬영목적 :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부산 경남의 중요 문화유산 소개



2022년 KNN (찬란한 유산 100선) 인터뷰 방영

- 방영일시 : 8. 13 (토) 09:00 • 촬영장소 : 창녕 석빙고
- 인터뷰 : 이수영 원장
- 촬영목적 :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부산 경남의 중요 문화유산 소개



2022년 문화나눔 봉사공연 창녕 농협 한마음대회 공연

- 일시 : 8. 25 (목) 10: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가팀 : 난타동아리



2022년 제1차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회의개최

- 일시 : 9. 20 (화) 16:00
- 장소 : 별관3층 1강의실
- 대상 : 향토사연구위원
- 내용 : 창녕문화원 70년사 책자 발간사업, 기타토의



2022년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 대회 참가

- 일시 : 9. 28 (수) • 장소 : 의령 서동생활공원
- 참가팀 : 부곡농협 가마골 풍물단 (최우수상)



2022 제33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비사벌문화제)

- 일시 : 10. 09 (일) • 장소 : 창녕문화원 본관 3층강당
- 참가팀 : 창녕문화원 부설 시우회



㉠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제36회 비사벌문화제 창녕문화원 동아리 공연

- 일시 : 10. 8 (토) 16:00
- 장소 : 창녕천 (비사벌 문화 광장)
- 참가팀 : 공연 (난타, 댄스스포츠, 민요, 색소폰 A,B팀, 한국무용), 서예전시, 수석전시



④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제36회 비사벌문화제 창녕문화원 동아리 공연



④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제36회 비사벌문화제 창녕문화원 동아리 공연



☉ 2022 제4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시·군 관계자 회의

- 일시 : 10. 12 (수) • 장소 : 별관 3층 1강의실
- 대상 : 경상남도 시·군 관계자 및 대표자



☉ 2022 제3차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탐방

- 일시 : 10. 17 (월) 08:00
- 장소 : 충북 제천의림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비봉산 케이블카 등
- 대상 :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2022 창녕문화원 전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 일시 : 10. 28 (금) 07:30
- 장소 : 단양 온달관광지, 문경새재 도립공원 등
- 대상 : 전회원 (300여명)



2022 제4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이수영원장 격려인사)



2022 제4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농악경연)



2022 제4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 일시 : 11. 11 - 12 (2일간)
- 장소 : 창녕공설운동장
- 참가규모 : 800여명 (경연11개팀, 시연1개팀)
- 주최 : 경상남도
- 주관 : 창녕군, 창녕문화원
- 주요내용 : 민속예술단체경연 (농악, 민속놀이, 민속무용 등)



2022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색소폰 (초급, 중급) 공연관람

- 일시 : 11. 13 (일) 08:30
- 장소 : 양산 통도사, 양산 황산공원 버스킹 공연 등
- 대상 : 어르신프로그램 참가자 및 임원 40명



2022 향토사 연구위원 워크샵 참가

- 일시 : 11. 23 (수) 09:30
- 장소 : 양산 컨벤션센터
- 대상 :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 참가인원 : 30명



2022 상주문화원 · 창녕문화원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기념촬영)

- 일시 : 11. 29(화)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2022 상주문화원 · 창녕문화원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선물교환)

2022 문화학교 개설

◎ 개설 : 13과목

- 시조창, 요가, 서예, 색소폰(초급, 중급),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한문, 민요, 한국무용, 난타, 바둑, 사진



2022 창녕문화원 색소폰(A)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2022 창녕문화원 색소폰(B)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2022 창녕문화원 민요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2022 창녕문화원 댄스스포츠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2022 창녕문화원 건강체조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2022 창녕문화원 한문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3층 2강의실



☉ 2022 창녕문화원 시조창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3층 2강의실



☉ 2022 창녕문화원 바둑교실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4층



2022 창녕문화원 난타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2022 창녕문화원 한국무용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 2022 창녕문화원 서예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본관 2층



☉ 2022 창녕문화원 요가 수업

- 강좌기간 : 2022. 03 -12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2022 창녕문화원 사진 수업

- 강좌기간 : 2022. 07 -11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3층 1강의실

❁ 창녕문화원 ·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와 문화교류 ❁



2019년 부터 일본 사쓰마 센다이시 문화협회와
문화교류를 하고 있으며, 2019년에 창녕을 방문하였고
2022년 6월 19일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향토예능제에
창녕문화원의 동아리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한국무용 디딤새,
우포의 향기 댄스 스포츠, 우포따오기 민요가 참여하여
공연영상을 보내어 문화교류를 본격화 하며
양 문화 단체 간의 친목을 다져나가며
‘문화’라는 공통된 주제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 약속.

2022 제4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2022. 11. 11.(금)~12.(토)

창녕공설운동장



- 기간 : 2022. 11. 11(금) ~ 11. 12(토)
- 장소 : 창녕 공설운동장
- 참가규모 : 800여명 (경연 11개팀, 시연 1개팀)
- 주최 : 경상남도
- 주관 : 창녕군·창녕문화원
- 주요내용 : 민속예술단체경연(농악, 민속놀이, 민속무용 등)
- 시상내용 : 단체6(도지사2, 군수4), 개인4(도지사)

구분	훈격	시상구분	수량(개)	시상내용
단체	도지사	계	10	
		최우수	1	우승기, 상장
	우수	1	상 장	
	군수	금상	1	상 장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개인	도지사	지도상	1	상 장
		연기상	3	

11월 11일(금) 1일차



순서	시·군	분야	출연종목	대표
1	함안군	민속놀이	지신밟기 농악	박기학
2	거제시	농악	거제농악	박동호
3	함양군	민요	함양들소리	박태성
4	말양시	민속무용	말양검무	김은희
5	양산시	현장민속	북안동제(당산제)	이주연
6	통영시	농악	통영애구	이강용
7	고성군	농악	고성농악	이돈근
8	창원시	현장민속	진해연도여자상여소리	정동찬
9	의령군	민속놀이	대경대 놀이	천병국

11월 12일(토) 2일차



순서	시·군	분야	출연종목	대표
1	산청군	민속놀이	집몰림걸림 농악	김중원
2	함양군	민속놀이	빔머리 오광대놀이	성상경
3	창녕군	민속놀이	구계목도	김공조

축하공연



순서	시·군	분야	출연종목	대표
1	진주시	민속놀이	숫대쟁이놀이	김선옥

* 제40회 최우수팀

좋은 생각 좋은 글

- | | |
|-------------------------------|-----|
| ◇ 허원인생(虛圓人生)의 꿈 | 김동식 |
| ◇ 아리랑의 원류(源流)에 대한 이야기 | 김동주 |
| ◇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배우 윤여정에 대한 단상 | 문경주 |
| ◇ 전환기의 대한민국과 선진문화국가 | 성낙인 |
| ◇ 고향길 | 신익교 |
| ◇ 천혜의 고장 창녕, 지금은 축복의 땅일까? | 심재만 |
| ◇ 우리 마을 새댁 | 우오도 |
| ◇ 고향(故鄉)이 있다는 것 | 장혁표 |
| ◇ 주역의 프레임으로 전망해 보는 2023년 | 한삼윤 |
| ◇ 반포지효 (反哺之孝)가 필요한 현대사회 | 서창호 |
| ◇ 도암재 및 시조 영적비와 보호수 | 조병암 |
| ◇ '둘만남자'에서 '더많이남자'로 | 유영숙 |

허원인생(虛圓人生)의 꿈



김동식

창녕문화원 서도회 전 회장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새겨 실천해 나가고자하는 좌우명을 한 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오래전부터 아껴오는 글귀 하나가 있다.

建功立業者多虛圓之士
憤事失機者必執拗之人

중국 명대(明代)사람 홍자성(洪自誠)이 쓴 채근담(菜根譚)의 수성편(修城篇)에 나오는 글이다. ‘공을 세우고 업을 이루는 자는 대개 허심 원만 한 사람이며 일을 그르치고 기회를 잃는 자는 반드시 집요(執拗)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다.

내 나름대로 좀 더 쉬운 해석을 덧붙인다면 세상에 태어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마음을 비우고 성격도 원만한 사람들이 많으나 일을 망치고 때를 놓쳐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성품이 옹졸하여 작은 일에 집착(執着)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정도로 풀이하고 싶다.

참으로 우리네 인생살이의 진리를 꿰뚫고 있는 경우라 하겠다.

신라의 고승 원효스님이 일찍이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저 유명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진리를 설파한 바 있거니와 실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변하는 마음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바람결에 흩어지고 뭉개지고 형형색색의 모양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구름처럼 피어오르다 흩어지는 마음 중에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감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마음도 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같은 이는 예쁜 여자를 보고 느끼는 음심도 마음으로서의 간음이라 하여 죄악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스커트 차림의 예쁜 아가씨를 보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씩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모두는 심한 감정의 기복(起伏)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쁠 때 조금 덜 기뻐하고 슬플 때 조금 덜 슬퍼하는 마음의 조율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감정 싸이클의 진폭(振幅)을 되도록 줄여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된다.

기분이 좋다고 냄비 밑바닥처럼 경박(輕薄)하게 거동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을 아니지만 슬픈 일이 생겼다고 다 혼자만 당하는 일인 양 한없이 침잠(沈潛)되어 어두운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것도 별로 몸에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여간 마음이란 알다가도 모를 물건인거 같다.

중국 양자정 임금이 중국 대륙은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내 마음 속에 작은 마음은 다스릴 수 없다는 고백을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가장 참는 마음이 부족하여 여러 번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맛보았던 것 같다.

이러한 경험들 덕분에 이제 참는 데는 제법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참는다는 뜻의 한자인(忍)자는 사실 무서운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마음(心)에 칼(刀)을 세우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 인간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이 아마도 이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고 있을 것이다.

오직 참는 마음이 부족하여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하고 온갖 나쁜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같다.

공직자는 돈의 유혹을 보고 참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가정을 두고서 탈선(脫線)의 유혹을 느끼는 사람은 바람기를 참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생활 중에도 참는 마음이 필요할 때가 많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자식간의 관계에서도 성질대로 해버린다면 그야말로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직장 생활,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驕獏)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끓어오르는 분노를 잘 삭여주지 못하며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이다.

우리는 가슴 한복판에 있는 마음주머니 속에 온갖 형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 중 참는 마음이 우리가 항상 지녀야 할 중요한 마음중의 하나라면 버려야 할 마음 중의 하나는 탐(貪)하는 마음, 즉 욕심(欲心)이다. 욕심(鵠心) 때문에 인간사가 고통(苦通)에 휩싸이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할 것이다.

신문사 회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온갖 좋지 않은 기사들의 밑바닥에는 항상 욕심이라는 괴물(怪物)이 도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항상 마음주머니 안을 들여다보고 욕심이 많다 싶으면 조금 덜어 내고 참는 마음이 부족하면 조금 집어넣어 마음 주머니를 고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주머니에 집어넣어야 할 마음 중에는 참는 마음 이외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행복을 느끼는 마음, 밝은 마음 등... 수많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중동이스라엘 3대왕(王)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智慧)의 축복(祝福)을 받아 잠언(箴言)전도서 아가서 성경책(冊)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웃 나라도 점령하고 많은 재산도 모아서 인생(人生)의 최고의 즐거움이 뭐든 곳인지 최고봉(最高峰)을 올라가기로 함.

왕궁(王宮)은 금(金)으로 장식하고 후궁(後宮)150명, 시녀(侍女) 300명 옷은 얼마나 호화찬란했지 중동지방들 백함화꽃을 비유하였고 날마다 궁전에 잔치를 베풀었지만 만족이없음.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불고 저리 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는 뜨다가 지데 뜨던 곳으로 오고, 강(江)시냇물은 흐르데 어느 곳을 흐르든지 바다로 모여서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마지막(말 자기 그릇대 복(福)받은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마음보따리에서 떨어 내야 할 마음의 숫자 또한 만만치 않다.

미워하는 마음, 남을 헐뜯는 마음, 온갖 음심(淫心), 도심(盜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마음을 고르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 된다.) 아울러 인생살이를 힘겹게 살지 않으면 되도록 마음을 비워 마음 주머니 자체를 작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항상 기쁜 마음, 가벼운 걸음걸이로 인생길을 걸어 갈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 주머니의 자체를 줄여나가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머니 안을 청소도 하고 바꾸기도 하여 되도록 깨끗이 해나간다면 뜻하지 않을 불행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항상 행복한 인생살이를 살 수 있을 것이다.

묵은 때와 찌든 때는 청소하기가 힘들지만 금방 문은 얼룩이나 먼지를 제거하기는 간단하다.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에 쌓이는 먼지를 그 때 그 때 털어내는 습관만 들인다면 우리는 언제나 가볍고 깨끗한 마음 주머니를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허원(虛圓)인생을 꿈꾼다.

허심(虛心)은 원만(圓滿)을 낳는다.

원만은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능(可能)하게한다.

대저 마음을 비운 사람이 공(功)을 이루고 업(業)을 이룰 수 있음은 바로 그와 같은 이치(理致)다.

아리랑의 원류(源流)에 대한 이야기



김동주
창녕문화원 고문

우리민족의 민요인 아리랑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 대다수에 의해 불리어져 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아리랑의 뜻이 무엇이나? 는 질문에는 답 할 바가 없어 당황스럽다. 지금까지 아리랑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다. 또한 아리랑의 민요가 어느 시대에 등장 했는지도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느 학자의 견해는 아리랑이 대부분 순수한 우리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봐 적어도 한문이 우리나라에 사용되기 이전 즉 삼국시대 이전부터 발생된 민족적 민요라고 볼 수 있다는 그 학자의 견해를 귀담아 들어 봄직도 하다.

만약 한문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 아리랑이 만들어졌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문식 언어가 상당히 쓰여서 만들어졌으리라 보이기 때문이다. 또 아리랑이 고서에 기록 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순수한 우리의 언어로 표현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만이 문자로 사용되었던 고대는 한문식으로 표현 될 수 없었고, 다만 구전으로 계승되어 온 것 아닌가 생각 할 수 있다.

아리랑의 역사는 어떤 민요와 비교해도 이색적이라 이러한 특징이 아리랑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더욱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

아리랑의 뜻을 찾아보기 위하여 여러 사전들을 들춰보니 대동소이하면서도 여러 구구한 설들이 기록 되어있어 그 내용 가운데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간추려 기록해 보기로 한다.

- 아리랑은 ①강원도 일대 널리 분포되어있는 정선 아리랑.
②호남지역의 진도 아리랑.
③경상남도 일원의 밀양 아리랑.

을 전국의 3대 아리랑 이라고 하며, 이 외 경기 아리랑 과 서울 아리랑 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특징인이 창의적으로 꾸며져 인위적으로 변이 되었다는 뜻에서 신민요 아리랑으로 분류함으로서 3대 전통 아리랑과 구별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아리랑은 근대사회에 널리 또는 깊게 파장을 일으켰으니 종두 아리랑, 한글 아리랑, 독립군 아리랑, 또 대국어 사전에는 아리랑 군대를 국군으로 해설해 놓았다.

그 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리랑이 등장한다.

종두 아리랑은 천연두 예방접종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이고 한글 아리랑은 문맹퇴치교육의 보급을 위하여 창안된 것이며, 독립군 아리랑은 집단적 의지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자체 내에서 창작되어 집단의식의 독자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가변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국내의 여러 사전에서 아리랑의 기록을 발취하여 옮겨본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민요의 하나라고 시작하여 많은 지면을 통하여 아리랑의

역사에 관하여, 아리랑의 지역적 분포, 아리랑의 역사와 변화, 신민요 아리랑의 과장 등으로 분리하여 장황한 서술을 해 놓고 있어 일반인들이 모르는 재미 있는 내용이 많다.

- 국사대사전 : 구전 민요의 하나. 각 지방에 따라 가사와 곡조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래에는 6가지를 들고 있는데 대부분 다른 기록과 유사하고 아리랑 고개는 낙랑의 남계이며 서북통로의 관문인 자비령(慈悲嶺)을 말하며 사랑하는 고국 땅을 등지고 남하하는 백성들의 감정이 우러난 것.
- 새 백과사전 : 민요의 하나.
근대시민 계급과 노동자 농민의 생활상을 여실히 반영한 노래, 노령으로 품팔이 가는 농민, 도시로 팔려 나오는 처녀, 왜란, 호란 동학란, 기차 개통 등... 에로티시즘을 띠어 가장 널리 애창 되었으며 그 유래에는 여러설이 있다.
 1. 밀양 사도의 딸 아랑이 젊은 통인에게 비운으로 죽은 것을 애도 찬미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알랑설.
 2. 박혁거세비 알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알랑설 (闕娘說).
- 대국어사전 : 아리랑-아리랑 타령, 아리랑 타령의 후렴.
아리랑 군대-우리나라 군대 국군.
아리랑 타령-우리나라에서 널리 불려지는 구전민요의 일종.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를
후렴으로함.

- 엘리트 국어사전 : 아리랑 타령-아리랑이란 말귀를 자주 넣은
가사로 가장 널리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적 민요.
- 국어대사전 : 아리랑 타령-우리나라에서 불리지는 구전 민요의
일종. 함경도 지방의 것이 가장 오래 되었으며 지방
별로 가사와 곡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기타 : 1. 알랑설 (闕娘說): 동남(懂男) 총각 또는 동여(懂女)
처녀의 뜻.
2. 아리고 쓰리다 는 뜻에서 유래.

이상과 같이 여러 사전의 기록에도 보다시피 명쾌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아리랑의 창작동기에 대하여 여러 사전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루는 부분은 대원군의 경복궁을 중건할 때 원납전(願納錢)의 성화
같은 독촉에 시달려 “단원아이롱(但願我耳聾) 불문원납호(不聞願納
戶)”의 아이롱이 아리랑으로 변했다는 설과 또 경복궁 중수 때 고된
부역살이에서 떠나지 못하는 인부들이 “어유하 (魚遊河) 아난리(我難
離)” 하고 부르던 아난리가 아리랑으로 변했다는 재미있는 설이 있다.

또 밀양 아리랑에 관한 전설은 옛날 밀양부사의 딸 아랑이라는 용모가
빼어난 처녀가 있었는데 관아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아랑의 침모를
피어 아랑을 유인하여 한참 달구경을 하고 있는데 잠시후 친모는

오간데 없고 이 젊은이가 사랑을 호소하였으나 아랑이 단호히 거절하자 연정이 증오로 변하여 아랑을 살해하여 근처 대밭에 묻었다고 한다.

이때 밀양의 부녀자들이 아랑의 정절을 사모하여 아랑아랑 하고 불러 이것이 오늘날의 민요로 불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아리랑이 우리민족의 입에서 오르내린 시기를 두고 삼국시대 이전 한사군 낙랑의 자비령이라는 설부터 대원군의 경복궁 중수(1867년)시 원납전에 시달린 백성들의 단원 아이롱 설 까지 약 2천 년간의 간격을 두고 아리랑의 발상 시기나 본뜻을 찾지 못하니 아리랑이 아리송 할뿐이다.

그런데 아리랑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니 창녕문화 제11호(1990~1991)에 허명철(許明徹)씨께서 아리랑에 관한 장황한 글을 실어 놓은 내용 중 그분의 견해라고 하는 독특한 부분이 있어 여기 옮겨 본다.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부름) (알이랑 알이랑 알 아이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기원 진행형)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조건)
-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 해설

한알님 한알님 한알님의 아이 입니다,

한알님 세계(관문)로 넘어가고 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단군)이 있다면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날 것이다,(얼마 못가서)(발 아플 것이다.)

이 노래는 제천행사시 부르는 신가(神歌)로서 주술적인 성격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문이나 해설문 역시도 아리송하다.)

3대 아리랑 가운데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있고 정선읍에 정선 아리랑의 연유를 밝혀 놓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을 만큼 정선군을 홍보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은 7-8백 여수나 된다고 하며 그중 대표적인 것을 시비에 새겼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선 아리랑〉

-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주게
싸리골 올 동백이 다 떨어진다.

- 떨어진 동백은 낙엽만 쌓이지
사시장철 님 그리워 나는 못살겠네.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3대 아리랑의 각각의 특징과 가창 방법 그리고 노랫말이 만들어진 연유 등 서로 다른 부분을 간략히 적어 본다.

첫 번째 정선 아리랑

정선 아리랑을 정선군에서는 『정선 아라리』로 통용 하고 있으며 수심(愁心)편, 산수(山水)편, 애정(愛情)편, 처세(處世)편, 무상(無常)편 역음편으로 다양하게 분류 하고 있으며 많은 노랫말 중 대표적인 몇 편을 쓴다.

- 산수편 -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武陵桃源 아니냐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서 산만 층층하네.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리랑 고개 고개로 날 넘겨주게,

아질 아질 성마령 야속하다 관음베루
지옥 같은 정선읍내 10년간들 어이가리 (후렴)
아질 아질 꽃베루 지루하다 성마령
지옥 같은 이 정선을 누굴따라 나 여기왔다. (후렴)

- 수심편 -

눈이올라나 비가올라나 억수 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보여든다. (후렴)
명사 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 피며
모춘 삼월이 아니라면 두견새는 왜 울어 (후렴)

위의 수심편의 뜻은 고려(高麗)가 망함에 선비들이 비관하여 두문동에 은신 하면서 정선의 백이산을 오가며 망국의 쓰라림을 달래며 부른 노래, 시국이 이르지 않았으면 쓸쓸한 이 산중에 울부짖으며 살아가지 않을 것 이라는 심정을 읊은 것이라고 한다.

또 강초일일(江草日日)에 환수생(喚愁生) 하니
강물만 푸르러도 고향생각 나네. (후렴)
무협(巫峽)이 냉냉하여 비 세정(細情) 하니
인생차세(人生此世)에 무엇을 하나. (후렴)

그들(두문동 72현)의 쓰라림이 마치 중국의 시인 두보가 서촉(西蜀)으로 쫓겨가 고생하는 처지 같아서 두보의 시에서 따온 구절로서 정선에 와서 첫 봄을 맞으니 지난날 영화롭던 시절의 회상과 이 산중에 들어와 남아로서 국운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은신 하고 있는 자신들의 신세타령이란다. 그 외 온갖 노랫말이 수없이 많이 있다.

두번째 진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은 부요적(婦謠的) 성격의 서정민요이며 현지에서는 『아리랑 타령』이라 한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발생한 노래라하며 기본 성격은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고 사설 내용에는 욕, 상소리, 한탄, 익살 등이 응집되어 부인네들의 야성을 거침없이 노출시키고 있다고한다.

육자배기 가락에 관소리의 구성진 목청이 어우러진 진도지방 특유의 정조(情調)를 지니고 있다.

선창 후창의 돌림(輪唱)노래이며 여럿이 부를 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메김 소리를 하고 나머지는 맞음 소리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집단 노동요의 가창방식 이라한다.

진도군의 민요편의 기록에 있는 대표적인 가사 몇을 적어 보면

아라리가 지랄인가 정천 인가 얼마나 조 먼은 저지랄 인가,

(후렴) 아리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음 음 아라리가 났네.

바람아 불어라 석 달 열흘만 불어라 우리야 서방님 명태 잡이 갔다네

(후렴)

윤선아 병선아 오고가지를 말아 우리 집 매늘 아기 반봇짐 싣다
(후렴)

또 백과사전에 진도 아리랑 편을 따로 상세히 설명 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록된 진도 아리랑의 노랫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본다.

1. 아리랑 고개다 집을 짓고 우리님 오시시만 기다린 다네,
(후렴)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음 음 아라리가 났네,
2. 노다 가--세 노다 가--세 저달 떴다 지도록 노다 가세,(후렴)
3. 세월아 네월아 오고 가지를 따라 아까운 내청춘 다 늙는다.(후렴)
4.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날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후렴)
5. 만경창파에 두둥실 뜬 배 어기여차 어야 뒤어차 노를 저어라.(후렴)
6. 문경세재는 왜 고갯고 구비야 굽이굽이가 눈물이 난다.(후렴)
7. 왜 왔던고 왜 왔던고 울고 갈 길을 왜 왔던고.(후렴)
8.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고 자식 많은 우리부모 속편한날
없네. (후렴) 등등 많은 노랫말이 있다,

세번째 밀양 아리랑

밀양 아리랑은 앞에서 언급한 밀양의 전설에 유래되어 아랑이 아리랑으로 발전 하였다는 설과 작곡가가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50~60년 전에 밀양 출신 작곡가가 지어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노래의 속도는 세마치 장단에 맞추어 비교적 빠르게 부르며 씩씩하고 경쾌하다고 한다.

밀양 지역의 오래전부터 거행해오고 있는 축제로서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매년 5월에 열리지만 아리랑에 관한 부분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밀양의 대표적인 노래로서 밀양 아리랑을 꼽고 있다.

밀양 아리랑 노래

1. 날좁보소 날좁보소 날좁보소 동지섯달 꽃본 듯이 날좁보소
(후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2. 정든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긱.(후렴)
 3.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후렴)
 5. 물길러 가는채 술걸러이고 오동나무 수풀속에 임 찾아 간다.(후렴)
 6. 철가치 담장은 높아야 좋고 술집에 아주머니 고와야 좋다.(후렴)
 8.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 말어라 살뜰한 내청춘 다 늙어진다.(후렴)
 9. 시집을 못살면 걱정이 되나 아마도 공장에 실 풀러가지.(후렴)
 14. 시누부 죽으라고 축원을 하였드니 고추장 단지가 내 차지.(후렴)
 15. 종달새 울거든 봄 온줄 알고 하모니카 불거든 임온줄 알아라.(후렴)
 16. 아주까리 동백아 네 열지마라 촌년들 기름머리 내 눈꼴시다.(후렴)
 17. 무정한 기차야 소리말고 가거라 산란한 요내가슴 더 산란하다.
(후렴)
- 4,7,10,11,12,13 은 뜻이 모호하거나 저속하여 제외 했다.

이상으로 맺으면서 우리 지방의 민요에 관한 기록으로는 창녕군지를 편찬하기 위해 1981년에 기초 자료조사를 하여 편집한 ‘내고향 전통 가꾸기’ 내용에 민속편의 민요란에 보니 여러 종류의 민요가 풍부하게 수록 되어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아리랑에 관한 언급은 없다.

필자가 어렸을 때나 근간에 우리지역에서 가끔씩 불리지는 아리랑 노래는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위에 3대 아리랑은 모두가 노랫말 가사가 불리지고 후렴이 뒤에 붙여지는데 우리 지방의 아리랑 노래는 후렴이 먼저고 노랫말이 뒤 따르는 형식으로 불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필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이 설명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

[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새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요내 가슴에 수심도 많다.
호박은 늙으면 맛이 나 좋지만 사람은 늙으면 꼴 볼품도 없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에 대한 단상



회원 문경주

배우 윤여정은 이십사절기 중 아홉 번째와 열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인 망종(芒種)과 하지(夏至) 사이인 유월 십구일(6월 19일)에 태어났다.

그때나 지금이나, 농촌에서는 이 시기가 한 해의 농사의 승패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즉, 익은 보리는 모두 베어 내고, 논에 벼를 심고 밭갈이를 해야 하는 등 ‘밭 등에 오줌 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 년 중에서 바쁜 농번기(農繁期)가 된다.

그녀가 태어난 1947년은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서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으며,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1876.8.16. ~ 1949.6.29)이 그토록 열망하던 대한독립과 건국을 준비하는 미군정시대이다.

또 한편으로는 해방과 함께 3.8선으로 고착화된 국토분단으로 일제의 식민지 경제권에 예속된 재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자금과 물자, 기술진이 절대 부족한 상태였다. 그녀가 태어난 경기도 개성 지역은 고려시대에는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수도(首都)로써 475년 동안 번영을 누리었으나, 3.8선에서 가까운 최전방으로 1951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땅이었다.

배우 윤여정은 스물다섯 살 되는 해인 1971년, 영화 <화녀(火女)>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허스키한 목소리에 독보적인 활약으로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연기와 삶 모두에서 전형성(典型性)을 벗어나며 시대의 한계에 도전장을 던져온 ‘영원한 현역’ 배우이다.

여기서는 그녀의 많은 작품 중에서 공원에서 ‘박카스 할머니’로 성매매를 하는 할머니 소영 역으로 출연한 <죽여주는 여자>와 미국으로 이민 간 딸 모니카(한예리)의 요청을 받고 간 딸 부부가 새로 정착한 시골 마을 아칸소에서 어린 손주들을 위해 희망을 찾아가는 외할머니 순자 역으로 출연한 <미나리>에서 다소 이질적인 이 두 편(2편)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다들 잘 알다시피 영화 <미나리>는 배우 윤여정은 ‘제 93회 아카데미 영화상(2012.4.21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소영은 전쟁고아로 태어나서 식모살이, 공순이로 하층 직업을 전전하다가 미국 흑인 병사와 살림을 차려서 아이 낳고, 입양을 보낸 여자인데, ‘양공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매우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나이가 들어 호구 직책으로 ‘박카스’를 팔면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쓴다. 박카스는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증강시키는 약(?)이나, 영화에서는 매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늙은 매춘부 소영은 주로 서울 파고다 공원 일대에서 남성들에게 다가가 “박카스 한 병 딸까요?” 하면서 호객행위로 하루에 한두 건 하면 먹을거리 사서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고, “나랑 연애하고 잘래요? 나 잘해 드릴게.”... 수많은 노인들에게 찾아가 말동무를 하면서

수치심을 감당하여야 하는 감정노동자며 동시에 육체노동자로 제 몸에 저장된 자신의 육체를 파먹으며 근근이 살아간다.

영화<죽여주는 여자>는 사회가 외면한 ‘불편한 진실’을 직시(直視)하게 만든다. 고령화가 되어가는 한국의 사회에 있어서 고독사, 노인의 성욕, 독거, 매춘, 빈곤, 질병, 안락사, 트랜스젠더, 코피노(Kopino: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등, 하나같이 묵직하여 단칼에 자를 수 없는 사실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소영은 생업으로 얻은 성병을 치료를 위해 비뇨기과를 찾는다. 담당 의사는 필리핀 여자에게 가위로 가슴을 찢리는 수난을 당한다. 의사는 옛날에 필리핀에서 살림을 차려 아들을 낳았으나 아들의 양육을 책임을 지지 않아서 아들 엄마(까밀라)가 전 남편을 찾아서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것이다. 마침 그 사건을 목격한 소영은 코피노 소년(민호)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집으로 데리고 온다.

집에는 트랜스젠더(집주인)와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 피규어 작가 도훈(윤계상)이 소영과 같이 한 지붕에서 산다. 모두가 사회적 약자들로 달동네 한 모퉁이에 한 지붕 밑에서 보금자리를 튼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몸을 파는 행위(매춘)는 손가락질당하는 일이지만, 소영이 입장에서는 그일 밖에 택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노인들의 감춰놓은 성욕을 노련하게 해결하는 베테랑답게 팁을 주는 단골손님 중 한분인 송 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죽여 달라!”는 애원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대소변도 누군가 받아 줘야 하고, 밥도 누군가 떠먹여 줘야 하는 처지가 되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며 “죽여 달라!”고 소영에게 애원한다.

송 노인의 애원을 들어준 후, 하나 둘 사는 게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소영이 가치관도 혼란이 시작된다. “부탁에 의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하는 이 물음이 결국 늙은 매춘부 소영이를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든다.

인간의 삶의 원동력은 식욕과 성욕으로부터 시작된다.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 방치되는 그들의 슬픔은 고령화로 인해 핵가족화 되면서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대화할 상대가 없고 불규칙한 식사로 영양의 균형이 깨져 건강 악화로 노인 20%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노인 빈곤율도 45,7%나 되니 OECD 자살률 1위로 인해 고독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성욕도 건강하게 즐기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그들’의 이야기가 곧 ‘나’의 미래의 자화상이 될 것이다.

공동체를 통한 소통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취미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마음 열기를 통한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외로울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몸이 아플 때 서로를 걱정해주는 관계 속에서 누구나 소중한 사람이 된다.

배우 윤여정은 연기력도 출중해서, 선과 악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상당히 까다롭고 보수적인 시어머니의 배역이나 조연, 주연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기댔던 언덕으로 한 신(scene) 한 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옹지 않은 일을 용납하지 못하고 주관이 뚜렷해 그것이 커리어로 쌓이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화에 몰입하게 하는 힘, 디테일이 좋아 그녀에 주어진 연기력이 편한 샌들을 신고 만날 수 있는

동네 할머니처럼 자연스럽다.

1980년대 후반, 아메리칸드림을 꿈꾸고 미국의 깡촌에 도착한 아칸소 트레일러 하우스 아이들이 “여기가 대체 어디야?” “집이지!”라고 대답하면서 영화는 시작한다.

배우 윤여정은 <미나리 MINARI>에 출연하여 손주를 돌보며 함께 생활하게 된 할머니 순자 역을 뛰어난게 소화해 호평을 받았다.

이민은 세계 어디에든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서 사는 곳만 다를 뿐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영화는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로 전부 성경 속의 인물들로 흐르는 메시지는 기독교의 복음이다.

낮선 땅에 뿌리 내린 희망, 인간에 대한 삶의 진솔함으로 척박한 환경을 뚫고 자라는 미나리가 뿌리내린 텃밭의 주인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영화 제작 자본을 대는 제작사의 국적에 따라 영화의 국적이 정해진다. 그런 점에서 미나리는 한국 영화가 아니고 미국 영화다.

영화 ‘미나리’ 의미는 물만 있으면 잘 자라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자에 비유한 것이다. 어디서나 잘 자라서 물이 있는 흙바닥에 풀씨 하나 떨어져도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려도 양증맞은 흰 꽃을 피우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미나리의 지상부를 ‘수근(水芹)’이라고 하며 ‘술독을 풀어주며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데 약용하며, 김치를 담가 먹거나 삶아 먹기도 하며, 생것을 먹어도 좋다’라는 기록이 있다.

한국인은 ‘우리’라는 단어를 빼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 사회라는 확실한 증거이면서 한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주의가 여기에서 탄생한다.

한국인은 가족이나 친척, 혹은 직장 공동체와 같은 집단들이 우선시 되는 사회다. 아버지(제이콥)가 어머니(모니카)를 설득해 심장병이 있는 아들(데이비드:다윗)과 축산 공장을 다니며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각종 양념(멸치, 고추장, 고춧가루)과 미나리 씨앗 한 줌을 싸 들고 오면서 제이콥 가족과 생활이 시작된다.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정착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이 곳에서 살았던 집주인은 쫓딱 망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이콥의 심기를 건드린다. 비싼 수도물 대신에 수맥을 찾아 지하수로 농사를 짓지만 자주 물이 끊어져 애를 먹는다.

아내 모니카는 남편 제이콥의 비밀(농사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진작 알았지만 가족은 신경 쓰지 않고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허망한 꿈을 좇는 남편을 원망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든 부여잡으려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다. 그녀의 대사에 “우리 가족은 돈이 없으면 서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찢어져야 되고 돈이 있으면 유대가 생겨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은 여자는 돈이 없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심신의 안정과 경제력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남자는 외로움(공허함)과 이상(理想) 이것 하나만 충족되어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영화는 “가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묻고 있다. 금전에 대한 문제가 개입했을 때도 가족은 가족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하지만 모니카는 병원이 1시간 거리인 데다 아들이 언제 심장이 아플지 모르고 무엇 하나 충족되지 않는 현실에서 심신의 안정이 없고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언제 어느 때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삶은 위태롭다.

안전하고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엄마 모니카와 달리 “우리는 쓸모 있는 수컷이 되어야 해.” 이 말은 병아리들 사이에서 수컷을 가려내는 병아리 감별사 일을 일 년 내내 하면서 맨손으로 농장을 일궈내는 제이 쿵은 외로움에 의한 공허함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사랑이라 생각하게 될 테지만 “정원을 가꾸며 생활하는 것이 잘 안 풀리면 떠나도 말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니 자신의 꿈이고 가족을 지키려는 포부가 남다르다.

두 아이들에게 아빠가 뭔가 이뤄내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인들을 상대로 식자재 사업을 할 생각을 하면서 농장을 만들려고 한다. 가족들이 각각 크고 작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준다. 가족이란? 남^여 간의 심리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외할머니 순자는 미나리 씨앗을 물이 많은 숲 웅덩이 근처에 심으면서 손자에게 미나리에 대해 알려 준다. “미나리는 어디에서건 잘 살아,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 죽을 끓여도 되고, 찌개에 넣어도 되고, 나물을 무쳐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어……. 너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개울가 호수와 같은 내면의 깊이로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짙은 향수(鄉愁)에 온몸을 맡기기도 하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와서 정착하고 변창해나갈 수 있는 간절함으로 양 가슴에 그리움의 미나리를 심는다. 순자는 손자 데이비드에게 자신감을 높여 주기 위해 노력한다.

어느 음식이든 융화될 수 있는 미나리 같은 존재이니 가족은 그렇게 별다른 노력 없이도 서로 스며든다. 병아리 감별을 주 수입원으로 농

장을 만들어 미나리를 심어 한인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다가 첫 거래를 트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나 애써 만든 저온 창고가 한순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때의 황당하고 미안함에 아노미 상태에서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할머니에게 뛰어가는 데이비드는 집의 방향은 그쪽 방향이 아니라며 손을 잡아 이끈다.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한계를 넘나들며 애증(愛憎)은 더해간다.

남자라는 넓은 어깨에 짊어진 가족이라는 무게는 단 한 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희망을 품고 버티지만 여전히 지치고 힘든 삶의 무게가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나은 거다. 숨어 있는 게 더 무서운 게지 옹기종기 설키는 가족이 주는 힘은 놀랍다.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으려는 삶과 극복의 의지를 보여 준다. 데이비드는 아빠를 숲 옹덩이로 이끌면서 미나리를 뜯으며 “할머니가 좋은 장소를 발견했구나?”로 엔딩 된다. <미나리>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융화되는 가족의 참 의미를 되묻는다. 따뜻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결국 지금 시대의 가족이 해체되고 변모하는 등 이상 기능을 하고 있다는 다른 말이다.

미나리는 가족이라는 집단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자식과 상호 작용하고 아버지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미나리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 희생, 갈등 보편적인 정서를 다큐멘터리처럼 현실감 있게 보여 준다. 손자에게 “진짜 할머니 같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서 손자의 기준에는 하나도 맞추어 주지 못했지만 사랑의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그렇지 존재감만으로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매력을 발산한다. 손자는 자신의 오줌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불에 오줌을 싸놓고 할머니에게 뒤집어 씌기도 한다. 잔소리가 많은 할머니가 못마땅한 거다.

화가 난 아버지가 회초리를 직접 가져오라 하는데도 할머니는 손자 역성을 든다. 손자는 종아리 맛을 회초리로 기다란 강아지풀을 들고 온다. 손자의 기지(機智)에 가족들 모두들 웃음이 뿡 터진다. 할머니의 “네가 이겼다.”라는 한마디에 아버지의 무서운 화도 풀리면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향하는 맹목적인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 너머로 실없이 치솟아 오르는 정한(情恨)의 여울은 다시 시작하는 화해와 포용의 공간(空間)이다.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 자체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가질 수 없는 무조건적 사랑으로써 할머니의 특권이라고 할 것이다.

풍경을 보듯이 가족을 보았고 가족을 보듯이 풍경을 보았다. 화려하지 않고도 평범하였고, 평범하지 않으면서도 화려하다. 그러나 답답한 아버지(가장)는 항상 낙관주의적으로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말하지만 어머니(아내)는 당장은 행복할지언정 앞으로의 미래는 말할 것 없이 뻔하다는 다소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아내)는 창고에 불(젓더미, 부활할 수 있는 에너지)이 나자 목숨 걸고 판매용 채소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최선을 다한다.

불을 끄는 것에 집중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된다. 갈등을 해소하는 변환점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장)는 이제야 어머니(아내)처럼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애절하고 희생적이며,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인 가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이민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과 꿈 사이의 갈등은 문화에 상관없이 인간 보편적인 요소가 깃들여 있다. 가족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때론 누군가의 희생도 감수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매일 눈떠서 잠들기까지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감정적 교류를 해왔기 때문이다.

물과 불의 이미지는 생명의 소중한 삶의 에너지이며 ‘원더풀’ 사랑으로 ‘한계’를 돌파하려는 강인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상징하는 제목이다.

나라와 종교를 넘어 사랑하면 통하는 언어, 가족이라는 글자는 서로에게 큰 힘을 준다. 〈미나리〉에서 결국 ‘가족주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의 가족으로 귀결이 되는 구성원들에게 동화되는 것이다.

혼자서 온전히 짐을 진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가족 모두가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와 방향을 향해 같이 가고 있다.

미나리라는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는 뿌리를 저버리지 말고 담금질을 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이 깃들여 있다. 우리는 인생이란 무대에서 저마다 주인공인 것처럼, 배우 윤여정은 세계 표준어인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지닌 ‘언어의 장벽’ 서양인이 아닌 동양인으로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유리천장을 깨뜨리며,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길을 걸어간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환기의 대한민국과 선진문화국가

프로필

성낙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26대 총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프랑스 파리2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2014-2018),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 학장(2004-2006)
-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고문
-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정보공개행정심판위원장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 대검찰청진상규명위원장,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회장
- 헌법학 제19권, 2019 헌법학입문 제9권, 2019, 헌법과 생활법치, 2017, 헌법과 국가정체성, 2019
- 대한민국헌법사, 언론정보법, 프랑스헌법학
- 우리헌법읽기, 만화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만화판례헌법 2(헌법과 기본권)
- Les ministres de la se republique francaise(paris ,1988) 외.
- 대한민국 청조근정훈장(2018) 황조근정훈장(2005), 한국헌법학회 학술상(2011)
-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창녕로 대지면 미라클 출신입니다.

2019년도 부곡은천장에서 개최된 경남 시·군 문화원 임원 및 향토사 연구위원 워크숍에서 전환기의 대한민국과 선진 문화국가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게재합니다. 헌법학자로서 국가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창녕군민과 늘 함께해 왔음에 깊은 자긍심을 갖습니다.

〈전환기의 대한민국과 선진 문화국가〉

1. 세기적 전환과 대한민국
2. 제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대한민국
3.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대개혁
4. 선진 문화국가의 창달
5.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

1. 세기적 전환과 대한민국

1-1 인민민주주의의 쇠퇴

- 동서냉전시대의 종언과 인민민주주의의 조락
-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과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의 시장경제 도입과 민주주의의 한계
→푸틴의 대통령 중임-총리-대통령 재취임
- 중국의 새로운 부상 : 중국식 민주주의의 장래?
→15억 인구의 중국에서 직접선거가 가능할 것인가?

1-2 대한민국이 처한 자유민주주의

- 인민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동서문명의 충돌
→ 전통적 우방인 미국
→ 새로운 초강대국 중국
→ 무시할 수 없는 일본
→ 새롭게 부상하는 러시아
- 4강의 틈바구니에서 과연 대한민국호의 갈 길은?

1-3 세계 최빈국의 분단국가, 전후국가

- 1953년 국민소득 67불, 1960년까지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최빈국
- 1970년까지 북한이 국민소득이 더 높음
- 1수출액 1964년 1억불, 1970년 10억불, 1977년 100억불
- 1965년-1979년 연평균 10% 경제성장
- 압축적 경제성장과 산업화 : 2006년 국민소득 2만불 돌파
- 한국민주주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우기

1-4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대한민국

- 인류역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기간에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
- 2018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1,349달러 (3천 449만원) 인구 5천만 규모 세계 일곱 번째 (일본(1992),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 2018년 세계 5대 수출대국(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 베트남 삼성전자, 베트남 해외수출 총액의 26%
- 국민 총 생산 1조 5천 3백억 달러 : 아프리카 전체와 같은 규모
- 민주화 : Two Turn-over 세 차례 평화적 정권교체

1-5 통합과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호의 과제

- 통일은 언제, 왜 통일인가,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
 - 7천만 동포의 힘 결집
 - 민족의 용비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 유라시아 철도의 한반도 복원
 - DMZ의 평화적 이용
 -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 법률관계

2. 제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대한민국

2-1 산업혁명의 경과

- 제1차 산업혁명 -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 기반 기계화 혁명
- 제2차 산업혁명 - 1870년 전기 에너지 기반 대량생산 본격화 혁명
- 제3차 산업혁명 - 1969년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끈 지식 정보화 혁명

2-2 제1차, 제2차 산업혁명에서 소외

- 제1차 및 제2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된 조선
- 서세통점의 와중에 쇄국정책
- 개화과의 노력은 무위
- 현대 산업사회의 부적응
- 주권, 국권 상실 (암흑의 일제강점기)

2-3 제3차 산업혁명에 성공적 대응

- 인터넷 정보혁명에 순응
-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 한국적 모델 적응
- 삼성, LG, SK 등 정보통신산업 세계시장 장악
- 해외에서 인터넷 실시간 접속 장애 공황상태

2-4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대두

- ‘제4차 산업혁명’ - 2016년 세계 경제 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 클라우스 슈밥 (Claus SCHWAUB) 1971 다보스포럼 창립
-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1월 본회의 개최
- 산업혁명의 정의, 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 발굴에 관해 혁신과 기술이 인류 공익을 위해 일하는 미래에 대한 공동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촉구.
정보 통신 기술 (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
-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2-5 2018년 1월 다보스 포럼 참관기 1

- 2018 세계경제포럼 주제 : ‘균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
-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토론
-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 4,000여 명이 참석
- 주요 토론 주제 : 지속적 경제 발전 추진, 다극·다개념 세계로의 지향, 사회 분열 극복,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

2-6 2018년 1월 다보스 포럼 참관기 2

- 다보스 : 스위스 취리히에서 3시간 소요되는 작은 읍.
알프스 산록에 위치한 휴양지
겨울철이라 눈이 사람 눈높이처럼 쌓임
-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포럼에서 처음으로 대학총장 세션 마련
전 세계 20여 개 대학 총장만 초청.
- 개막식 인도 모디 총리 기조연설
메르켈 독일 총리, 메이 영국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정상 매일 기조연설.
- 폐막식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의장대 사열

3.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대개혁

3-1 글로벌 사회의 한국호의 재도약

- 경제발전의 추동력 확보
- 1992년 국민소득 3만불 일본 이후 잃어버린 20년 타산지석
-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함 : 2977년 IMF, 2008 금융위기 극복 정신 회복
- 기업과 기업인의 투자욕 확보와 기업가 정신의 함양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벤처기업과 벤처정신의 제고
- 변화의 시대에 정부, 기업, 학계의 능동적 대응

3-2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

- 헌법 제1조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의미와 규범성
- 입헌군주제를 배격하고 민주공화국
- 군주주권이 아닌 국민주권주의 (제1조 제2항)
- 6월 항쟁과 촛불혁명
- 혁명, 미래의 전달자

3-3 민주화의 정착

-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 세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 : 1998, 2008, 2017
- 1998 : 김영삼(신한국당)에서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 2008 : 노무현(열린우리당)에서 이명박(한나라당)
- 2017 : 박근혜(새누리당)에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 외형적 민주주의의 완성, 미래를 향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4. 선진 문화국가의 창달

4-1 헌법과 문화

- 전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항 :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69조 : 대통령취임선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

4-2.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해방과 건국 이후 밀물같이 다가온 외래문화의 홍수
-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의 필요성
- 전통이나 전통문화의 역사성과 시대성
-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

4-3. 민족문화의 창달

- 헌법 전문 :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헌법 제9조 제69조 : “민족문화의 창달”

- 순혈단일민족의 민족적 민주주의에서 다문화사회에 따른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4-4. 헌법과 문화적 기본권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사회권
헌법 제 34조 제1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국민소득 1만 달러 1980년대 이후
물질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정신적, 문화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전환
문화적 기본권의 정립

5.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

5-1. 민주시민 교육

- 민주시민의 교육
공동선, 공동체적 가치 함양
민주주의 교육 강화
- 민주시민의 덕성 강화 : 진정한 선진 국가 시민
경제시민에서 민주시민으로 정립
산업화의 과실을 민주화의 안착으로 연계

5-2. 의식주 걱정 없는 학업

- 입시·대학이 찾아가는 인재발굴(숨은 보석 찾기)
- 재학 중 의식주 걱정 없이 공부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 2015년부터 천원의 아침, 점심, 저녁식사 제공

- 2015년부터 소득순위 차상위계층(부모 월 수입 130만원 미만) 전원(학부생850명) 등록금 면제 및 월 30만원 기본생활비 제공
- ※ 전 세계 대학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연 30억 원 이상의 예산집행)

■ 성낙인 총장의 헌법철학

◆ 법적 실존주의(existence juridique) 확립

- 자연법의 현대적 정립
- 실존적 사고에 입각한 한국적 민주헌정의 완수

◆ 균형(balances) 이론의 정립

-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 견제와 균형이론
- 민주헌정과 생활법치 속의 균형적 사고와 질서 체계

고향 길

- 10년 대한 가뭄 -



신익교

두메 식수마저 번개가 아사(雅死)가고
우르릉 터진 폭음 슬픔의 씨앗일세
피난 길 돌아온 토굴집 오글오글 가족들.

메밀죽 송진껍질 도시는 꿀꿀이로
어영차 짙어진 짐 벗을 곳 황금바다
빈 가방 채운 보따리 풀어놓은 꽃동산.

비포장 바닷가로 한시간 왕복길로
따오기 따오따오 고향 찾아 날아들고
구룡산 두뿔 바위굴 면벽하는 부처님.

북극성 동조별과 무궁화 밭 씨앗뿌려
영축산 푸른 숲길 출렁출렁 깊은 숲길
용선대 향한 무지개 인도(引導)하는 고향 길.

- 열망(熱望) -

고담준론 금기(禁忌) : 굴뚝 뒤 이사, 신생아 출생 방 앞, 산사 천도제 개고기 “성황당
고목 단절 금기” 등

바다의 금기 : 휘파람, 날씨 판단 등, 항해 중 행사 : 적도제 180도 재 등

경남 내륙 문화 예술의 숨결과, 신해양, 문화에 동참한 마도로스 자
존심 산해장려(山海壯麗) 자원이 빈약 살아날 길 해양개척) 용궁의 불
꽃 시발지 가덕신공항 세계의 위상 앞세워 미래 꿈을 당긴다. 해양문
화 창달에 창녕성씨 고가 참석을 초청해 주신대 대하여 경의(敬意)를
표합니다.

창녕은 1950년 북한의 침입으로 동족상잔 피바람 긴 세월 흉년으로
등겨, 꼴꼴이죽, 메밀죽, 송진껍질, 구호양곡, 이른 목숨이었다.

창장정들은 군 입대로(入隊) 일손 부족 들녘은 메말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두메하천에 용이 탄생하듯 북극성이 된 신면장은 땀방울
로 6개 마을 법정 이장과 11개 자연부락 지도자의 협력으로 옥천저수
지 공사 완료시 100일 동안 3개면이 경작할 수 있는 담수호라 생존의
첫 단추를 끼워 두피 산골의 북극성 추대로 부면장을 비롯 각 마을 이
장들은 별빛이 되어 새 세상을 열었다.

새마을 운동으로 양과, 마늘, 신농법에 계성우체국 계성초교, 계성
중학교 시절과 누에공장 모래 폭풍에서 고분에 묻혔다. 창녕 영어마을
선박부속공장 해양 문화에 대한 경제발전길이 열렸다.

고려말 편조스님은 옥천사 노비의 몸을 빌려 태어나 일미암(一味庵)
에서 도를 단았다. 조정 관료의 추천에 임금님과 신돈과의 약속으로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는데 서로 상부상조 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보다 100년 앞선 노예해방, 농토개혁, 조세, 병력 부담으로 기득
권자 반대로 불귀의 객이 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

1997년 청우 선생이 영산 김홍식 목사에게 부탁, 고려사 연구를 의뢰하여 창녕문화지 발표문을 보고 1998년 『꿈속에 잠긴 옥천사/ 별관』 발표한 후 다음호에 신용찬 선생은 초등학교 담임선생으로부터 신돈은 요승이라고 학생들 앞에 이야기를 맡은 말이 천리길 달렸갔다.

상장군공파 외 국내외(國內外) 신분을 숨기고 유랑민이 되었다.

2016년 옥천사지를 돌아 용선대 배수로 옆 사암으로 된 바위에 진한 영감(靈感)을 받아 <저것은 고릴라> 고릴라라는 해태다. 단군님도 꿈에서 태어났고 학자는 말하지 않은가. 미국인도 고릴라 고릴라 외쳤다.

그때서야 발길을 옮길 수가 있게 되었다. 고려 말 한학자 원천석 교과서에 실린 운곡시조 발견으로 양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신씨 추향제에 편조에 대한 두견화 시조창(唱)하면서, 용선대 안전망 너머 바위 굴락에 백경과 팽권을 발견 창녕문화에 일조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초등학교 시절 수업시간에 신돈은 아녀자 간음에다 온갖 나쁜 짓을 했다는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를 집에 와 아버님께 말씀을 올리니 아버님께서서는 집안에 역적이 생기면 친족, 처족, 외족(外族) 3족이 멸문지하를 당한다. 우리는 상장군과 방계로 창녕에 뿌리를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편조대사는 초당공 직계다. 자손들은 모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유랑민이 되었다. 우리 집안도 험한일이 다가올까봐 어른들은 보고도 못본체 함구(緘口)로 내려온 지난날이었다고 하시었다.

영산신씨는 시조 신경(辛鏡)공은 중국 산서성 대수현 출생, 고려에 사신으로 과거시험에 응시 장원으로 금자대부 문하사랑 평장사로 전국을 순회 중 충숙왕 2년 단기 3441년 관향(貫鄉)을 영산 신씨로 임금님으로부터 하사(下賜)받았다.

※ (족보참조) 신씨는 덕재공, 초당공, 부원공, 관서공, 상장군 5개 파로 구성되어 있다.

상장군공과 5대조께서 지동(池洞)에다 계양사(桂陽祠)를 세우고 둘째아들 살림집으로 들복관에 가묘(家廟)와 숲 기반을 다진 후 청계공이 양성재(養成齋)를 세웠으나 계전(桂田)공이 이전 마을 심장부에 서당(書堂)개설 문맹퇴치와 예법 등 심혈을 기울이시다 타계로 제자들이 처사 추대 현 재실 앞 추모비를 세웠다.

26대조 수와(睡窩)공의 증손자 복암(復菴)공은 평소 근언신행(謹言慎行) 으로 촉석루 한시(漢詩) 경연대회 백일장 장원, 유림(儒林)과 군수의 추천, 영산향교 전교(典校)추대, 큰댁 종질이 유명(遺命)하자 상주가 없어 가매장한 후 관상가 대동 합천 청덕면 사막리 일암공(一菴公)선생의 후예 승문원 박사 신용목(辛容穆) 어른 둘째 4살 된 아기를 보고 저애가 장차 계성과 명성을 이어 빛내리라 생각이 더욱 애착, 식음도 전패하고 무더운 한 여름에 단정히 앉아 계시었다. 아침, 저녁 마당에 계시는 노인 관심에 자기 어버이에게 저 노인이 왜 저렇게 계시냐고 물었다. 너를 양자로 데리고 가려고 저러신다고 했다. 그럼 “소자(小子)가 동행(動行) 하겠습니다.

합천서 창녕 계성까지 가마에 태워 가묘(家廟)에 고유(告諭)한후 상복(喪服)을 입혀 장례식을 치루니 40여 촌수가 종손자로 교육을 받아 자란 아이는 이름은 신진교(辛鎭敎) 호는 계정(桂亭)으로 면(面)사무소 입사 계정(桂亭)이 없으면 면장 할 사람이 없다고 전 면민이 이구동성(異口同聲) 추천으로 면(面)생활 40여년 공직 근무 중 저수지 난공사에 국고금 부족분을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을 헌납했다. 가난을 지아 비로 자손들 따라 서울의 단칸방에서 내외분이 계시다가 85세로 인생을 마감하니 ‘오오 통제라!!’

서울서 고향까지 운구, 노제(路祭)와 비석을 면민(面民)들의 동참, 애도(哀悼)속에 추모비를 세웠다.

2022년 가뭄에 옥천저수지는 메마를 것이라 예척의 표현이런가.
1965-19 각 년 지난날의 혹독한 흉년 체험으로 면장님을 비롯하여
마을 지도자들의 일심 단결로 담수호 건설에 연민이 총력을 과하였다.
금년에 기후는 예사롭지가 않았다.

옥천저수지 가로 지른 무지개는 가뭄에 대처하라는 신(神)들의 예시
인가 만년교 같은 무지개 다리위에 별들이 비를 내려줍시사 면벽(面
壁)하고 있는 듯하였다. 창녕은 이 저수지로 발전하고 있다.

고향을 사랑하는 선인들에 국가 차원에 지난 날 공로를 생각하여 저
수지 주변 추모비를 세워 고마움을 표현함이 어떠하오리오.

70년대 수영공항 아버님은 퇴조문 주시며 간직하여라. 너의 토우가
되어 꿈을 향해 도전하리라!!! 양손 주먹을 쥐고 있던 중 부산 석간신
문에 김해 녹산면 분절리(미음리)제헌 국회의원 우산(愚山) 조규갑(曹
奎甲)선생의 사진을 보며 할머니 친정조카를 최초로 뵈옵고, 우리 형
제는 할아버지 묘갈명(墓碣銘) 요청을 흔쾌히 승낙을 하실 때에는 85
세였다.

1998년경 창녕 도천면 신기리 할아버지 추모비를 세우는데 참석한
계정(桂亭)형님은 할아버지 음덕(蔭德)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며

이 어른은 나에게 증조부로 나와 나 재종간(6촌)은 친형제와 다름없
다고 말씀하시었다!!

1996년 도전하라 꿈이 있는 곳 길이 있다. 냉동운반선으로 북양 길
을 선택했다. 옥천 두메산골에 원고 정리 평화은행 전국근로자 공모전
에 투고, 대구시조 공모전을 거쳐 1999 문예한국 가을호 해양시조로
등단 좁은 문 첫 단추를 끼워 최초로 해양문학 사설시조 정형시조 등
등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 대상 등으로 단힌 문을 활짝 열었다.

2016년 도천면 성낙묘씨와 등산길서 만나 용선대로 가던 중 초,중 시절 느껴보지 못한 사암으로 된 바위에 발이 묶여 한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었다. 사단법인 창녕에 편조사상 연구회가 발족되어 신용태씨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풀피리, 삐죽소리, 시내 강도 매마르고
메밀죽 보리고개 꿀꿀꿀 송진 껍질
어영차 내 짊어진 어깨 퐁퐁 뺏길 열다.
〈여명의 바다〉

최초 70~80년대 송출인력 10여 만 명 탄광, 간호사 등 바지선 표현, 돌무덤은 생사(生死)표현 화물선과 거북선은 화물선으로 표현하고, 나무를 심고, 주변정리 중 우리나라 해양인으로 버려진 척박한 땅을 쓸모 있는 환토로 변경되어 목마르고 허기진 분이 찾아오면 무상 보급 에다 어린이가 온다면 대환영 태극 깃발아래 지난날 보릿고개 옛이야 기로그 당시 라면도 없었느냐고 문의한다면 이곳이 산 교육장 몫을 하리라는 뜻으로 해양인 최초 봉사자가 되리라. 하는 뜻으로 해양문화 창작샘을 개설하였다.

천혜의 고장 창녕, 지금은 축복의 땅일까?



심재만
향토사 연구위원

창녕군 초대군수를 지냈던 이항녕군수께서 직접 지은 “창녕팔경”에서 경상도 창녕 땅은 인심 좋고 풍경 좋다고 창녕 땅을 예찬했다.

창녕지역은 동쪽으로 화왕산, 영축산, 덕암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이방면, 유어면, 남지읍, 길곡면을 따라 낙동강 150리가 굽이쳐 흘러간다.

동쪽의 산들이 불기운을 품고 아기를 안은 모습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낙동강의 찬 기운을 데워주고 있다. 찬 기운을 품고 쉼 없이 밀려가는 강물은 동쪽의 열기 식혀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주역』의 64괘 중 열한 번째 괘인 지천태(地天泰)에 해당한다. 지천태는 위로는 곤삼절 땅이요, 아래는 건삼련 하늘이다. 이는 땅의 기운이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만나는 기운으로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여 크게 일어나는 괘이다. 동쪽의 더운 기운과 서쪽의 찬 기운이 서로 도와주면서 조화를 이루니 그 사이에 펼쳐진 토지야 말로 하늘이 내린 옥토이다.

이렇게 기름진 땅에 우석 성재경씨가 농가의 가난을 물리치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었던 보리의 대체작물로 양파를 보급하였다. 양파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창녕이 양파 시배지가 되었다.

또한 식량자급 자족의 전환점이 된 다수확 계통의 통일벼는 ‘보릿고개’란 단어를 추억 속으로 날려 보낸 일등 공신이기도 했다. 최근 십여 년 동안 우리군의 효자 작목으로 떠오른 마늘이 수많은 억대 농가를 탄생하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기름진 옥토와 함께 북부의 용호별, 중부의 우포늪, 남부의 장재, 번개늪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뭄 때 농업용수와 홍수 시에 홍수조절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용작물(양파, 마늘)의 재배면적 증가와 통일벼 계통의 확대보급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이 많아 질수 밖에 없었다. 창녕군의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름진 옥토가 불모의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우리군에서 복원에 성공한 따오기의 멸종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농약과 화학비료에 중독된 개구리, 미꾸라지를 잡아먹은 따오기가 서서히 사라졌다는 환경적 요인이 제일 크다.

화학비료의 장점은 적정량을 사용하면 농약과 같이 독성이 없다. 영양분이 풍부한 작물의 생산량이 증대된다. 소비자는 적당한 가격에 양질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과다사용하면 토양의 산성화, 사막화가 가속된다. 식물과 토양의 세포를 연약하게 만든다, 과다 사용된 식품섭취 시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화된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토양에 남은 성분이 물에 녹아 유출되면 민물에는 녹조현상과 바다에서는 적조현상이 발생된다. 문제는 화학비료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다. 모든 토양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농가소득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화학비료가 생산되기 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인분 또는 가축부산물, 잡초로 퇴비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새벽 일찍 개똥을 주워 퇴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당시는 농가와 가까운 곳에서 들풀, 산 풀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봄이 되면 마을 뒤 높은 산에 케이블 선을 설치하였다. 새벽에 산 정상에 올라가 풀을 베어 케이블 선에 매달아 마을로 내렸다. 베어내린 산 풀로 공동퇴비장을 만들고, 숙성된 퇴비를 못자리와 본답에 넣어 농사를 지었다.

퇴비의 특성은 미생물의 먹이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미생물은 토양의 쓰레기를 분해하고 청소하여 흙과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토양과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보약 같은 존재다. 비료와 농약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하지만 비료나 농약과 같이 바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황무지를 살리고 기름진 옥토를 회복하기에는 퇴비보다 좋은 것이 없다.

중국 격언에 ‘사하인쟁궁시(似夏人爭弓矢) 집일불가이독사야(執一不可以獨射也)’ 하나라 사람이 활과 화살을 두고 어느 것이 중요한가? 논쟁하는 것과 같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활쏘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시초인육모예순(是楚人鬻矛譽盾) 양난득이구수야(兩難得而俱售也)’ 초나라 사람이 창을 팔면서 방패를 칭찬하다 둘 다 팔지 못했다. 는 뜻이다.

지금의 현실이 농가소득과 친환경농사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 이 둘은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둘 중 하나에 치우치다보면 또 다른 모순에 빠질 것이다.

최근 우포늪과 화왕산을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유네스코에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뛰어난 생태계와 청정지역을 인정받고, 농산물의 높은 가치부여와 관광,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

하늘이 내린 복된 땅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양심, 소비자의 해안과 위정자의 솔로몬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창녕의 발자취를 따라” 창녕향교 전교 양현 김호일 선생 저

우리 마을 새댁



우오도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우리군내 마을 대부분은 인구가 줄어 1년내내 아이 울음소리 들어 볼수가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다.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나이 60은 젊은층이고 찾기가 힘들며 70,80 이상의 노인 분들이다.

이렇다 보니 귀농과 귀촌으로 이사 오는 마을에는 경사가 난다. 기존에 살던 마을 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젊었기 때문에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마을에는 귀촌한 분이 이사를 왔다. 인근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다. 한분은 인근 면지역에서 출퇴근하는 5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이시다.

80이 넘고 90이 넘는 마을 할머니들은 이분들은 새댁이라 부르고 있다. 한 이웃집 할머니는 새댁은 이사온 후 집 주변에 텃밭을 잘 만들고 봉숭아, 수세미 등 꽃들도 잘 가꾸고, 옛날 흙 기왓장에 그림도 잘 그린다며 새댁이라 부르며 연신 칭찬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요양보호사 새댁에게는 새댁이 힘든 환자 챙긴다고 욕본다. 새댁이 돌본후 할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며 요양보호사 새댁에게 칭찬

일색이다.

새댁들의 이웃할머니들은 모두 건강하다. 새댁들과 농사짓고 건강하게 사는 애기 등 세상사는 소리를 다하고 들을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의 어느분이 새댁이라 부르는 할머니들에게 그 사람들은 50중반, 후반이고 사위까지 본 분들에게 새댁이 뭐고 하니까? 마을의 할머니들은 우리 마을로 봐서는 새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 순간 나도 할머니들 입장에서 는 맞겠구나 생각하였다.

새댁의 사전적의미는 「“새 색시” 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우리마을 할머니들은 새댁의 호칭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한편으로는 매년인구가 감소되는 현실에서는 그분들 보다 젊은층이 없으니 이해가는게 참담할 뿐이다.

요즘 남녀들은 결혼 후에도 남편을 오빠라 부른지 오래전 일이다. 우리 마을 새댁은 두 번이나 새색시가 되는 듯하다. 우리 마을에는 언제 새색시 새댁이 들어 올는지 기다려지고 기대해 본다.

고향(故鄉)이 있다는 것

장혁표

창녕 고암면 출신
(전)부산대 총장
(재)부산복지개발원 이사장
(사)청소년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정연덕(鄭然德)의 『거기 고향이 자라고 있다』는 詩의 몇 구절이 생각난다. “허물린 돌무덤 지나면 콩밭이 열리고 수수밭이 열리는 굽이마다 곳곳한 이야기가 열리는 땅...” 이제 돌아오는 길에나 떠나는 길에나 쌓이는 것은 바람이 아니더라. 뜨거운 자유를 누리며 말없이 씨 뿌리고 가꾸어 온 농부의 걸음걸이에 채여 휘청거리는 하늘이더라...』 어디 이 시의 구절뿐이라.

고향을 노래하는 사람도 많고 못내 가지 못한 고향이 그리워 망향의 꿈을 달래보려는 몸부림도 많다. 그러나 나와 같이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어릴 적 뛰놀던 넓은 들이며 포근히 잠자던 방이 그대로 있고 동네와 가까운 곳에 선조들의 묘소가 있어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곳이고 고향이신 부모가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집에만 계시더라도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고향은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곳이기도 하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게 되는 곳이 부모요, 친척이요, 고향선배 친지인 것은 우연한 노릇이 아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까마귀도 반갑다는 말이 있듯이 정서가

통하고 의기가 투합되는 교감이 쉽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이 되면 고향 사람들이 어울리는 향우회모임이 곳곳에서 열린다. 부산에 사는 15만 창녕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논에 물대기 때문에 서로 눈알을 굴리면서 죽일 듯이 싸우지만 타향에서 만나면 호형호제하며 그것도 옛 추억으로 승화하는 모습은 고향이 같다는 이유때문이 아닌가.

당나라 옛 시에『지친 말은 옛 거처하던 숲을 그리워하고 타관살이 하던 새는 옛 보금자리를 생각한다(病馬戀舊林. 霸禽思故樓).』고 하였다. 미물(微物)도 지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최남자(崔南子)에서도『새는 날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토끼는 달리면 옛 굴속으로 돌아가며 여우는 죽으면 고향 언덕에 머리를 둔다(鳥飛反響 兔走歸窟).』

금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고 내후년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뜻을 둔 사람들은 등 기댔 곳이라곤 고향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쳐다보고 군침들을 흘리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뿐만 아니라 타향에서 마저 선거시기에는 잊었던 고향사람을 찾아 도움을 청한다. 모두 좋은 이리고 또 있을 수 있는 노릇이다. 모두가 잘 되길 바란다. 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지역감정이나 지역균등론 따위와는 다른 의미에서이다. 큰 꿈을 갖고 먼 훗날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것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고향을 지키며 피약별과 흠내음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고향사람들에게 본심으로 대하고 살아가야 한다.

고향을 뒤에 두고 떠난 사람들이 모두 타향이 좋아서 간 것은 아니다.

고향에 살기 힘들어 떠난 사람도 있고 더 배우기 위해 유학길에 오른 사람 등, 저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있거나 마지막 갈 시기가 되면 떠날 때의 이유야 어쨌던 모두가 하나같이 고향을 그리워한다.

중국 고시에 『호나라의 말은 북풍이 불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월나라에서 온 새는 남쪽 가지에 둥지를 튼다(胡馬依北風 越鳥巢南枝).』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가꾸어 나가고 그곳의 발전을 위해 애를 써야 한다. 6.25 전쟁으로 피난 온 이북오도민 그 중에서도 철이 난 뒤에 월남했던 분들에서 명절이 되면 북녘하늘만 바라보며 눈 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때마다 고향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이제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 모두 고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첫째, 우리고향 창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아 배워야 한다.

창녕은 제2의 경주라고 할 만큼 문화유적이 많다. 다양한 문화유적의 내용과 정신사적의미등을 창녕문화원이나 군청에서 발간된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익히고 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작년 물계서원 춘제에 초헌관으로, 올해는 창녕 향교 추향제 초헌관으로 참가 할 수 있는 영광을 안았다. 어릴 적 도포짐을 메고 할아버지를 따라갔던 기억이 새로웠다.

둘째, 우리고향 창녕은 삼일운동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그 내력과 과정을 알아야 한다.

셋째, 우리고향 창녕은 전통문화가 잘 보존, 전승되고 있는 고장이다. 쇠머릿 싸움이나 줄다리기 등은 유명하다.

넷째, 창녕의 특산물로는 계성 계곡 안심골의 송이나 남지의 땅콩뿐만 아니라 양과 등이 있다.

다섯째, 창녕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람사르 국제 보존습지로 유명한 소벌(우포늪)과 화왕산 갈대밭, 부곡의 온천, 공산주의자와 맞서 싸워 끝내 승리한 격전지 백진나루터 등이 있다.

이제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창녕을 몇 가지 기능에 따라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하여 수려한 산수는 자연그대로 보존하여야 하겠다. 산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입산을 제한하고 안식년제를 도입한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우리들은 “우선 먹기에 꽃같이 달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으로 훗날 후회하게 된다는 뜻이다. 문화제의 보존을 위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도 곁들여야 한다.

밀려드는 외국 농산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고향사람들의 얼굴에 생긴 수심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밥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사용된 농약과 방부제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서서히 몸에 농약과 방부제가 축적되어 급기야 건강을 해친다는 말이 있다. 『값싼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언젠가 일본사람들이 취재하여 만든 수출을 위한 외국 농산물에 과도한 농약이 뿌려지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공개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농산물 장려에 힘을 보태야 한다.

신토불이(身土不二)는 우연한 말이 아니다. 절대절명의 진리인 것이다. 부산의 온천장에서 ‘창녕산 한우 파는 곳’이라는 간판을 본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농수산공판장이나 식당에서 산지표시를 한 곡물, 과일중에 『창녕』을 대표하는 『따오기 쌀』, 『우포 쌀』 등을 볼 때 반갑

기도 하고 자부심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이것을 보다 합리화하고 조직화(유통과정)하여 외지에 있는 창녕사람이 고향의 것을 팔아주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것뿐이겠는가, 요소요소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 가장 큰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큰 나무 아래 작은 나무는 크게 자랄 수 없으나 큰 사람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자란다는 말이 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우선은 자신의 영광이요, 둘째고향의 자랑이다. 덩달아 내 마음도 든든한 느낌이 든다.

창녕은 옛날 여러 성씨가 어울려 살아왔고 지역에 따라 특정 성씨가 집단적으로 살아오고 있다. 작은 지역이긴 하나 풍습에서 창녕사람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구, 부산, 마산등 인접한 대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토박이 창녕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약간 어려움을 느낀다. 조상대대로 평생을 창녕에 집을 두고 자주 왕래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넓은 의미에서 토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진정한 창녕사람을 구분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내 고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하여야 한다는 충심의 표현이다.

나도 창녕사람임을 언제든 어디에서든 기회가 있을때마다 내세운다. 나는 창녕중학교 4회(1950년) 졸업생이고 나의 동기에서 대학총장이 3명(부산대, 부산교육대, 금강대), 은행장, 구청장등 자랑할 만한 인재가 다수 배출되었다. 창녕이라는 넓은 들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까닭에 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부산의 향우회의 심부름꾼으로 나서기도 했다.

의금귀고향(衣錦歸故鄉)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鄉)이라고 쓰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옛이야기에 “부귀하여 고향으로 돌

아가지 않으면 비단 옷 입고 밤길 가기이다(富貴不歸故鄉 如衣錦夜行).” 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고향사람만이 알아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향을 잊지 못한다.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 창녕을 위해 마음을 쏟고 애정을 가지길 당부한다.

여행하기 좋은 가을날을 맞아 역새밭으로 유명한 창녕 화왕산을 산행하고 람사르 국제 보존습지로 유명한 우포늪을 방문해 보길 권한다.

소별에 들어서면 갖가지 수초와 벌레소리, 물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고니와 물위의 오리떼들, 푸른하늘에 흘러가는 흰구름, 저녁이면 숲 사이로 비치는 달빛.... 이것은 잊지 못할 풍경이다.

주역(周易) 프레임으로 보는 2023년(癸卯年)



智光 **한삼운**
창녕문화원 부원장
검 향토사연구소장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이 가고 대망의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았다. 격변이 예상되는 한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런 암울한 때에 동양 최고의 고전 주역(周易)이 일러주는 지혜의 길을 알아본다.

주역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보아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괘를 직접 뽑아보는 방식이 첫 번째이고, 육십갑자 프레임을 통하는 방법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지금의 상황이 주역의 어느 괘효(卦爻)에 해당되는지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 번째 방식이다. 그러나 세 번째 방식은 주역에 달통한 현자들이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가장 객관성이 높은 두 번째 방식을 소개한다.

육십갑자(六十甲子)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조합이다.

* 천간(天干:10干) :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 지지(地支:12支) ;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계묘년(癸卯年)은 간지(干支: 天干과 地支)상, 천간(天干)으로는 ‘계(癸)’가 10번째이며, 지지(地支)상으로는 ‘묘(卯)’가 4번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괘(上卦)는 주역 팔괘 중 두 번째인 태괘(兌卦 ☱)이며 하괘(下卦)는 4번째인 진괘(震卦 ☳)가 된다. 그래서 17번째 괘(卦)인 택뢰수괘(澤雷隨卦 ☱☳)가 계묘년의 기본 괘(本 卦)가 된다.

* 1건천(1乾天:하늘)/2태택(2兌澤:연못)/3리화(3離火:불)/4진뢰(4震雷:우레)/5손풍(5巽風:바람)/6감수(6坎水:물)/7간산(7艮山:산)/8곤지(8坤地:땅)

* 수(隨)란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

효(爻)는 천간과 지지의 숫자를 더하여 도출한다. 천간과 지지의 숫자를 더하면 14(10+4)가 되므로, 초효(初爻)에서부터 숫자를 짚어보면 14는 6효를 두 번 짚고 다시 2효에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택뢰수괘(澤雷隨卦) 여섯 개 효(爻) 중 두 번째인 육이(六二)효가 2023 계묘년 주역의 괘효(卦爻)가 된다.

2023년 하반기 운세는 지괘(之卦)로 판단한다. 지괘는 움직이는 효(動爻 또는 變爻)로써, 본괘 해당 효의 음양을 바꾸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음이 극에 이르면 양으로 바뀌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 괘인 택뢰수괘의 지괘는 변효(變爻)인 육이(六二)의 음(--)을 양(—)으로 바꿔서 보면 된다. 따라서 지괘는 상하로 태괘(澤卦)가 겹치는 중택태괘(重澤兌卦 ☱☱)의 두 번째 효(爻)인 구이효(九二爻)로 하반기 운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주역 17번째 괘인 택뢰수괘(澤雷隨卦)에 대해 알아본다.

괘에 대한 설명인 괘사(卦辭)는 이렇다.

“수시변통해야 하는 상황이다. 크고 밝은 마음으로, 이롭게 하고 바르게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隨(수), 元亨利貞(원형이정) 无咎(무구)”

하괘(下卦)는 우레(雷)처럼 움직임이 격렬한 진(震)괘이고, 상괘(上卦)는 고요한 연못(澤)처럼 기쁨을 상징하는 태(兌)괘이다. 격변기를 잘 처신한 결과 기뻐하는 코드다.

나를 버리고 성인지도(聖人之道/天道)를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움직여서 기쁨으로 변환한다는 의미다.

연못(澤) 속에 우레(雷)가 있는 형국이 바로 태뢰수괘(澤雷隨卦)라고 보면 될 것 같다.[澤中有雷(택중유뢰) 隨(수)]

수(隨)는 잘 따르고 순종한다는 뜻이다. 변화가 극심할 때, 지혜로운 처신이 무엇일까? 그것은 크고 밝은 마음으로 이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주역은 알려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은 바로 천도(天道)로써, ‘하늘의 이치’를 말하고 있다.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변화를 주관한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기르며, 가을에는 수확하며 겨울엔 저장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때에 맞게 수시변통하는 자세다. 격변기에는 중심을 잃지 않고 하늘과 같은 크고 밝으며, 누구에게나 이로우며 바른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지혜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준다.

세부지침이라 할 수 있는 효사(爻辭)에 보면 구체적인 자세가 나온다.

“작은 일에 얽매이면 큰일을 못한다”고 했다. “係小者(계소자) 失丈夫(실장부)”다.

소자에게 얽매이면 장부를 잃는다는 뜻이다.

하반기 운세는 58번째 중택태괘(重澤兌卦)와 본 효의 두 번째 괘효인 구이효(九二爻)에서 잘 드러나 있다.

중택태괘의 전체 의미는

“기쁜 일이 거둡되는 상황이니 밝게 통하고 이롭게 하며 바르게 처신하라”는 메시지다.[兌(태), 亨(형) 利貞(이정)]

구이효(九二爻)엔,

“믿음을 갖고 기뻐하면 길하고 후회가 사라진다[孚兌(부태) 吉(길) 悔亡(회망)]

주역에선 기쁨(兌) 일이 거둡되는 상황에서 처신하는 지혜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밝게(亨) 통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롭고(利) 바르게(貞)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뒤탈이 없도록 조심하며, 기쁨을 나누되 서로 도움을 주라. 스스로의 입장과 역할을 살펴보라! 이게 주역이 알려주는 메시지다.

‘삶은 B(Birth/출생)와 D(Death/죽음)사이에 있는 C(Choice/선택)’라고 말한다.

인생의 성패는 선택(Choice)에 달렸다는 의미다.

점을 친다는 의미는 “극수지래지위점(極數知來之謂占)”이란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헤아림을 다할 때 다가올 미래를 아는 것을 일러 점(占)이라는 말이다(주역 계사전)

‘역(易)’은 ‘상(象)’으로 말하고, ‘코드(Code)’로 말한다.

지시식변(知時識變), 수시변역(隨時變易)이 주역의 핵심이다.
“때(상황)를 알고 변화를 인식하라. 그리고 때에 맞춰 변하고 바뀌어라.”
이것이 인공지능시대, 우리 모두가 제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를 헤쳐 나갈 지혜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괘상(卦象)〉



〈전체=〉태뢰수괘 〈부분=〉중택태괘

* 참고 자료 : 손기원 박사의 “코드주역”

반포지효(反哺之孝)가 필요한 현대사회



서창호

(사) 영산삼일독립결사대유족회 홍보단장 / 감사

한국과 일본은 고령국가이다. 두나라 모두 초고령국가의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한국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는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너무 빠르다.

합계출산율의 저하는 고령사회를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견인하고 있고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어쩔수 없는 숙명적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인이 된다.

노년을 맞이하는 자세에 사회성과 민족성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웃나라 일본의 노인과 한국의 노인이 맞이하는 노년의 삶은 자못 다르다.

노인복지제도에 있어 우리는 앞선 일본의 고령사회를 벤치마킹하며 따라간다. 예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방문요양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어르신 요양을 개호(介護)라고 부르며 서구는 welfare(복지)로 통칭하고 우리는 요양이라고 한다. 서구는 복지속에 폭넓게 요양 즉 어르신 보살핌으로 표현한다.

일본의 노인과 한국의 노인은 노년의 삶과 생각히 확연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는 별반 다르게 없지만 우리의 방문요양은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어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되어 절차에 따라 곧바로 해당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께서는 방문요양의 도움을 받는다.

일본의 요양 개호(介護) 즉, 보살핌은 이웃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 이웃이 돌아가며 개호(介護)로 시작되어 어르신에 대한 지역의 만족도와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제도화하여 오늘의 방문요양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공동의 보살핌 우리는 효(孝)라는 문화로 접근하여 일본은 개호(介護)라는 공동체로 한국은 효(孝)라는 유교적 개념의 봉양으로 철저히 가족과 개인의 부담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각박한 현대사회에 개호(介護) 효(孝)라는 문화적 환경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생활의 패턴에 불편함이 따르다보니 자연스럽게 복지(welfare)라는 것에 어르신 요양을 편입시켜 우리와 일본이 방문요양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노인과 일본의 노인이 생각하는 다른점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일본의 노인은 노년이 되면 대부분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에 철저히 의존한다.

극단적인 예로 군마현의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후 집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돈으로 4억이나 되는 현금이 검은 비닐봉지에서 발견되었다.

한해 독거노인들이 삶을 마감하여 남긴 현금이 무려 1900억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한 때 미국과 경제규모 1위를 다투던 저축율이 대단했던 일본은 옛말이고 이제 노년이 되면서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이유로 거동의 불편으로 자연스럽게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돈의 위력을 아는 일본인다운 노년의 삶이다.

우리 한국의 노인은 일본과는 사뭇 다르다. 모든걸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준다.

그것이 삶의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아들 딸 손주 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면서 물질적인 나눔의 즐거움을 느끼고 노년의 삶을 지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분들이 얼마나 현명하신가를 오늘도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체험하고 있다.

모든걸 주시는 우리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훨씬 위대하는 것을 일본의 노인들을 보며 느낀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며 영원히 사랑합니다.

도암재 및 시조 영적비와 보호수



조 병 암
창녕조씨 창녕군 종친회장

창녕읍에서 북쪽으로 십오리 지점인 고암면 간상리에 왕령산과 함께 삼신령·광덕산이 좌·우측으로 기품 있게 솟아 있고, 서쪽으로 대합면, 북쪽으로는 성산면이 있다.

그리고 광덕산 입구에 약 300년 전 창녕조씨 만호공파 도암재 문중 재실이 건립되면서 주위에 느티나무, 회화나무, 팽나무, 은행나무를 심었고, 그 옆에 형체가 매우 아름다운 일원각이 있어 자연미를 더해 준다.

도암재는 19세기 초에 창건하여 중종의 재실(齋室) 겸 가숙(家塾)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20세기까지 여러 차례 중수하였고, 독립운동가 심재 조공섭(1873~1933)이 학문 활동을 한 장소이다. 그리고 도암재 기(記)는 조선 후기 학자인 만구 이종기가 썼다.

도암재는 조선 후기의 건축물로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 등록이 예고된 상태로 정방형 평면의 중당협실형으로 좌우측의 온돌방과 마루를 배설하였으며, 중앙 마루칸 배면에 쪽마루를 두었고, 우측 온돌방에서

쪽마루로 가는 문을 두어 배면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매우 아름다운 대중재실이다.

또 도암재에 있는 약 250년의 수령의 회화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서 으뜸으로 치는 신목(神木)이며, 우리 선조들이 최고의 길상목(吉祥木)으로 손꼽아 왔고, 선비나무로 불렸으며, 서원, 서당, 재실, 사대부가 등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학자수'라는 별칭도 있다.

회화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가문이 번창하고, 학자나 큰 인물이 나며, 잡신이 침범하지 못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모여든다.

그래서 도암재 문중에서 이 나무를 심고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기원했고,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자녀들의 대학 입시 때 어머니들이 정갈한 차림으로 합격을 기원했던 길상목(吉祥木)이었다.

일원각은 창녕조씨 시조인 조계룡의 영적(靈蹟)을 기록한 비를 보호하는 비각(碑閣)으로 그 형체가 매우 아름다운 다포식 건축물이다.

1892년에 건립 되었으며, 고종29년 이조참판 관직에 재임 중이던 종인(宗人) 조인승(曹寅承)이 우부승지를 지낸 영재이건창(榮齋李建昌, 1852~1898)에 비문을 요청하였다.

이건창은 '강화학과'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 당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론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에 반대했고,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낙향한 당대의 학자이자 문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창녕조씨 시조 영적비의 음기(陰記)는 심재 조공섭의 부친 되시는 조병의가 기록 했으며, 공의 배태는 비록 저 산꼭대기 용지이기는 하나, 공이 태어난 곳은 반드시 이곳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여러 사람들의 의논에 따라 대암에 세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적비의 귀부는 거북, 비신은 각자(刻字)에 용이한 대리석계열을 사용했으며, 이수(水首)는 팔각지붕 모양으로 조각하였고, 귀부와 이수는 화강석 계열로 석재의 재질과 색체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도암재와 일원각 및 영적비는 창녕조씨 전체 문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 있는 건물로 현재까지 만호공파 조도암 종중에서 관리해 왔다.

또 일원각 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약 250년의 수령으로 지극히 평범한 우리 선조들의 삶이 생생하게 녹아 있고, 현재 창녕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의 나무 문화는 흔히 소나무 문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조선 후기의 이야기고, 느티나무 목재는 우리나라 제일로 치며, 무늬와 색상이 중후하고, 아름답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소나무의 기상은 널리 인정해 주었지만 목재로서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대접이 사뭇 달랐고, 양반들은 느티나무로 지은 집에서 느티나무 가구를 놓고 살았으며, 느티나무 관에 실려 저승으로 간다는 마을 구전이 있다.

사람들은 느티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했고, 봄에 잎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한 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점쳤으며,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흰머리가 검게 된다는 마을 구전이 전해져 오고 있다.

도암재에 보관중인 대종작식총책(大宗作息總責)외 많은 자료를 통해 19세기 중엽 재지사족 가문의 활동을 이해할 뿐 아니라 경화사족이 위선사업(爲先事業)이라는 명목 속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도암재 및 시조 영적비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활용도 가능하다.

‘둘만 낳자’에서 ‘더 많이 낳자’로



유영숙
창녕신문 대표

‘둘만 낳자’에서 ‘더 많이 낳자’로

우리나라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증가율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계획 정책을 펴왔다.

60년부터 90년대까지 인구 억제 대책에 정부가 나서서 3.3.35의 구호를 걸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3살 터울로 셋만 낳아서 35세에 망단을 하자는 뜻이다.

그 이후 더욱 더 강력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것이다.

그 시절에 공직자는 강제성에 의해 불임수술을 받아야 했고 만약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남아선호사상이 만연한 시대에 아들을 하나 두고 싶은 이도 불임수술을 받지 않으면 공무수행에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공직자에겐 정말 불안한 시대였다.

정부가 공무원 1인당 몇 명씩을 담당해 불임시술을 받도록 하는 등 목표량을 배정하면서까지 인구 정책을 강력하게 편 결과 지금은 가족 계획 권장 없이도 자발적인 참여로 하나 아니면 둘로 족하기 때문에 인구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근 군에서도 인구 유입책으로 한 명이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말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인구 억제 정책이 어제 같은데 현재는 인구증가에 온갖 정열을 쏟으니 극과 극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인구정책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고 따라서 경제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10년도 안되어 출산력 증가의 방법으로 다출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에까지 도달하였다.

인근 군에서는 곳곳마다 현수막을 달고서 인구 늘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살 수 있는 어떠한 삶의 터전에 대한 방법과 대안도 없이 어떻게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무지한 국민만 불임수술을 받으면서 괴로워했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시절은 그저 지나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계획이란 언어가 전설로 남는 먼 얘기가 되어 버렸다.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토문화 연구 및 자원 소개

- ◇ 천년 고찰 창녕 용흥사지 발굴 조사 현장을 찾아서 김화영
- ◇ 낙동강 지배자 비사벌(比斯伐) 남중희
- ◇ 만년동안 사라지지 않는 무지개 만년교(萬年橋) 한삼윤

천년 고찰 창녕 용흥사지의 발굴조사 현장을 찾아서



김 화 영
향토사 연구위원

I. 발굴 조사 개요

창녕 용흥사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56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05년 동아문화연구원에서 문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9년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사역확인, 승탑, 초석, 축대, 향완 등 부재 및 소재 문화재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21년 9월에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건물지, 축대, 담장, 초석 등을 확인하였으며, 2022년 11월에 1차 발굴조사에서는 금당지, 계단지, 축대, 활주초석 등을 확인하였고, 다시 2022년 7월 18일~2022년 9월 6일에 실시한 2차 발굴조사에서는 건물지 10동, 축대 및 명문 기와편 등 많은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

본 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창녕 용흥사지에 대한 시·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중요사지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과 보존범위를 파악하여 용흥사지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하에서는 문화재청의 의뢰로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조사단을 구성

하여 2022년 9월 6일 현재까지 시·발굴한 조사 현황을 개략하여 우리
군민에게 정중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단 구성

단 장 : 제정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책임조사원 : 김진덕(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팀장)

조 사 원 : 김 선(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연구관)외

II. 발굴 조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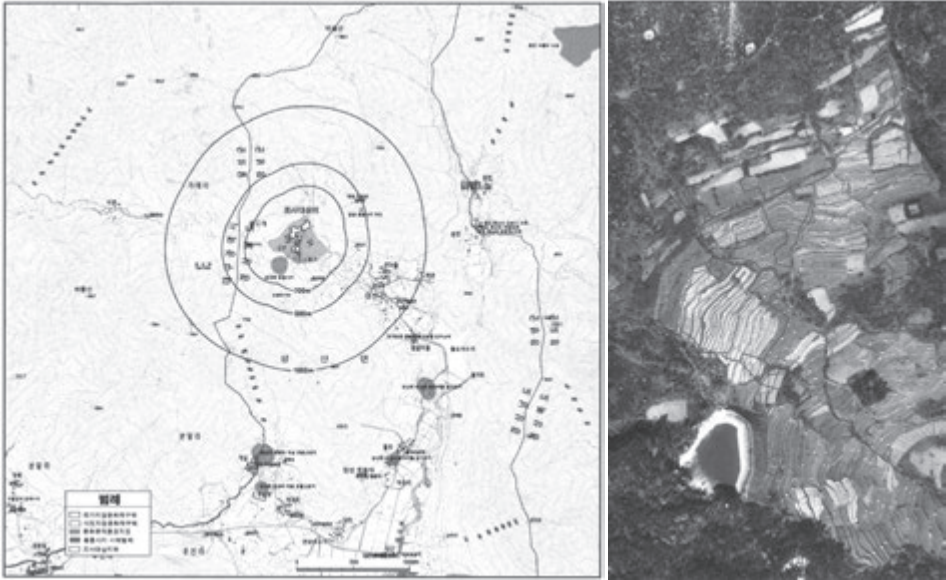
문화재청의 의뢰로 2005년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
하고, 2019년에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사역확인 및 밀양 표충사 소재
은입사향완(국보제75호) 등 용흥사지 관련 문화재를 비롯한 유물 조
사를 실시 확인하였으며, 그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시·발굴조사를
하고있다.



밀양 표충사소재 청동은입사향완(점각 : 창녕북면용궁사)



부용정 소재 탐신석 안심사 소재 승탑



조사구역위치

1) 문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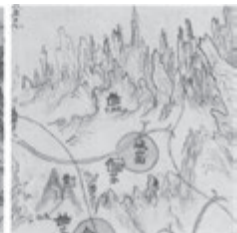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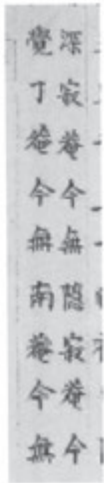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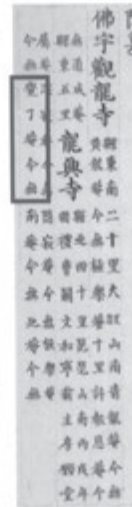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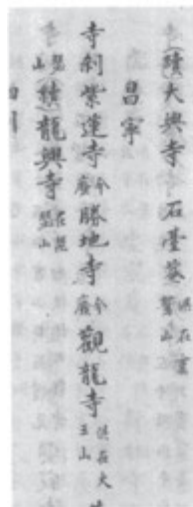
창녕 용흥사는 1711년 간행된 『東溪集』 「龍興寺事蹟記」에 신라 觀機聖師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관기성사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包山二聖條에 ‘신라시대 관기성사와 도성성사가 포산에 살았는데, 관기는 남쪽 고개에 암자를 지었고, 도성은 북쪽 굴에 살았다. 거리가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내왕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

『東谿集』에는 「龍興寺創建廊舍記」와 「龍興寺事蹟記」가 실려있는데, 당우를 짓는 것은 지형을 살펴서 배치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지 대덕 혜공선사와 조구명의 이야기가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용흥사는 1641년부터 대규모 중건이 진행되고, 대규모 석축과 회랑·홍하·채운 등 방 4개와 금강문·불이문 등을 조성하고, 1689년에 단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적기에 의하면 용흥사는 고승 관기가 이 절을 짓고 용흥이라고 했으며, 그 후 병화를 수차례 거치면서 소실되었는데, 도인 각료와 단사인 곽항이 다시 일으켜 了恒寺라 했으며, 이름이 알려진 것은 고려시대라고 한다.

임진왜란 과정에서 소실되어 나한전만 남았는데 갑인년 여름에 지혜스님이 초가를 지어 머물렀는데 용흥이라고 새겨진 바라를 발견하여 용흥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문헌에서 확인되는 건물지는 서상실, 상동실, 양노당, 괘월당, 대웅전, 승당, 종각, 금화당, 관음전(백설료), 극락전, 향적전, 문수전, 향로전, 불이문, 금강문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해동지도, 범우고, 경상도읍지 등에서 용흥사의 역사적 기록을 아래 사진으로 비교적 상세히 찾아 볼 수 있다.



2) 용흥사지 현장조사

용흥사지는 비슬산 남쪽 지맥에 해당하는 용고개 능선 동쪽의 불암골 상부에 위치한다. 사지는 관기봉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과 능선 사이에 입지하고, 사지 북동쪽 직선거리 500m 정도에 각료암이 위치한다. 용흥사지는 남동향이며, 능선 사이에 완경사면을 깎아 서-동으로 넓은 대지를 형성하였다. 사역은 민가조성과 경작, 석축의 현상변경 등으로 인해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며, 사지관련 유물과 유구가 파괴되거나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다.



조사지역 전체 전경

3) 시굴조사

시굴조사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허가(제2021-1375호)를 받아 2021년 9월 28일부터 동년 11월 4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 트렌치는 기준좌표를 중심으로 36개의 시굴트렌치를 설정하였고, 트렌치는 길이 2~17m, 너비 1.0m로 제토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축대 7기, 조선시대 건물지 7기, 담장지 5기, 조선시대 건물지 관련 적심, 초석, 기단열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조선시대 연화문 수막새편, 당초문 우설형 암막새편, 중호문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상평통보 등이 확인되었다.

2021년 11월 4일 학술자문회의 결과 정밀발굴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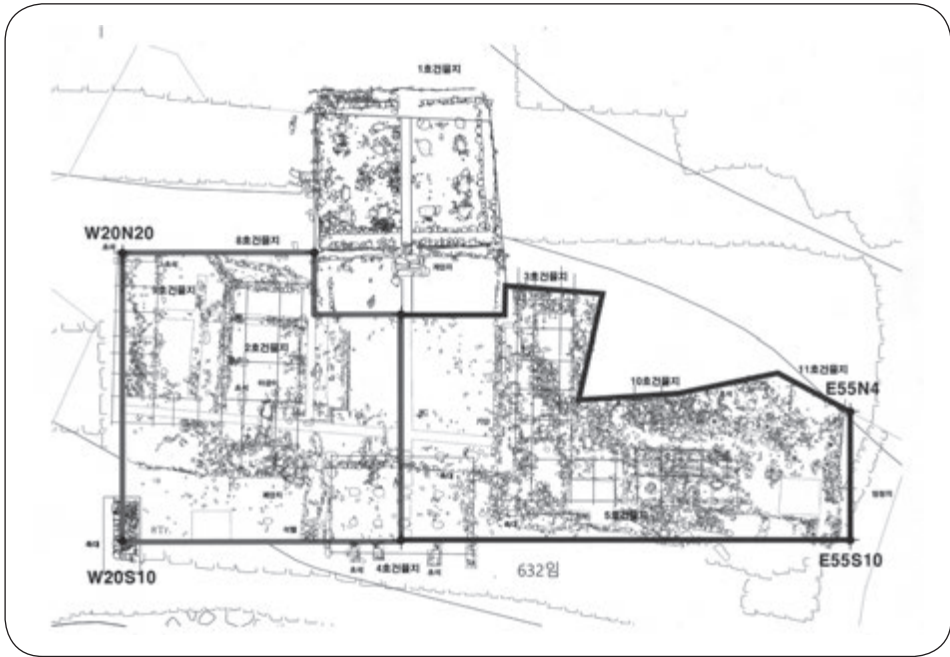
시굴조사지역 전경

4) 1차 정밀발굴조사

1차 정밀발굴조사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동년 12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1동, 계단지 3기, 축대, 활주초석 등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건물지는 금당지(추정 대웅전지)이고,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활주초석 등이 잘 남아 있다. 계단지는 정면과 좌·우측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조선시대 ‘崇禎八年 乙亥四年’명 막새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2021년 12월 13일 2차 학술자문회의 결과 조사된 지역과 주변 일대에 대한 연차적인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사찰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밀 발굴조사구역 유구 현황도

5) 2차 정밀발굴조사

2차 정밀발굴조사는 대웅전 남쪽의 요사채 및 문지에 대해 문화재청 변경허가(2022.06.28.)를 받아 2022년 7월 18일부터 동년 9월 07일까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결과 4동의 건물지와, 솟가마 1기, 담장지 2기가 추가로 확인되어, 기존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건물지를 포함하여 총 8동의 건물지와 축대 1기, 솟가마 1기, 담장지 2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승방으로 추정되는 2호 건물지와 장랑으로 추정되는 5호 건물지는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유물은 조선시대 ‘康熙五十二年癸巳’명 막새편, 분청사기편, 자기편,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 1호 건물지(대웅전지)
 - 정면 3칸, 측면 3칸
 - 정면 주칸거리 3.9×4.5×3.9m
 - 측면 주칸거리 2.4×4.2×2.4m
- 2호 건물지
 - 정면 5칸, 측면 3칸
 - 정면 주칸거리 3.8×3.7×4.0×4.3×2.3m
 - 측면 주칸거리 2.4×3.5×2.4m
 - 남북 장축 방향, 아궁이 시설 확인
 - 2호 건물지 훼손 호 담장시설 조성
 - 2-1호 건물지(2호 하부)
 - 2호 건물지 동쪽 하부에서 아궁이 시설 및 기단 시설 확인
- 3호 건물지: 'ㄴ' 자형 건물지, 남북 장축 2.0×2.3×3.3×3.3×3.3×2.0m, 동서 장축 2.3×2.3m
- 4호 건물지: 종각, 정면 5칸, 측면 5칸, 정면 주칸거리 2.5×2.5×3.5×3.5m, 측면 주칸거리 1.5×2.0×2.5×2.0×2.0m
- 5호 건물지: 정면 4칸 이상, 측면 2칸, 정면 주칸거리 2.5×2.5×2.5×2.5m, 측면 주칸거리 2.0×2.5m, 3호 건물지 후대 증축
- 5-1호 건물지(5호 하부): 5호 건물지 하부에서 확인, 정면 4칸, 측면 1칸, 동서 장축 방향, 3층의 구름 시설과 아궁이 등 확인
- 8호 건물지: 2호 건물지 북쪽에서 기단 시설 확인
- 9호 건물지: 서쪽에서 확인, 'ㄴ' 자형 건물지, 남북 주칸 거리 2.5×1.8×2.21.8×2.5×2.3m
동서 주칸 거리 2.1×2.6×2.6×2.3m, 2호 건물지 폐기 후 조성
- 10호 건물지: 동북쪽에서 확인, 정면 1칸 이상, 측면 1칸 추정
- 11호 건물지: 동쪽에서 확인, 초석 및 기단 시설 확인

발굴조사구역 유구 사진

6) 학술자문회의의 조사 결과 보고

2022년 9월 07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로 사역확인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심구역 동편과 서편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진입시설과 관련하여 발굴조사를 실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창녕 용흥사지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및 창녕군청, 각료암(주지 대운스님)과 협의를 거쳐 더욱 심도 있는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 1. 조사경과

일시	조사명	조사기관	내용
2005년	창녕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동아문화연구원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관련유물 확인) 위치비정 오류
2019년	한국의 사지	불교문화재연구소	사역확인, 승탑, 용흥사지 관련 부재 및 소재문화재 확인, 승탑재, 초석, 축대, 밀양 표충사 소재 청동 은입사 향로
2021.09.28.~ 2021.11.04	창녕 용흥사지 시굴조사	불교문화재연구소	건물지 7동, 축대 7기, 담장 5기, 건물지 관련 초석 등
2021.11.16.~ 2021.12.15	창녕 용흥사지 발굴조사	불교문화재연구소	금당지(추정 대웅전지) 1동, 계단지 3기, 축대, 활주초석 등
2022.7.18.~ 2022.09.07	창녕 용흥사지 발굴조사	불교문화재연구소	건물지 7동, 축대 1기, 담장지 2기, 숲가마 1기 등

표 2. 창녕 용흥사의 연혁

연 도	내 용	자 료출 처	비 고
신라	고승인 觀機가 절을 짓고 편액하였다고 함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 事蹟記.	『雷淵集』에는 신라 말 道誥에 의해 창건 되었다고 함.
고려	여러 번의 병화를 거치게 되었으며 고려 때 道人인 覺了와 檀士인 郭恒이 이를 복구하고 사명을 '恒寺'라 함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 事蹟記.	『雷淵集』 卷19, 碑銘 昌寧縣龍興寺碑 銘并序.
조선 중기	萬曆(1573~1619) 연간인 임진왜란 때 羅漢殿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 事蹟記.	『雷淵集』 卷19, 碑銘 昌寧縣龍興寺碑 銘并序.

연 도	내 용	자 료출 처	비 고
1614년 (갑인년)	여름에 智慧 스님이 절의 이름을 ‘龍興’이라 고치고 편액 함. 惠公이 安禪之堂 건립하고 禪悟 스님이 머물도록 함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事蹟記.	『雷淵集』 卷19, 碑銘 昌寧縣龍興寺碑 銘并序.
1631년 (신미년)	西上室을 건립 (이후 冥府殿)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事蹟記.	思敬 스님이 養老堂과 掛月堂을 지었는데 이후 詠月寮가 됨.
1635년 (을해년)	性悟大師가 大雄殿을 지음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事蹟記.	
1641년 (신사년)	信宗·善圭·戒薰·碩倫 스님이 僧堂을 지음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事蹟記.	玉玲大德이 佛像을 조성하고 禪悟 스님이 羅漢像殿을 중수함.
1645년 (을유년)	弘印 스님이 鐘閣을 건립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事蹟記.	
1649년 (기축년)	信宗 스님이 上東室을 조성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事蹟記.	
1650년 (경인년)	弘衍 스님이 金華堂을 건립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事蹟記.	
1651년 (신묘년)	道信 스님이 觀音殿을 지음(이후 白雪寮)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事蹟記.	
1678년 (무오년)	滿月·靑雲堂 건립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事蹟記.	

연 도	내 용	자 료출 처	비 고
1683년 (계해년)	가을에 절 사람들에게 사찰 전면에 담장을 쌓도록 권유.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 事蹟記.	「昌寧縣龍興寺郎舍創 建記」에는 신유년(1681)에 주지인 大德 惠公에게 담장을 쌓을 것을 권유함.
1686년 (병인년)	봄에 사중들을 시켜 큰 섬돌을 쌓았는데 길이가 200주에 이름	『東溪集』 卷2, 記 昌寧縣龍興寺 郎舍 創建記.	
1687년 (정묘년)	性眞 스님이 極樂殿을 건립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 事蹟記.	
1688년 (무진년)	長 廊 4 채 와 不二·金剛門을 건립하고 詠月·紅霞·灌世·彩雲 등으로 명명.	『東溪集』 卷3, 記 毗瑟山龍興寺 事蹟記.	『東溪集』 卷2, 記 昌寧縣龍興寺郎舍創建記.
1691년 (신미년)	주지인 嚴公이 東溪 敬一(1636~1595)에게 記를 청하여 「昌寧縣龍 興寺郎舍創建記」를 작성.	『東溪集』 卷2, 記 昌寧縣龍興寺 郎舍 創建記.	
1747년 (정묘년)	승려 體審과 淸翁 등이 비석을 세우기 위해 雷淵 南有容(1698~1773)에게 記를 부탁하여 작성.	『雷淵集』 卷19, 碑銘 昌寧縣龍興寺 碑銘并序.	이 시기에 이르면 堂 8채, 殿 6채, 寮 6채, 室 2채, 2곳의 문과 1곳의 종루, 5곳의 암자(庵)가 절을 둘러싸고 있었음.
1788년경 이후	成均館에 매년 흰 종이(白紙) 50 권을 바치도록 규정.	『春官通考』 卷34, 吉禮 成均館, 成均館 折受條.	
1826년 (병술년)	禮曹의 關文에 의거하여 英祖의 서녀인 和寧翁主(1754~1821)의 願堂으로 삼음	『慶尙道邑識』 卷19, 昌寧郡 佛宇 龍興寺條.	부속암자로 深寂庵·隱寂 庵·極樂庵·覺了 庵·南庵·北庵이 있었으나 이 시기 모두 폐사함.

연 도	내 용	자 료출 처	비 고
1899년경 (光武 3년)	禮曹의 關文에 의거하여 和寧翁 主의 願堂으로 삼음	『昌寧郡邑識』 卷1, 佛宇條.	『慶尙道邑識』와 내용 동일.
1911년 1월 6일	昌寧郡 城山面 覺了庵의 주지로 金典화가 임명	『朝鮮總督府官報』 제405호, 明治 45년 1월 6일 住持就職 認可條.	
1910년대	龍興寺를 昌寧郡守가 임명 한 典華(華)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사찰 운영은 佛享 狹 5斗를 마을의 牧人으로 유지하도록 함	『寺刹考』慶尙 南道, 龍興寺條.	(金)典華(華)
1910년대	羅漢佛·觀音畫·山神畫 등 용흥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목록이 나타남	『通度寺本末財産 臺帳』龍興寺條.	
1919년 4월 26일	昌寧郡 城山面 龍興寺 주지 金典華 임기만료, 金昌燮이 주지로 취임	『朝鮮總督府官 報』제2012호, 大正 8년 4월 26일 「社寺, 宗教」, 住持異動.	金典華(和)
1925년 4월 20일	龍興寺 주지 朴斗權 임기만료, 朴善旭 주지 취임	『朝鮮總督府官 報』제3801호, 大正14년 4월 20일 「調査及報告」, 社寺, 宗教, 住持異動.	

Ⅲ. 조사방법

1. 시굴조사

창녕 용흥사지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구역 대상면적은 22,166㎡이다. 조사대상지에 대한 조사는 사역 북쪽의 대축대를 기준으로 기준 좌표는 자연 경사면과 직교하게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구역은 방격 그리드를 구획 후 36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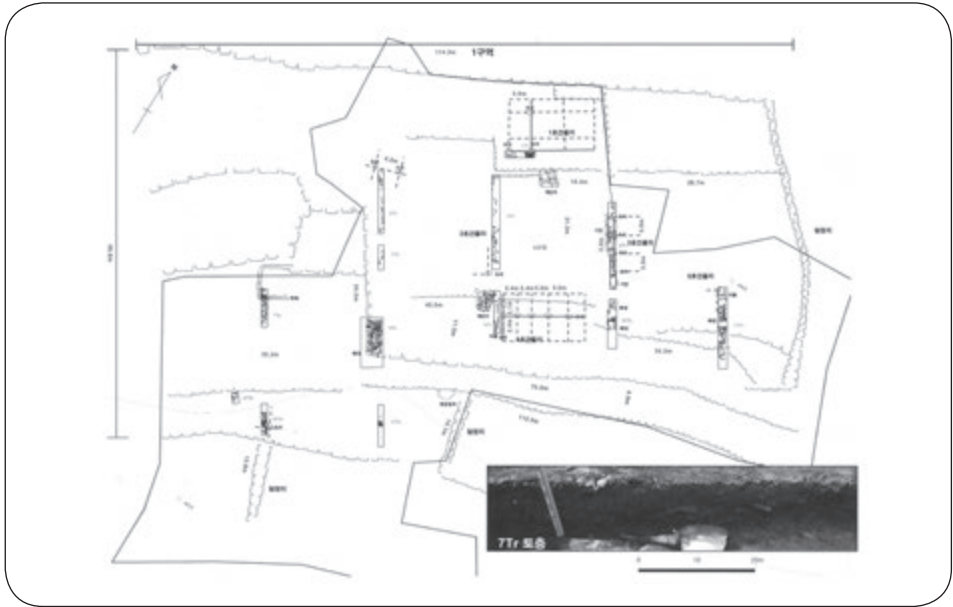
조사구역은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구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대상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대상구역에 대한 범위는 중심사역 1구역, 서원구역 2구역, 동원구역 3구역, 중심사역 서쪽 4구역, 중심사역 남쪽 5구역, 중심사역 동쪽 6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구역(트렌치1~5, 7~11, 15~17)은 13개 트렌치, 2구역(트렌치 6, 14)은 2개 트렌치, 3구역(트렌치 12, 13, 18, 19, 20, 21) 6개 트렌치, 4구역(트렌치 22, 23) 2개 트렌치, 5구역(트렌치 24~33) 10개 트렌치, 6구역(트렌치 34~36) 3개 트렌치를 설치하고, 유구가 확인되는 층까지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해 제토하였다.

조사는 토층조사에 중점을 두고 유구내부 세부 조사는 인력제토를 실시하였다.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트렌치는 풍화암반층까지 제토하였다.

조사결과, 설치된 36개의 트렌치 중 18곳의 트렌치에서 축대시설 및 건물지 관련 적심, 초석, 아궁이, 구들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13개 트렌치에서 계단식 경작관련 석렬 및 경작층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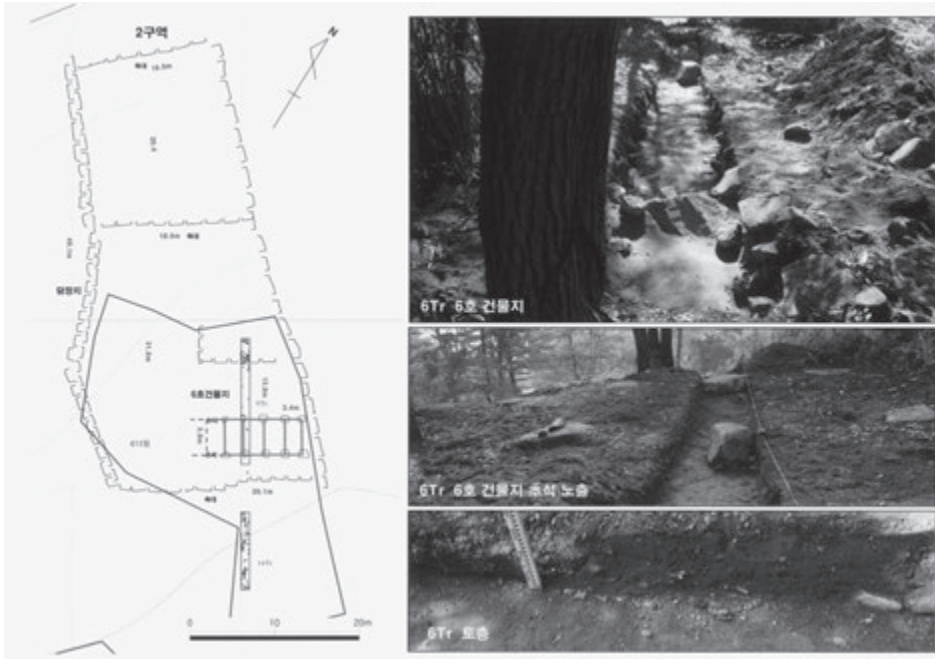
특히 용흥사지 관련 유구는 1, 2, 3구역에서 축대 및 건물지 관련 초석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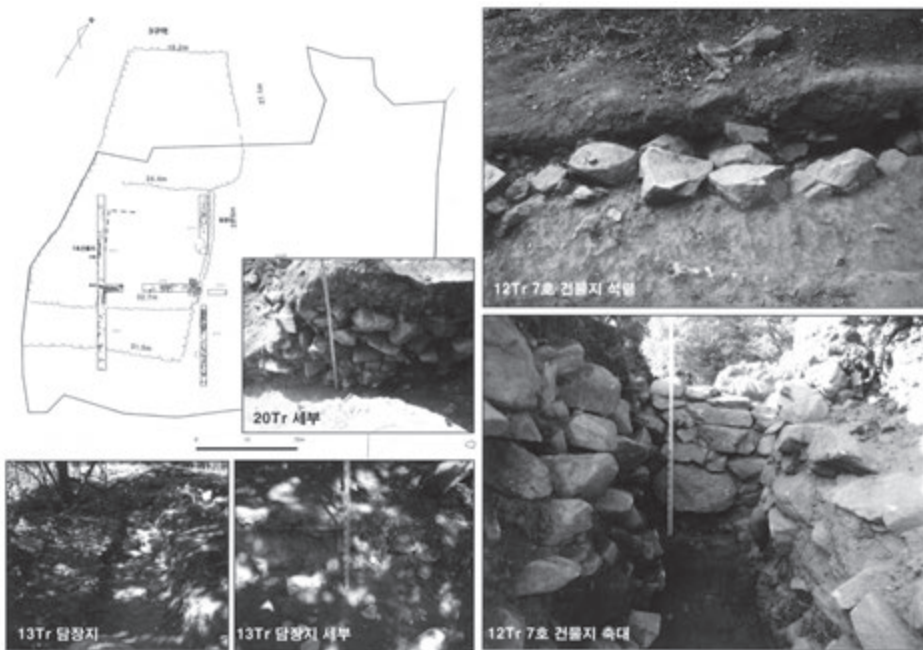
시굴조사구역 현황(1구역-트렌치 13개소)



시굴조사 1구역



시굴조사 2구역



시굴조사 3구역

트렌치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구와 트렌치 현황은 아래 표 4,5와 같다.

표4. 트렌치별 확인 유구현황

확인 유구	Tr 1	Tr 2	Tr 3	Tr 4	Tr 5	Tr 6	Tr 7	Tr 8	Tr 9
	1호 건물지 초석 2기	축대 뒤채움	2호 건물지 아궁이	3호 건물지 초석 4기	축대 뒤채움	6호 건물지	벽체석렬	축대	계단지 및 4호 건물지
	Tr 10	Tr 11	Tr 12	Tr 13	Tr 14	Tr 15	Tr 16	Tr 17	Tr 18
	축대	축대	5호 건물지 및 축대	담장지	없음	축대지정	석렬	석렬	축대 뒤채움
	Tr 19	Tr 20	Tr 21	Tr 22	Tr 23	Tr 24	Tr 25	Tr 26	Tr 27
	없음	축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경작석렬	경작석렬	없음
	Tr 28	Tr 29	Tr 30	Tr 31	Tr 32	Tr 33	Tr 34	Tr 35	Tr 36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경작석렬	없음	없음	경작석렬	경작석렬

표 5. 시굴조사 구역 전체 트렌치 제원 및 유구

번호	위치	규모(m)	유구	비고
1구역	트렌치 1	5.0m×1.2m	1호 건물지 초석 2기	추정 대응전지 중복
	트렌치 2	11.5m×1.0m	축대 뒤채움	
	트렌치 3	16.0m×1.0m	2호 건물지 아궁이, 석렬	추정 향로전
	트렌치 4	16.0m×1.2m	3호 건물지 초석 5기, 기단열	
	트렌치 5	3.5m×1.2m	축대 뒤채움	
	트렌치 7	6.5m×1.0m	벽체 석렬	내부 고래시설, 벽식구조 건물지
	트렌치 8	8.0m×3.5m	축대시설	
	트렌치 9	7.5m×1.0m	계단지 축대, 4호 건물지	추정 종각지

번호	위치	규모(m)	유구	비고
1구역	트렌치 10	8.5m×1.5m	축대(중복)	
	트렌치 11	13.5m×1.0m	5호 건물지, 고래시설, 축대	조선 1차 유구층
	트렌치 15	2.0m×1.2m	축대 적심시설	
	트렌치 16	5.5m×1.0m	추정 초석, 석렬	경작관련
	트렌치 17	7.0m×1.0m	석렬	경작관련
2구역	트렌치 6	14.0m×1.0m	6호 건물지 초석 2기	추정 장랑
	트렌치 14	9.0m×1.0m	없음	삭토
3구역	트렌치 12	19.0m×1.2m	7호 건물지 기반열, 축대	조선1차 유구층
	트렌치 13	11.5m×1.5m	담장지(남북방향 장축)	
	트렌치 18	13.0m×1.2m	담장지(남북방향 장축)	
	트렌치 19	4.0m×1.0m	없음	삭토
	트렌치 20	15.5m×1.2m	현 축대	현대 설치
	트렌치 21	15.5m×1.0m	없음	삭토
4구역	트렌치 22	11.5m×1.2m	없음	삭토
	트렌치 23	3.5m×1.2m	없음	삭토
5구역	트렌치 24	9.0m×1.2m	없음	밭 경작층
	트렌치 25	12.0m×1.0m	석렬	경작관련
	트렌치 26	12.5m×1.0m	석렬	경작관련
	트렌치 27	3.0m×1.0m	없음	논 경작층
	트렌치 28	3.0m×1.2m	없음	논 경작층
	트렌치 29	10.0m×1.2m	없음	논 경작층
	트렌치 30	12.0m×1.0m	없음	논 경작층
	트렌치 31	7.0m×1.0m	없음	논 경작층
	트렌치 32	6.5m×1.0m	석렬	경작관련
	트렌치 33	3.5m×1.0m	없음	밭 경작층
6구역	트렌치 34	6.0m×1.0m	없음	삭토
	트렌치 35	10.0m×1.2 m	석렬	밭 경작층
	트렌치 36	18.5m×1.0m	석렬	밭 경작층

2. 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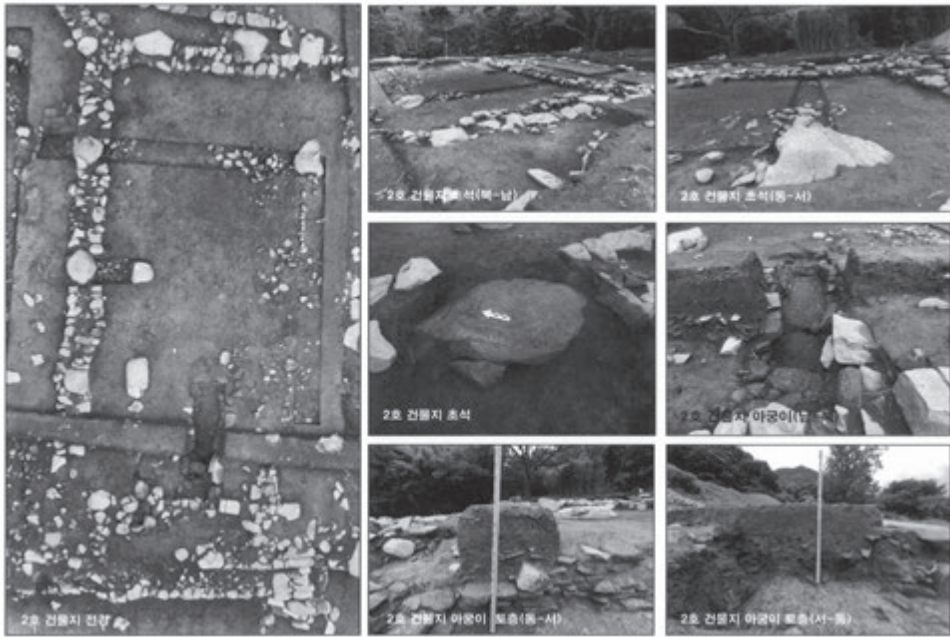
창녕 용흥사지 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는 대웅전지 중심의 2021년 면적 400㎡와 문지 및 승방시설 중심의 2022년 면적 1,717㎡로 총 조사 면적 2,117㎡이다. 시굴조사에서는 1구역 용흥사지 중심 사역내부 중단 석축 상부이다.

조사대상지는 제초작업과정 중에 1호 건물지의 초석, 계단지, 축대, 벽체, 담장지와 추정 금당지가 확인되었으며, 시굴조사 과정에서 2호 건물지 아궁이시설, 3호 건물지 초석, 기단, 4호 건물지 초석, 5호 건물지 구들시설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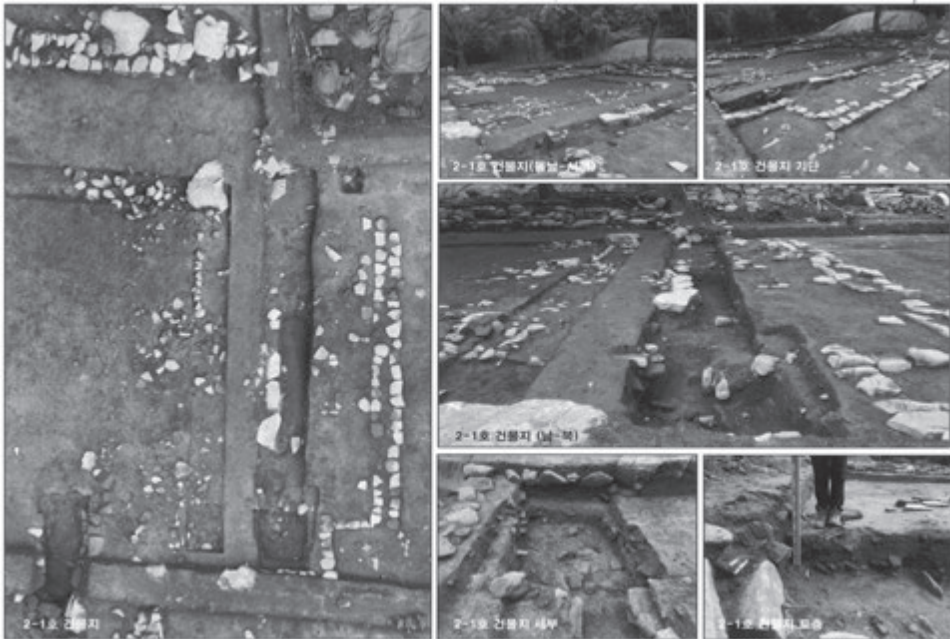
유물은 ‘崇禎八年 乙亥四年’명 막새편, 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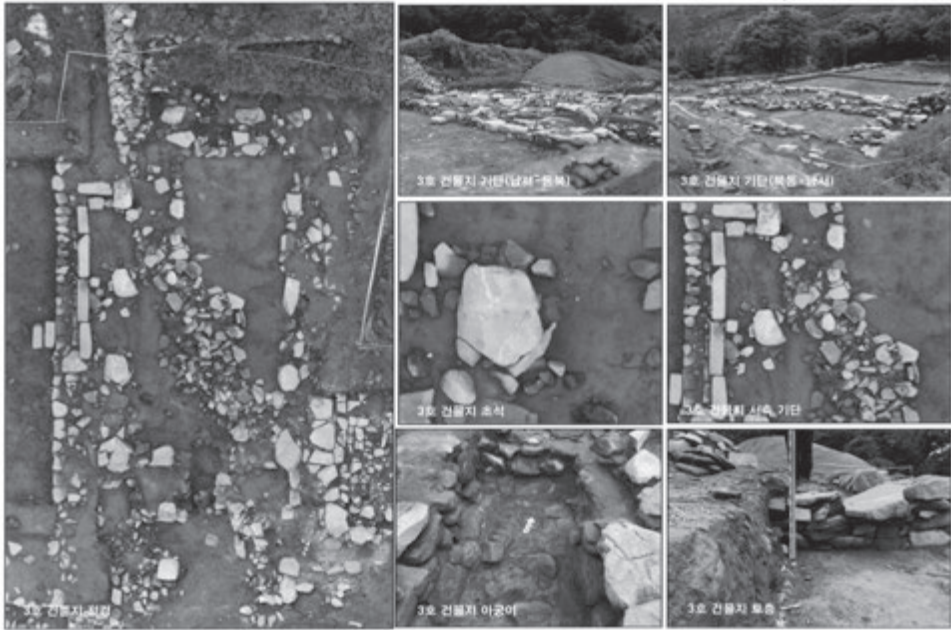
1호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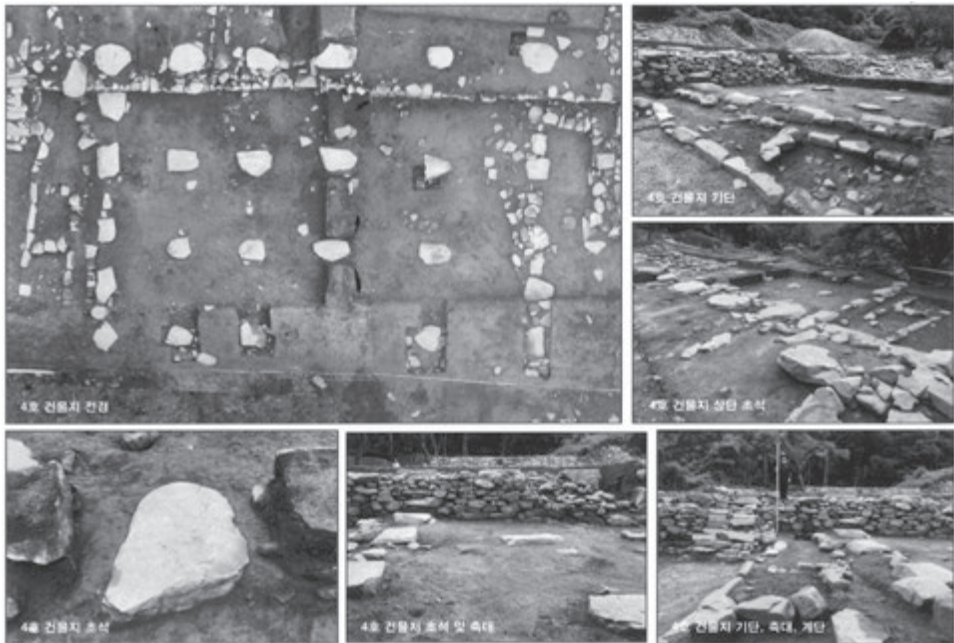
2호 건물지



2-1 건물지



3호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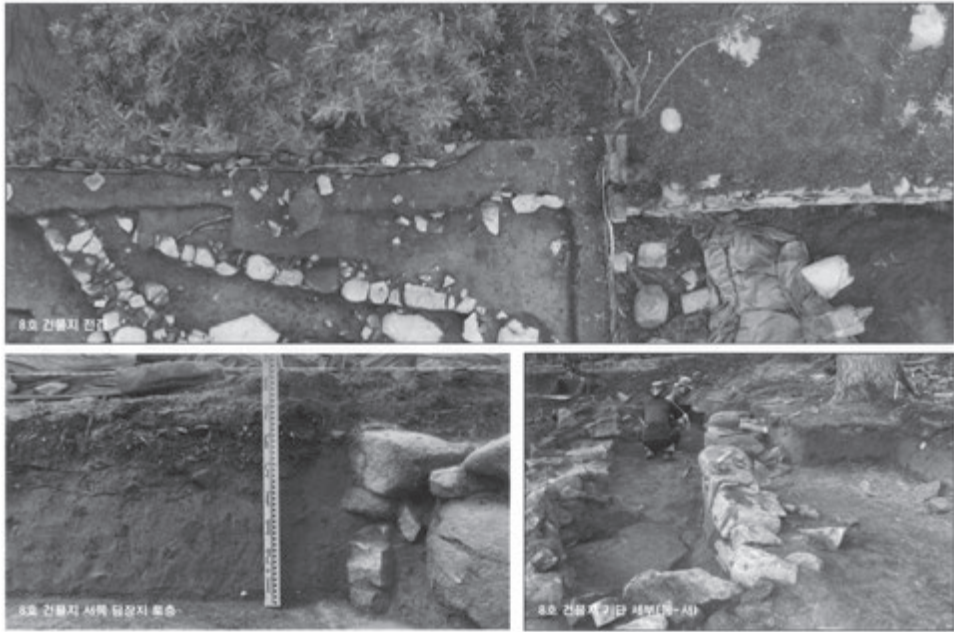
4호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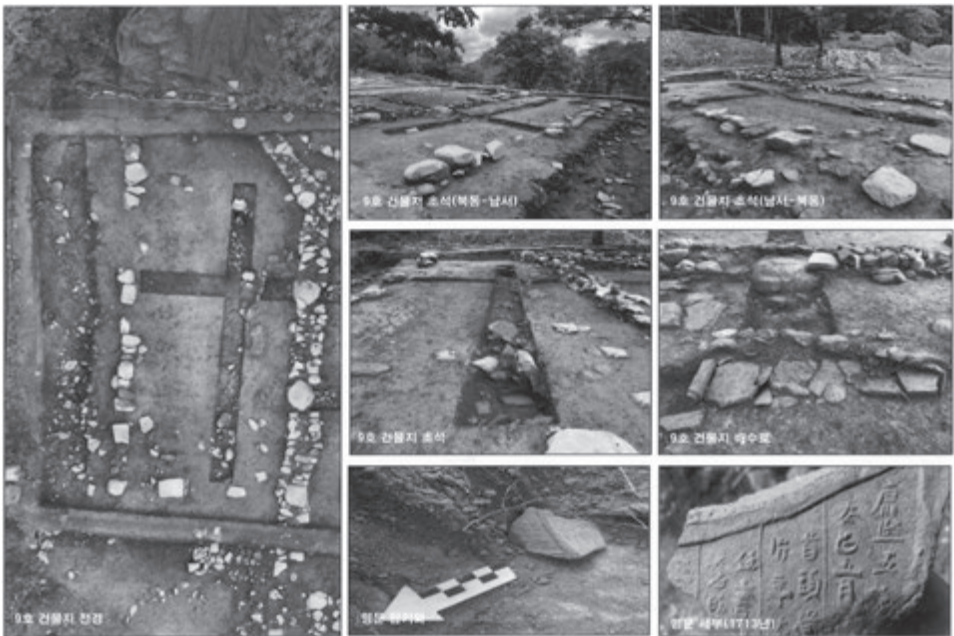
5호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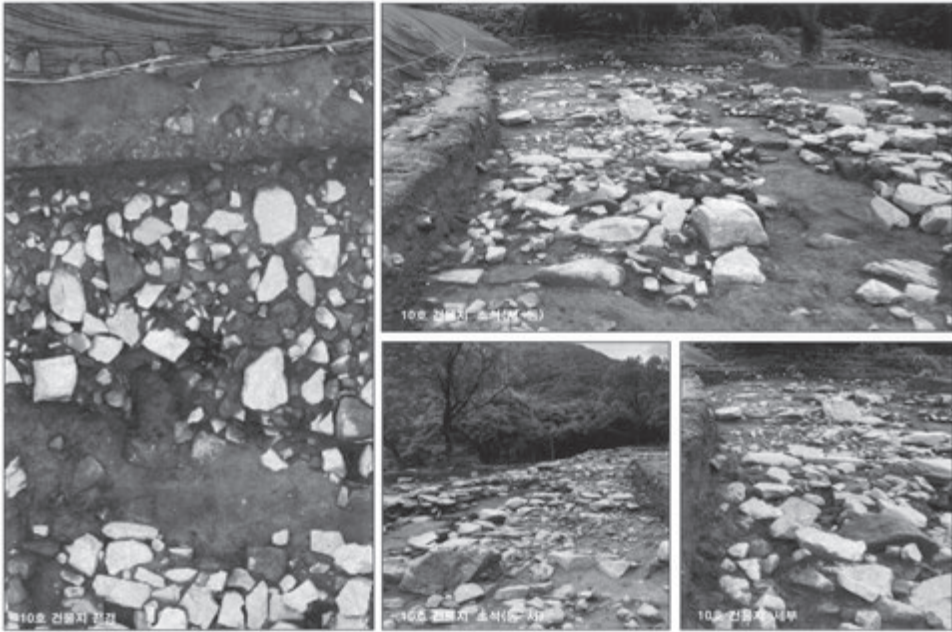
5-1호 건물지(5호 건물지 하부)



8호 건물지



9호 건물지



10호 건물지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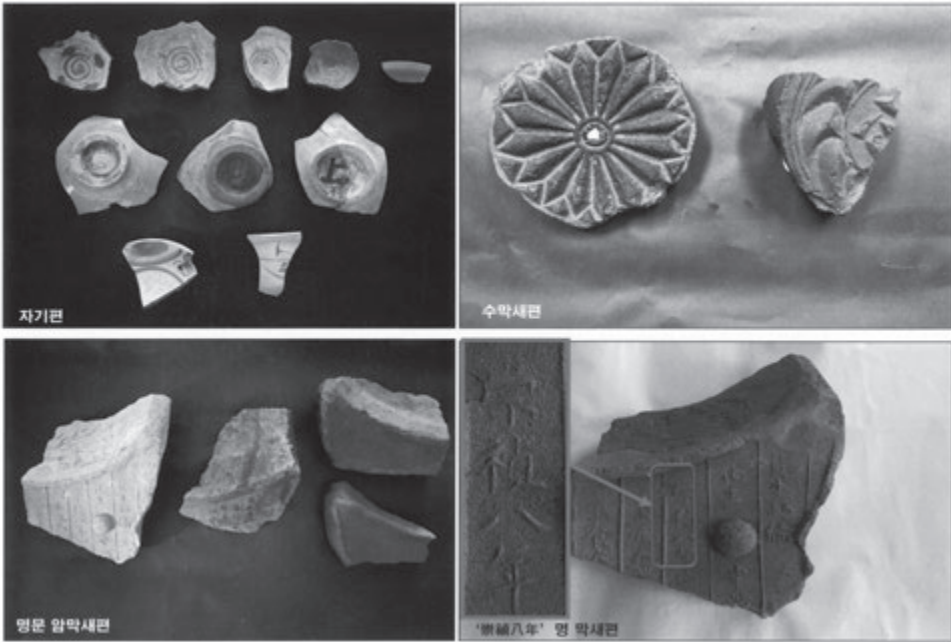
축대

3. 출토유물

창녕 용흥사지에서 확인된 유물은 조선시대 분청사기편, 연화문 수막새편, 우설형 암막새편, 중호문 기와편, 상평통보 등이 출토되었다.

암막새편은 1호 건물지(추정 대웅전지) 남쪽 기단부 성토층에서 확인되었으며, 수막새편은 8Tr 축대 뒤채움 조성층에서 확인되었다.

금당지(추정 대웅전지)에서는 ‘崇禎八年 乙亥四年’명 막새편, 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2호 건물지 내부에서는 ‘康熙五十二年’銘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Ⅵ.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창원군 성산면 대산리 568번지 일원이며, 대상지 면적은 22,166㎡이다. 시굴조사 면적은 21,766㎡, 발굴조사 면적은 2,117㎡이다. 정밀발굴조사 및 시굴조사 내용은 전장에서 살펴보았으며, 본고에서는 건물지 관련 유구를 중심으로 시·발굴조사 결과와 성과를 정리하였다.

1. 창녕 용흥사지 유적의 성격

조사대상지인 창녕 용흥사지는 비슬산 관기봉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주 능선 동쪽의 불암골 상부에 위치한다. 용흥사지는 북고남저의 지

형에서 곡간부에 화계시설을 포함하여 3~5기의 축대를 쌓아 상부에 평탄면을 조성하였다.

용흥사는 통일신라시대 고승 관기의 창건과 도선국사 창건이 전하며, 고려시대 각료스님과 곽항이 재건하였다고 전한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용흥사의 중창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반부터 축대를 쌓고, 대웅전을 비롯한 堂 8채, 殿 6채, 寮 6채, 室 2채, 문과 종루 등을 짓고, 심적암, 은적암 등 부속암자를 5곳에서 9곳을 둔 대찰이 되었다. 용흥사는 1788년에 편찬된 『春官通考』에 의하면 매년 白紙 50권을 납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흥사 관련기록은 19세기 중반 영조의 서녀인 화령옹주의 원당으로 지정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용흥사 기록은 현 각료암(주지 : 대운스님)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각료암 전경

이번 시·발굴조사 결과 창녕 용흥사지 중심 사역과 함께 층급식 산지가람 배치 형식을 확인하였다.

2. 유구현황

시굴조사는 조사대상지에 대한 조사는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축대를 기준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구역은 방격 그리드를 구획 후 36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대상구역에 대한 범위는 1구역(중심사역), 2구역(서원구역), 3구역(동원구역), 4구역(중심사역 서쪽), 5구역(중심사역 남쪽), 6구역(중심사역 동쪽)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구역(트렌치 1~5, 7~11, 15~17)은 13개 트렌치, 2구역(트렌치 6, 14)은 2개 트렌치, 3구역(트렌치 12, 13, 18, 19, 20, 21) 6개 트렌치, 4구역(트렌치 22, 23) 2개 트렌치, 5구역(트렌치 24~33) 10개 트렌치, 6구역(트렌치 34~36) 3개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1차 유구는 축대 8기, 5호 건물지 관련 구들 시설 1기가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2차 유구는 건물지 6기 관련 초석 24기 및 기단 3기, 아궁이 1기, 담장 5기, 계단지 2기, 경작관련 석렬 7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조선시대 연화문 수막새편, 당초문 우설형 암막새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상평통보 등이 출토되었다.

1차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1구역에서 건물지가 확인된 1호 건물지이며, 추정 대응전지이다. 대상지 규모는 남북 20m, 동서 20m이며, 남북 10m 간격으로 폭 1.0m 독을 설정하여 그리드 내부를 정밀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1동(추정 대응전지), 계단지 3기, 활주석, 축대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전면기단과 좌·우측, 후면 기단이 남아있다. 유물은 ‘崇禎八年 乙亥四年’명 막새편, 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상평통보 등이 출토되었다.

2차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 1구역에서 2~5호 건물지가 확인된 지역이며, 추정 종각지와 승방, 장랑 등이 위치한 지역이다. 대상지 규모는 남북 30m, 동서 75m 내외이며, 기준토층 분석을 위한 남북방향 독을 설치하여 내부를 정밀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7동이 확인되었다. 특히 종각으로 추정되는 4호 건물지는 2호 축대를 기준으로 상단에 초석이 1열 배치되고 축대 하단에 초석이 5열 배치된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4호 건물지는 외진주에 비해 내진주 초석의 수를 줄여 실내공간의 넓게 활용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승방으로 추정되는 2, 3호 건물지는 남쪽에 장방형의 대형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와 연결된 구들시설은 후대 담장지 조성 및 경작과정에서 대부분 훼손되었다. 장랑으로 추정되는 5호, 9, 11호 건물지는 내부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상지 좌우 및 전면 축대 상단에 조성되어 있다. 2차 정밀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건물지는 1호 건물지와 4호 건물지를 사이의 중심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이 배치되는 4동 중정형 가람배치를 기준으로 좌우 승방지 외곽에 건물이 확장되는 배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출토유물은 선문기와편과 중호문기와편이 주로 확인되며, 귀얄문 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3. 의의

이번 용흥사지 시굴조사를 통해서 문헌상에서 확인되는 용흥사와 관련된 축대와 추정 대응전지를 비롯한 11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지의 전모가 확인되었다.

금당지는 용흥사지의 중심 건물로 추정되며, 적심, 기단, 활주석, 계단지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사구역 일원이 용흥사지일 가능성이 보다 명확해 졌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중기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축대시설, 조선시대 후기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이곳이 조선시대 중기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역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금당지에서 출토된 崇禎八年은 1635년 乙亥이며, 『東谿集』 「龍興寺事蹟記」 ‘在靑猪之年 有性悟大師 創大雄殿’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1635년에 대웅전을 조성한 것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심구역의 종각(1645년 건립), 승방, 장량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용흥사지 특성 및 사역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심구역 좌우 별원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발굴조사는 우선 사역의 좌우 별원지역(2·3구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유적 보존대책

이번 시·발굴조사는 한정된 범위와 예산으로 사역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층급식 산지 사찰의 별원형 가람배치 구조를 가진 사지에 대한 건물지의 규모 및 세부특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확장 정밀발굴 이후 보존·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역에서 확인된 축대들이 붕괴되면서 건물지에 대한 훼손이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구 정비를 통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시굴조사 한계로 인해 규모 및 특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건물지에 대한 확장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사역의 전체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후 창녕 용흥사지에 대한 별도의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문화재청, 창녕군청 및 전통사찰 각료암이 주도하여 기초조사를 시작한 이래 심혈을 다해 시·발굴한 유구와 유물로 보아 용흥사지가 명확하다는 결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동계집 용흥사 사적기에서 창녕 용흥사는 그 용맥이 금강산과 오대산에서 내려와 금오산의 빼어난 기운을 받아 낙동강 북편을 가로질러 거만한 형세가 마치 비파같이 푸른빛의 비슬산 줄기에 의지한 채 창녕 북면에 위치하였다고 하면서, 산의 기세 또한 북으로부터 남쪽으로 노니는 용과 같이 날아 오르다 절의 뒤편에서 멈추고 머리를 높이 쳐들어 절의 주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 정상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우뚝 솟은 것이 마치 용의 뿔 같은데 세속에서 관기대사가 놀던 곳이기에 관기봉이라 이름 하였다.

이 관기봉에서 그 형세가 다시 일어나 동남쪽으로 치달려 60리에서 높이 솟아 고을의 울타리가 되었으니 창녕현의 주산인 관룡산이다.

비슬산과 관룡산이 창녕고을의 남과 북에서 마주하여 관룡산의 줄기가 일어난 까닭에 절의 이름을 용흥(龍興)이라 하였다.

특히 이 맥은 하늘의 도이고 부처가 말한 청평의 세계로 돌아온 깨달음의 땅으로써 삼재의 해가 없으며 사겁동안의 침입을 없애고 천만년 무궁함을 기약한다며 창녕과 용흥사의 인연을 동계 경일대사는 사적기에서 이렇듯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겠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발굴 조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문화재청 및 창녕군청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고마움의 뜻을 전하며, 특히 현장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여러분, 지금은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확장 정밀 발굴조사의 마무리를 위해 더욱 큰 관심과 응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제 본 조사를 계기로 관민이 함께 손잡고 부디 깊은 잠에 빠진 천년의 창녕 북면 용흥사를 하루 빨리 복원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의 보고로 창녕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동강 지배자 비사벌(比斯伐)



남 중 희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 낙동강의 지배자

한강을 놓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운을 건 3국 쟁패가 이어진 것도 한강이라는 엄청난 큰 수로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국운이 달라졌기 때문에 3국이 틈만 나면 한강 유역을 노렸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신라가 그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라는 수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일찍 깨달은 결과 한반도의 2대 수로 즉 물류 고속도로를 선점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신라는 가장 먼저 낙동강의 중심세력인 비사벌에 주목했다.

저 ‘삼국사기’에 진흥왕 16년 “정월 비사벌(比斯伐)에 완산주(完山州)를 두었다” 는 기사가 나오고 같은 책 ‘화왕군’조에는 “화왕군은 본래 비자화(比自火)였으며 하주(下州)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고

진흥왕 척경비의 비문 첫 부분에 ‘辛巳年二月一日立’(신사년 2월1일 세움)이라는 명문이 있어 완산주를 두고 나서 6년 뒤에 진흥왕 22

년에 왕이 친히 창녕에 왕림하여 561년(진흥왕 22년)에 세웠음을 알 수 있고 왕이 비사벌을 점령하여 나라 땅을 넓힌 사실, 왕이 고관들을 모아놓고 통치이상과 포부를 밝히고 그들에게 백성을 잘 이끌도록 당부하는 내용, 진흥왕의 행차에 자리를 함께한 인물들의 면면을 관직과 출신지, 이름, 직위의 순서로 적어 왕의 치세와 지배체계를 공고히 하였고 이듬해(562년) 이곳을 발판으로 대가야를 공격한 사실은 이곳 비사벌의 전략적 가치를 진흥왕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소국들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거명된 진·변한 24개국 존재가 말해 주듯 한반도 남부에 많은 소국들은 각각의 역동성을 갖고 외부와 교류하면서 발전의 궤를 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우열의 생기고 이 우열의 차이는 경쟁을 부추기면서



낙동강의 수로를 이용한 물물교류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각각 독자적 문화를 구축하여 군장 세력 또는 소국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 낙동강을 축선으로 한 소국의 발전은 대부분 낙동강에 연접한 분지를 중심으로 고총(古塚)군을 축조한 곳을 살펴보면 북천동·연산동 고분군, 양산의 북정리, 창녕의 계성리와 교동, 합천의 옥전, 고령의 지산동, 대구의 화원 성산·비

금동투조관모(동경박물관) 산동·문산동, 성주의 성산동, 구미의 황상동, 선산의 낙산리, 상주의 병성동·현신동, 함창의 신흥리, 예천의 대심리 고총군 등이 하나같이 낙동강의 본류를 따라 혹은 그에 근접한 지점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고층군을 형성한 집단이 모두 그 자리에서 큰 세력으로 존재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그 기반 위에서 성장한 집단이었을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꼭 그러하지 않더라도 인근에 세력들과 더불어 집단적 자위권을 가졌을 것임을 의미하는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

낙동강에 연한 세력 집단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낙동강을 통한 물자 교역을 통제했을 터이다. 즉 낙동강 하류에서 출발한 수송 물자가 각 집단의 세력권을 거칠 때마다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낙동강 중류의 핵심부인 창녕지역의 지리적 입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당 시대 최고의 산업 생산물로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창녕 퇴천리의 도자기(창녕식 토기)의 가마터의 발견은 창녕지역의 정치집단의 위상과 규모를 말해 주는 것이다.

전략적 요충지의 확보하고 당대의 최고의 산업 생산물을 가진 창녕지역의 고대국가 지배자는 화려하고 위엄이 넘치는 금동투조관모와 금동신발 등의 위세품에서 드러나듯 적어도 신라권에 통합되기 전에 이미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비사벌의 지배자가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 가야진을 품은 비사벌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에서 시작되는 남지 개비리 길의 초입에 있는 창날(창나루)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지점이 기음강이고 이곳이 가야진이고 기음강 용단이 위치한 창날이다.



“해동지도”에 남강과 낙동강의 합류 지점을 기강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상촌 마을과 남지읍 영아지 마을을 잇는 나루를 기강나루라고 부르

고 있지만 남지 개비리길을 답사하면서 지형을 살펴보면 이 나루는 교통·지리적 여건상 옛 가야진인 것으로 보여진다.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은 남지읍 용산리이다. 용산 본동이 큰 마을이고, 작은 마을로 아곡, 창날, 안골이 있다. 기음진, 즉 가야진은 창날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된다. 예부터 창나리, 창나루로 불렸고 이곳은 옛부터 용의 알, 즉 여의주라고 불린 마을 앞 독산(獨山 독뎨)에 제단이 있어 매년 봄과 가을에 용왕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가뭄이 들 때에도 이곳에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조선의 3대 용왕터인 기음강 용단(岐音江龍壇), 고려시대의 가야진 명소(伽倻津溟所)이다.

4세기 말 경 신라는 비사벌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하면서 가야진은 아라가야(함안)와 신라가 대치하는 접경지역이 되었다. 가야진에서 배를 타고 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라가야의 핵심부에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라의 가야진출에 대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532년에 신라는 금관가야를 병합하고 탁순국(함안과 창원 사이에 위치)을 정복하고 백제군이 주둔하고 있던 구례산성을 공격하여 차지한 다음 비사벌과 연결하는 가야진을 개설하여 아라가야를 압박하는 한편 낙동강 수로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서기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백제 성왕은 왜에 도움을 청하면서 신라와 아라가야에 접경에 있는 대강수(大江水)라는 요해처(要害處)를 차지하고 싶다. 즉 가야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남강을 통하여 왜와 협공으로 그곳을 차지한 다음, 낙동강 수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낙동강의 동·서안에 위치한 6성을 수선하여 군사를 배치하면 구례산성에 주둔하는 신라군대가 고립되어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구례산성의 위치는 가야진과 매포나루(길곡면 오호리)나 우질포(남지읍 우강리)를 건너 합포만(合浦灣 마산)이르는 길목인 칠원면 무릉리 성산으로 비정된다.

백제는 결국 가야진을 차지하지 못한 채 탁순국의 재건도, 아라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가야 땅 전체를 신라에게 내어주고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가야진은 고대로부터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였기에 고려와 조선조에 이르기 까지 수령이 춘추로 기음강 용단에서 치제하는 용신제는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 비사벌 계림으로 가는 길목

다시 기록을 보면 진흥왕은 553년에 백제의 동북 변경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아찬(阿飡) 김무력(金武力)을 그곳의 군주로 임명했다. 백제의 성왕은 이를 보복하기 위해 554년(진흥왕15) 신라 관산성(管山城)을 공격했으나, 김무력이 이끄는 신라군에 패했고 왕은 사로잡혀 참수를 당했다. 이로 인해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고, 신라는 백제의 거센 반격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흥왕은 이를 대비하여 555년 1월 비사벌(比斯伐)에 완산주(完山州)를 설치하였다. 신라는 552년에 설치한 상주(上州 현 尙州)에 이어 하주(下州)로 대비되는 비자화(창녕)에 전략적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창녕 화왕산성(사적 제64호)

신라는 이 전략적 거점을 이용하여 561년 아라가야(함안)를 쳐서 합병하고 이어 562년에는 이사부와 사다함을 보내 대가야(大加耶)를 복속시키고 그곳에 대가야군(고령)을 설치했다.

565년에 완산주를 폐지하고 대야주(大耶州 합천)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당시 확장된 영토 경계를 비정해 보면 오히려 비사벌의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전진기지를 만들어 장차 있을 백제와의 전투를 대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비사벌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은 창녕 진흥왕 척경비(국보 제33호)에 사방군주(四方軍主)로서 비자벌군주(比子伐軍主)라고 한데서 찾을 수 있다. 진흥왕은 상주와 하주로 대비되는 완산주와 백제로부터 빼앗은 한강 유역의 신주와 더불어 고구려가 지배하던 옛 옥저 땅에 설치한 비열홀주(함경도 남부)를 포함한 4곳을 사방군주(四方軍主)로 명명하여 국방의 요충지로 삼았던 것이다.

백제가 신라를 침공하려면 추풍령을 넘는 험난한 코스보다는 대야성(합천)을 점령하고 적고나루를 통해 낙동강을 건너 비사벌(창녕)을 함락시키고 바로 이서(청도)를 거쳐 신라 왕도(王都)인 계림(경주)을 곧장 진격해 들어가는 통로가 가장 직선코스인데 그 길목에 비사벌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군사적 시도는 바로 642년 8월 백제 윤충(允忠)이 이끄는 백제군이 신라 최전선 지휘본부 격인 대야성(합천)을 함락시킨 전투에서 잘 나타난다. 즉, 사비(부여)에서 출발한 백제 군사들은 육십령을 넘어 함양과 거창을 경유한 뒤 합천의 봉산면을 거쳐 마령재(합천 묘산면)를 넘어 합천 대양면과 울곡면에 걸쳐 있는 대야성을 함락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때 비록 대야성은 함락하였지만 결국 계림으로 가는 길목인 비사벌에 사방군주(창녕)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윤충은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 수로를 일부 확보하는 선에서 진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로도 침투 경로가 어이없이 뚫린 경우도 있었다. 636년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636년 영묘사 옥문지(玉門池)에서 겨울철인데도 많은 개구리가 모여 3~4일 동안 울었다. 국인(國人)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선덕여왕에게 물었다. 왕은 급히 각간인 알천과 필탄 등을 시켜서 ‘정예 병사 2천 명을 뽑아 속히 서쪽 교외(경주시 건천읍 부근)로 가서 여근곡(女根谷)을 탐문하면 반드시 적병이 있을 것이니 습격해 죽여라’고 했다.

과연 부산(富山)아래 여근곡이 있었고 백제 병사 500명이 와서 패복해 있었으므로 모두 잡아 죽였고 백제 장군 우소(于召)는 남산 고개 바위 위에 숨어 있어 이를 포위해 싸 죽였다. 는 기록이 있다.

일찌기 신라 진흥왕은 비사벌이 전략 요충지임을 간파하고 비사벌을 선점하여 한반도의 중심을 타고 흐르는 낙동강 수로를 장악하여 아라가야와 대가야를 정복할 수 있었고 결국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삼국통일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녕 진흥왕 척경비에 나타나 있는 비자벌군주(比子伐軍主)는 그냥 군주가 아닌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요충지를 지키는 4대 군주 중 으뜸인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다.

만년동안 사라지지 않는 무지개, 영산 ‘만년교(萬年橋)’

智光 **한삼윤**
창녕문화원 부원장
겸 향토사연구소장



영산면 동리 남산 호국공원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만년교(萬年橋)는 1972년 보물 제564호로 지정된 우리군의 자랑스러운 국가지정 문화재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단칸 홍예교(虹霓橋/무지개 다리)로서, 조선 후기의 다리 석조 기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영산 3.1민속문화제와 함께 ‘창녕구경’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고, 해마다 전국의 사진작가들과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상들의 오랜 염원과 마음이 담긴 문화유산 만년교를 통해, 석조 건축물의 우수한 과학 기술과 뛰어난 예술적 조형미를 재음미해 보면서 문화재 속에 담긴 조상들의 빛나는 지혜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소개한다.

이는 2022년 7.1(금), 부산경남대표방송인 KNN에서 “국보와 보물, 찬란한 유산 100선”이란 제하에, 영산 만년교를 취재할 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방송 : 2022. 8. 6(토), 09:00]

〈왜 만년교인가?〉

‘만년교’, ‘남천교’, ‘원다리’ 등 세 가지 이름으로 전한다.

만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다리가 돼야한다는 백성들의 한결같은 염원이 담겼다 해서 ‘만년교(萬年橋)’라 했다. 또한 영산의 남쪽에 있는 남산(南山)에서 흘러내리는 ‘남천(南川)에 놓인 다리’라는 의미에서 ‘남천교(南川橋)’라 불렀다. 아울러 ‘다리를 놓은 고을 원님의 공덕을 기리다’는 의미에서 ‘원(院)다리’라 명명했다.

특이한 점은 만년교 옆 가까이에 위치한 현대식 교량의 명칭은 ‘다리’ 대신 ‘다리 교(橋)’자를 써서 ‘원교(院橋)’라고 부른다. ‘원다리’와 ‘원교’, 과거와 현재가 만나 하나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국가 보물로 지정된 이유?〉

무지개, 반달 형태의 소박하고 자연스런 멋을 지닌 특이한 모양에다 예술적 조형미를 두루 갖춘 아름다운 다리라는 점, 순천 선암사 승선교(보물 제400호)와 보성 별교 홍교(보물 제304호), 여수 흥국사 홍교(보물 제 563호)와 더불어 조선 후기 홍예교 축조 기법을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72년 보물 제564호로 지정되었다. 홍예 높이 5m, 너비 11m, 다리 총 길이 13.5m, 다리 폭 3m 규모 단칸 홍예교다. 자연스럽게 휘어진 노면이 반원형의 홍예와 조화를 이루며, 물에 비친 모습과도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준다.

〈만년교 건립 연대, 조성 이유, 어떤 역사가 담겼나?〉

지금으로부터 242년 전 조선 정조4년, 1780년(경자년), 잦은 홍수로 기존의 목교가 자주 유실, 훼손됨으로 인해 보다 오래 가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축조됨.

당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은 김윤관(金允寬), 석수는 백진기(白進己)로 전한다. 이후 112년이 지난 고종 29년, 1892년(임진년), 현감 신관조(申觀朝)가 현풍 출신 석수 김내경(金乃敬)을 시켜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잦은 개보수가 있었고, 2005년(을유년) 정밀진단 결과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었고, 2009년(기축년)과 2010년(경인년) 2년간에 걸쳐 전면 해체 보수과정을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당시 등글 등글하고 불안정한 강돌(川石)을 처음 축조 당시처럼 비교적 크고 네모난 돌인 무사석(武沙石/加工石)으로 교체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어떤 원리로 만들었나?〉

다리가 서 있는 하천 양쪽 자연 암반 위에 기초가 되는 선단석을 깔고, 상부에 반원 모양의 잘 다듬은 화강석(花崗石)으로 홍예(虹霓)를 만든 뒤, 그 위에 자연석을 쌓았고, 제일 상판에는 석재 없이 진흙으로 마감했다.

다리 중앙이 높고 양쪽 가장자리가 낮은 곡면 형태다. 홍예 재료는 내구성이 강한 화강석의 긴 각재로 이뤄졌고, 양측의 다리 벽은 자연 잡석을 쌓아 메꾸었다. 일반적으로 잡귀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뜻에서 용두석(龍頭石) 등 짐승 모양의 석물을 함께 만드는데, 이곳에는 그러한 것이 설치되지 않는 간결하고 소박한 형태를 지녔다. 난간과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면?〉

만년교는 꽃돌인 화강석(花崗石) 32개의 긴 장대석으로 홍예를 일구어 낸 꽃의 상징물이다. 물에 비친 그림자 32개를 합치면 두루 변하는 이치를 담고 있는 동양 최고의 고전인 주역 64개의 괘상과 일치한다.

생명의 존재 원리인 ‘본질과 현상의 원리’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산(靈山)은 뒤 ‘산(山)’자가 그리하듯 세 가지 봉우리로 형성된 신령스러운 산이다. 영축산과 함박산, 만년교가 공히 산처럼 둥근 모습을 갖춰 불교의 꽃과 인연이 깊다. 영축산은 법화경(法華經)을 설한 인도의 산에서 유래했으니 ‘진리의 꽃’이요, 함박산(咸朴山)은 함박꽃과 약수터로 이름난 일명 ‘작약산(芍藥山)’으로 그 명성이 높다. 이곳 영산 만년교는 봄철 4월 경 다리 양쪽에 만개하는 개나리와 수양벚꽃이 함께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조하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다.

〈만년교 건립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는?〉

이 다리의 경계에 ‘남천석교비(南川石橋碑)’라는 석비(石碑)가 세워져 있어 그 역사를 알 수 있다. 이 비석에 ‘남천석교서병명(南川石橋序并銘)’이라 새겨져 있다. ‘남천석교의 요지를 아울러 새긴다’는 뜻이다. 6.25 한국전쟁 등 국란을 겪으면서 일부 기록이 훼손되어 1991년 영산사적보존회에서 해설 안내판을 세웠다.

〈만년교와 관련된 전설이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옛날 이 지역에 신통한 필력을 지닌 열세 살 신동이 살았다고 전한다. 다리가 완공 되던 날 그 소년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산신이라고 밝힌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알려진바 대로 네가 신필(神筆)이라 하니, 내가 거닐 다리에 너 글씨를 한 점 새겨두고 싶다. 다리 이름은 ‘만년교’라 할 테니 써 보도록 해라”고 당부했다. 노인이 사라진 뒤 소년은 먹을 갈아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만년교(萬年橋)’라고 써 놓았다고 한다. 지금도 비석 끝 부분에 ‘십삼세서(十三歲書)’라고 적혀 있다.

〈만년교비는 언제 누가 세웠나?〉

남천석교비는 1780년에 세워졌지만 만년교비는 1892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건 알 수 없다. 13세 신동이 세웠다는 얘기도 전한다.

〈옛날 사람들은 만년교를 보면서, 혹은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만년교는 일반 민초들의 정성과 기도, 염원이 담겨있는 다리다. 영산(靈山)이란 지명이 ‘신령스러운 산’이란 뜻이 있고, ‘산신이 거닐 던 다리’라는 전설상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고려할 때,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 열반과 극락으로 가는 ‘구원과 해탈의 다리’로 생각했을 것이다.

〈만년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본질과 현상을 잇는 다리’.[본질(마음) : 다리를 만든 사람, 현상(대상) : 다리 자체]

‘소통과 치유의 다리’.

‘통(通)하지 않으면 통(痛)하는 다리’.


‘만년동안 가르침을 주는 다리’ 등등으로 표현해도 좋을 듯싶다.

영산(靈山)의 진산(鎭山)은 영축산과 함박산이다. 이들 두 산을 연결하는 무지개다리 만년교 또한 아름다움을 가교하는 또 하나의 신령스런 산일 수밖에 없다. 영축산이 범화경의 뜻을 지녔다면 함박산은 화엄경을 닮았고 만년교는 금강경의 대의를 품었다.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는 세 경전이 모여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니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만년교(萬年橋) 예찬〉

만년교 뚝아보니 보물 중에 보물 일세.
무지개 아름다움 신통방통 묘하도다.
조상의 속 깊은 안목 언젠가는 알리리.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 ◇ 애처로븐 북극곰 이혜윤, 김리유
- ◇ 옴마와 쿠레용 김숙이
- ◇ 창녕을 소개합니다 이승준, 조영민, 김담결
- ◇ 우포늪 소개 박진화, 공재민

애처로븐 북극곰

이혜윤, 김리유

학교에 도착한 두 학생, 서로 인사를 나눈다.

이혜윤 : (리유를 쳐다보며 반갑게 인사한다) 리유야, 오늘 날씨도 슨 슨하고 하늘도 높고 디따 좋다 그자?

김리유 : (고개를 끄덕이며) 그니까. 아, 이번 여름이 디따 더웠다아이가.

이혜윤 : (박수를 치며) 맞다, 느무 더웠다. 근데 어무이가 옛날에는 안 이켰다카드라. 여름도 쫘 더 짧고, 털 더벗다카드라. 이기 뭐 지구가 점점 드브져가 그렇다든데.

김리유 : 내도 엇저녁에 ‘북극곰의 눈물’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그든. 거서 카는거 보이 지구가 점점 드브져가, 북극곰들이 사는 얼음이 점점 쫘어든다카드라. 그카고 가들이 얼라들 줄 먹이도 부족해가꼬 북극곰이 없어질 수도 있다카드라.

이혜윤 : (시무룩하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귀여븐 북극곰 우야노.. 아치럽다. 그카믄, 북극곰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줄게 읊는지 내일까지 한번 찾아보자.

다음날이 되었다.

김리유 : 우리 어제 찾아보기로 했던 이바구 이자뿐거 아니제~

이혜윤 : 하모~ 우야든동 우리가 밥을 잘 무야칸다. 욱심부리지 말고, 따~악 물만큼만 받아가, 남기면 안되는기라.

김리유 : 하기사 우리 반만 봐도 음식물 쓰레기 역시로 나온다아이가. 근데, 거기 와? 어차피 음식은 썩는거 아이가.

이혜윤 : 썩는거는 맞는데, 그거를 처리할라카문 지구를 덥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카는기 매년 33억톤이나 나온다카드라.

김리유 : (놀라며) 오메~ 진짜가? 그마이나 나온다꼬?

이혜윤 : 어, 쓰레기에서도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버린만큼 새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아이가? 그 카는데도 지구를 덥히는 가스가 그마이나 많이 나온단다.

김리유 : 음마야, 음식물 그거 참말로 알긋네. 인자부터 싹싹 굶어 무야 겠다. 그라고 니 (텀블러와 에코백을 꺼내면서) 이기 뭔지 아나?

이혜윤 : 텀블러랑 에코백 아이가. 밖에 나가든 천지빠까리로 있다 아이가.

김리유 : 맞다, 텀블러랑 에코백. 이기 이쁘다아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도 사고 또 사고 하는데, 에코백 1개를 만드는데 비닐봉다리 131개 만드는 거랑 똑같은 환경오염이 생긴단다. 그래서 면으로 만든 에코백은 131번, 텀블러는 15번에서 39번은 써야지만 환경보호 효과가 있다카드라.

이혜윤 : 와..열심히 재사용 안하면 이기 오히려 과이겠네. 그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기 밥 안남기기, 일회용품 줄이고 텀블러랑 에코백 재사용하기, 이것말고도 많겠지만 일단 이거라도 단디 함 해보자.

김리유 : 그래 우리 단디해가꼬 애처로븐 북극곰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자.

이혜윤 : 그래, 그러자.

이혜윤과 김리유는 인사하며 무대를 마친다.

오마와 쿠레용

김숙이

숙 : 오마 쿠레용 사야 된데이.

사아도. 오마 자아(장)에. 갔다오마 삼작도 땀가이 치아놓고
세미가서 물도 이다놓고 정지 부뚜막, 살강 모다 매매 치아 낱꾸마
마지메(마중)도 가고 아부지 지익(저녁)도 채리주고 부애도 안독
까께

엄 : 널 가꼬 가마 안돼나?

숙 : 그라마 뻘따가 안맞지.

엄 : 목아지가 뿔라지도록, 물괴기를 이고 가도 말강 험케 물라카고
장시도 문하고 고오메, 보오살 바까서 돈이 엄다.
그카고 고마가라 빼지지 말고 뻘테바라 쾌안타.

숙 : 쾌안키는 뭘시 쾌안노. 내차말로 미치고 폴짝 뛰겠네.

엄 : 신찮은 가시나가 주디를 고마 콕 미신쟁이로 문때뿔라.
안치방에 버껴쟁이(대머리) 아이들은 뻘또를 문싸서 넘무집 식모
살이 보낸다 카고 통림에 땀쟁이 아들은 공자아 보내는데 너는
핵교라도 안가나.

숙 : 그라며 내도 고마 식모살이 콧 보내뿌든가
육성회비 720원도 갖고 오라 췌는데 올 안가가며 빠꾸 시킨다
카드데 감장고무신도 다 닳가서 밀구정에 물이 세고 주봉(바지)
고무줄도 다 늘가지 갖고 뻥뻥로 우신에 지구자꾸로 짚어 땡긴다.
학교 장학이도 온다케서 머리 이도 잡고 옷도 칼컷께 입고
오라카고 쫓 있으며 운동회도 한다꼬 시커면 뻥수랑 난닝구도.

엄 : 자꾸 거카마 우짚끼고 간띠이를 지이뻥수도 없고 밤새미라도
해갓고 오비라도 칠라췌는데 너가부지가. 일본놈이 조선사람
눈까리 뻥라꼬 땡글런 기라고 췌리 뿌사뿌서 그것도 몰라주야 되고
터집 고마잡고 가라.

숙 : 그라마 행편도 안돼미서 낱키는 말라꼬 낱노.
뻥또 반참도 철환는 수루메 꺾데기 하고 달갈후라이 묵는데
나는 맨날 콩당보리밥에 끼젓달가지 넘사 시러버서 뻥또를 문
피이 놓고 묵췌다. 지깻치도 짹뻥이에. 아이고 췌이 “숙아 같이
떡자” 케도, 어언지에, 카고 내혼차 묵는다.
아부지 밥그릇에는 쌀네끼가 쫓 비이든데
(회심곡 잠시)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차말로 넬로 수산 똥다리 밑에서 췌우 왔다 카드마는...

아 : 가시나 종래기가 머시 이래 시꺼럽노 올매고 여있다.
췌우 까레이나 집어나라.

숙 : 췌우 왔따 칼떼는 언제고 (꾸리렁 꾸시렁)
(우째 우째 쿠레용 값은 아부지에게 받음)

컬낫따 우짜노 조지낫따 껌치 빵꾸가 나서 돈을 잊자뿐따 개쫘
치를 뺨뺨로 단디단디 짹어 낳는데 이기 오데 갓뿐노 책보따리.
빼단이 박계추 다 디비도 엄따. 흑, 이 가시나가 쭈운건 아이다.
아이다.

흑, 저 머슴마가 아이다. 누가 쫘 갈키주마 졸킨데 온데 다 들시고
학교 삼짱 점빵 다 가보고 선상님한테 그저말 하는거 갓고 꼬라지가...
애인타 집에 가서 뚜디 말알생각을 하이께네 우째뿌꼬 애고 답답
해라

확 책보따리 네빠러 뿌고 집구석을 나갓뿌까 올 음마는 그 돈이
아까바서 썩 빙이 날킨데 알머 까무라지서 뒷꼭떼기라도 깨머 우
짜노, 어떡 커서 어른만 뒷뿌마 안뚜디 맞고 돈 마이 버리서 내 맘
데로 씨보고 아이스 껌끼. 오오다마. 뽀빠이 라면땅 진해콩 실큰
사무볼킨데 에이 우에끼나 올은 주디 딱 다물고 가마이 자빠지 있
자 돈 잊자뿐따꼬 카마 깨진다. 내목심은 몰알로...분하고 앵통해
도 안그런거 땡꾸로...

퍼떡 시인밥에 지림장 부갓꼬 묵꼬 공부 쪼는거 매로 딱 옆퍼지가.
뒤진체 가마이 있을끼다. 널 아직에 퍼떡 일어나 구식구식 떨꺼디
이도 치아고 굶티굶티 미금도 문떼고 칭걸레 사분칠 해가 방매이
질 매매 뚜디리서 싹겨낳고 동생 썰기(빨리) 까베가(깨워) 낫도 싹
끼고, 학교 가는기다.

그라고 우신에는 돈고마 썰비고 점빵에 까자 고마 사묵고 오자미,
오래차기, 장괌뽀 오징어... 꼭지하고 순자하고 뺨쭈깨미도 파이다.

창녕을 소개합니다.

이승준, 조영민, 김담결

[우포늪, 농산물, 부곡온천]

1,3 : 반갑습니다

2 : 반갑습니다

1 : 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지들이 창녕을 소개 할라고 나왔심더

2 : 야 창녕에 뭐가 있다고 나왔니?

3 : 야 이자숙아 창녕에 자랑할끼 억수로 많은데 함 들어봐라 마 이승준 니가 함 들려 줘 봐라

1 : 알겠다 내 함 들려줄게 집중해가 똑디 들어라

2 : 그래 어디 한번해봐

1 : 먼지 창녕하믄 우포늪 아이겠나 우포늪이라 하믄 국내에서 제일 큰 습지다 람사르 협약까지 맺고 있다고

2 : 아 그 유명한 우포늪이 창녕에 있는거였어?

1 : 그라믄 당연하지 마 김담결 니가 한번 우리 우포늪에 뭐가 있는지 말 해봐라

3 : 알았다 이자숙아 내가 함 알려줄게 일단 우리 우포늪에는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 복원 센타가 있다이가 그라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되는 습지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다이가

2 : 오 그건 좀 자랑 할 만 하네 그거 말고는 없지? ㅎㅎ

3 : 마 없기는 와 없노 준아 니가 함 말 해봐라

1 : 그래 곁아 창녕하믄 또 좋은 농산물이 얼마나 많은데
먼지 양과! 창녕이 제일로다가 먼지 양과를 재배했다이가 시배지
라고 그리고 마늘,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서도 창녕 갈릭버거라고
창녕 마늘을 사용한 햄버거를 출시했다고

2 : 오 맞아 그때 나도 창녕 갈릭버거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

1,3 : 그래 이 창녕이 얼마나 멋진 지역인데

2 : 그럼 음식은 양과 마늘 장소는 우포늪 말고는 다른건 없는거야?

1,3 : 없기는 왜 없어 당연히 있지 억수로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이까네
한 개만 더 해줄테이까네 단디 들어라

1 : 니 부곡이라고 들어봤나?

2 : 아 그 부곡하와이?

1 : 그래 그 부곡하와이 있는데 그 부곡이 온천이 얼마나 잘 돼가있는데
자연적으로 78도 온도의 온천수가 뿜어져 나온다카이까네

3 : (1번의 말을 끊으며) 그래 그라고 부곡온천은 몸에도 억수로 좋다
이가

2 : 뭐가 좋은데?

3 : 온천수에 유황온천으로 피부질환, 신경통, 부인병 등에도 효과가
있다이가

그 뜨신 물에 몸 담가면 하루동안 쌓이가있던 피로가 다 사라진다
이가

2 : 오 정말 좋겠다 나도 너희 말을 들어보니까 창녕에서 살고싶어졌어

1,3 : 그래 창녕에 자랑거리가 얼마나 넘쳐나는데 살고싶으면 하지

2 : 그럼 우리 부곡에 샤워이나 하리갈까?

1,3 : 목욕? 좋지 퍼뜩 가자

(같이 나감) or (인사)

우포늪 소개

공재민, 박진화

1,2 같이: 저희는 우포늪을 소개하러 온 박진화 공재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소개할 우포늪은예~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즉 3개면에 걸쳐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내륙 습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우포늪은예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대표적인 습지이며 우리나라의 얼마 안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우포늪에는예 소개할게 천지뻐까리인데예.

일단 첫 번째로는예 우포늪에는 청둥오리 백조 쇠오리 왜가리 민물가마우지 물닭등 익수로 많은 새가살고있고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예 겨울에 찾아오는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제 198호인 따오기를 복원하는중이여서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따오기도 볼수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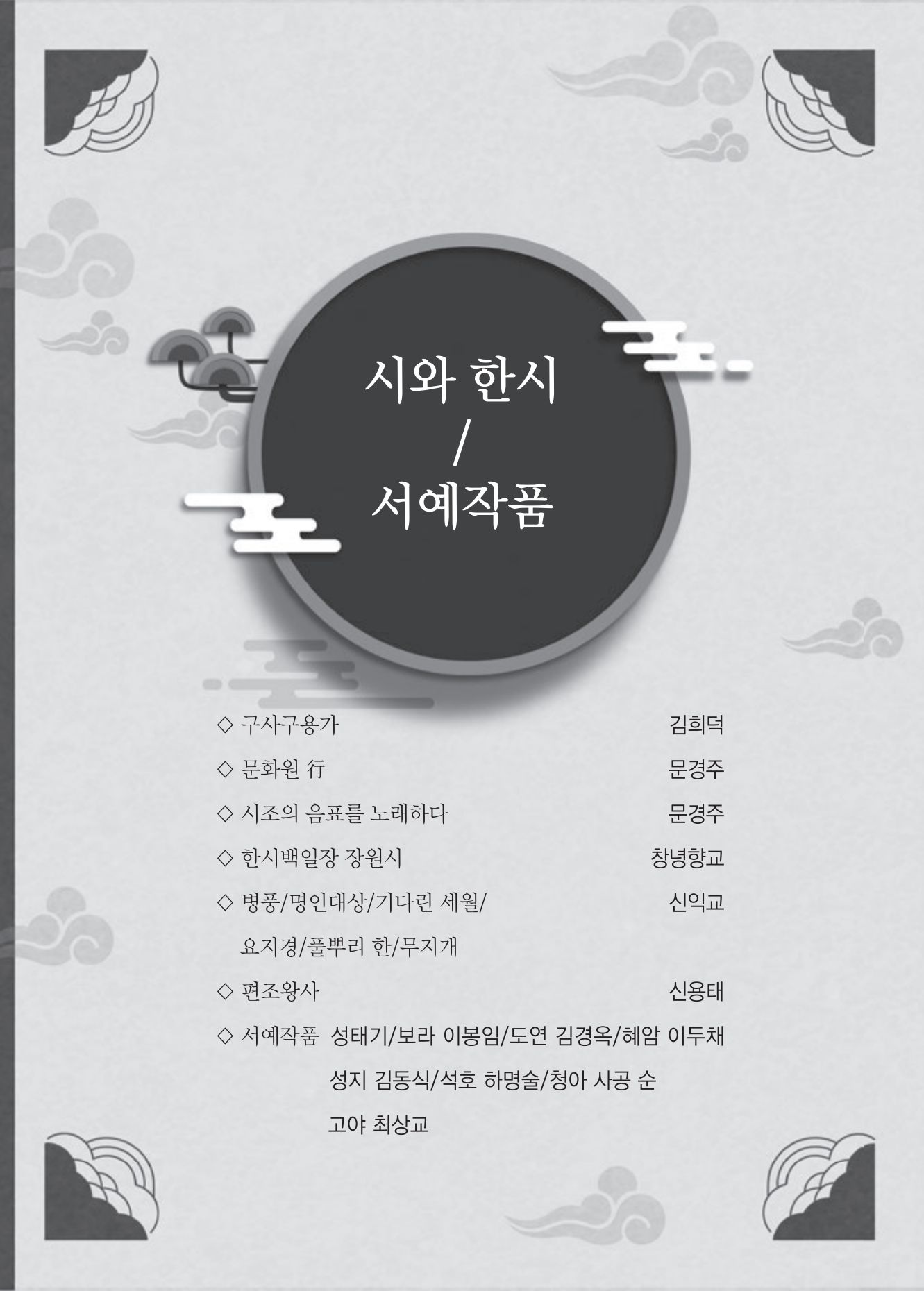
그리고 우포늪주변에는 우포잠자리나라도 있는데 여기서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생물들을 관찰하고 체험할수 있는 국내 최고의 곤충생태체험관도 있어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고 볼수있습니다.

또 우포늪은 지형이 평평하여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걷고 구경하기도 좋으며 풍경도 매우 아름다워서 다양한 생물과 풍경을 함께 즐길수 있는 우리지역의 자랑인 명물입니다.

만약 경상남도 창녕군에 놀러 오신다면 꼭 우리나라의 자랑 우리고장 창녕의 자랑인 명소 우포늪에 놀러오세예~

이상 박진화 공재민 이였습니다.





시와 한시 / 서예작품

- ◇ 구사구용가 김희덕
- ◇ 문화원 行 문경주
- ◇ 시조의 음표를 노래하다 문경주
- ◇ 한시백일장 장원시 창녕향교
- ◇ 병풍/명인대상/기다린 세월/
요지경/풀뿌리 한/무지개 신익교
- ◇ 편조왕사 신용태
- ◇ 서예작품 성태기/보라 이봉임/도연 김경옥/혜암 이두채
성지 김동식/석호 하명술/청아 사공 순
고야 최상교

구사구용가(九思九容歌)



벽산(辟山) 김희덕(金熙德)

고전(古典)에 구사(九思)는 아홉 가지 생각(生覺)
시사명(視思明) 정사충(正思聰) 색사온(色思溫) 이요
모사공(貌思恭) 언사충(言思忠) 사사경(事思敬) 이라.
의사문(疑思問) 분사난(忿思難) 견득사의(見得思義) 이니
이것이 학업(學業)에 기본(基本) 이라고...

고전(古典)에 구용(九容)은 아홉 가지 모습
족용중(足容重) 수용공(手容恭) 목용단(目容端) 이요
구용지(口容止) 성용정(聲容靜) 두용직(頭容直) 이라.
기용숙(氣容肅) 입용덕(立容德) 색용장(色容莊) 이니
이것이 인성(人性)에 기본(基本) 이라네.

문화원 行(시)



문 경 주
창녕읍

독공(犢功)을 하며 시조의 음률을 통달하고
생의 바다 힐끗힐끗 돛단배 심연 속으로 쉬어가듯
나비 날개 저으며 허공 위로 창을 한다.
지르고 조르고 들어 뽑고 느꾸고 띄우고 떨구고
황경막 출렁거리듯
옆질러져 아무렇지 않은 듯 창불중단(唱不中斷) 않는다.
편도(扁桃)의 술선수범 핏발 감식자되니 눈과 귀는 필참 하리라.
바라건데 신명 나 달려들니 만고에 푸르게 할 것이다.
배회의 문 선부르게 비집고 내 눈빛 매달린 독백으로
양률은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척 무역
음려는 대려 협종 중려 임종 남려 응종 12울 외우고
그 본분을 다함일 진데 한번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오기 어렵거늘
그러하기를 늦는 것들 시우들끼리 가슴 뿌듯한 현재
스스로 걸어와

.
. .
. . .

뜨는 해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현수막은 펄럭이고

시조의 음표를 노래하다

문경주
창녕읍



현대시조 100돌 ‘시조의 날’ (현존하는 현대시조 가운데 가장 오래된 1906년 7월 21일 <대한매일신보>에 ‘대구여사’라는 필명으로 ‘혈죽가(血竹歌:충정공 민영환의 충절을 노래한 시조)’가 발표된 날로 시가(詩歌)가 아니라 문학으로서의 개화기의 첫 작품) ‘전치’가 2006년 7월 21일 한국일보 13층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시조란? 우리가 만든 우리의 시(詩)이며, 숨 쉬는 노래다.

그러므로 시조란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언어 운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가장 이상적인 시 형식으로 승화된 정형시다. 정해진 형식에 맞춰 초장, 중장, 종장이 기, 승, 전, 결의 형식을 띠며 신분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느낌을 노래 할 수 있다.

또한 시조란 바다 속 묻혀있는 700년 전에 침몰한 ‘신안보물선’ 같은 존재로 지금도 많은 애호가들에 의해 오늘도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숨은 노력 덕분에 식어가는 민족 정서에 군불을 지피고 메마른 인간성에 모닥불을 놓아 겨레 사랑의 숨결을 회복하고 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이것은 너무도 유명한 고려가요 ‘청산별곡(靑山別曲)’의 첫 소절이다. 우리 선조들은 ‘청산별곡’처럼 고려 때부터 우리 민족의 정서와 애환을 음률로 엮어 표현하였다. 아름다운 울림은 바로 순수함이다.

시조는 어디까지나 순수함이어야 한다. 시조의 생명이 곧 감동에 있기에 울림이 있어야 한다. 이 울림이 청중(聽衆)들에게 감동을 준다.

시조는 2021년 ‘문학진흥법’ 개정으로 독립된 문학 장르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시조가 자유시와 다른 점으로써 정체성과 종장에서 뒤집기의 맛을 한 번씩 돌아 상대를 쓰러뜨리는 묘미가 있어야 한다. 표현과 제목에서 남다른 글귀가 눈에 들어와야 좋은 시로 평가받는다.

구속력 있는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담을 수 없는 얘기가 있지만 시조만큼 시대정신을 담은 시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전통의 ‘시절가조’는 저마다 가슴 깊은 곳에 숨 쉬고 있다.

가락 시조는 기본적으로 청각을 위한 예술이므로 전달력 있는 음성으로 개성적이고 성량이 풍부한 발성이 명확하여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가 오감(共感)과 오독(共鳴)을 일으켜 영혼(靈魂)의 세계로 빠져든다.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몸매에 배어 있는 향기를 머물게도 한다. 객석도 채우고 무대도 채워야 한다. 소리를 내고 있을 때 혈(血)이 열려 피돌기가 원활하고 머리는 맑아지고 정신은 고요하니 잡념이 없다. 아

랫배가 따뜻해지면서 가슴이 편안해진다면 병이 저절로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시조(기본 형식의 단형 시조)는 양반이 입었던 비단옷(화초)이라면 사설시조는 농부들이 입었던 투박한 무명옷(잡초)이다. 음악은 들어서 즐겁다. 이때 즐거움은 미적 쾌감을 가슴으로 느낄 때 생긴다.

정가(正歌)는 인간의 호흡 주기와 일치하는 음악이다. 평시조 기본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 3(4), 4조의 음수율(글자 수), 4 음보의 음보율(띄어 읽기)로 황종, 중려, 임종 3음계 구성이다. (주음) 중심음(유빈)을 나타내며 짧게 다져지는 소리에 평성과 요성의 조화(맛을 낸다.)

감동과 몽클한 감각적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예부터 시조창에는 명창이 없다고 한다. 의미가 넓고 깊기 때문에 자기화의 과정을 솔직하게 나만의 언어로 표현했다. 율(律)과 여(呂)는 동양음악의 기초이자 근본이다.

석암제에서 반음 3개 (#4, #1, #6) 황종, 태려, 중려, 임종, 남려는 가사, 가곡에 사용된다. 소리를 그래픽 기법으로 틀어 놓고 선율 따라 숫자로 표시할 때 황종 1 증여 4는 Eb, Ab, D#, G# 동일한 뜻이다.

강약을 나타내다 보니 4 4 가 #4로 되었다. 우리나라 토속 음악 향약은 수제천, 종묘제례악은 Eb이 황종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당악, 아악도 계명 그대로 황종이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등장한 시조 형식으로 평시조에서 두 구 이상 길어진 시조이다. 조선 중기 이후의 서민적인 내용으로 자유롭다.

당당함과 솔직함, 자부심을 섬세하게, 심오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대부분의 사설시조는 누가 지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작자 ‘미상’이 많다. 사설시조는 중장이 길다. 현존하는 최초의 가집(歌集)인 「청구영언」에 만횡청류(蔓橫淸類) 116수 수록되었으며 사어(辭語)가 음왜(淫哇)하고 의지(意旨)가 비루하여 외설적인 여성 성(性)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많아 ‘양식’으로서 분명한 실체를 지니고 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에 치우친 삶의 애환, 고부갈등, 처첩(妻妾) 사이의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행이다. 여성의 성적 욕망, 욕망으로 인한 인간과 세계의 사랑과 이별, 기다림 등 갈등 상황을 읊고 있다.

시우회

긴 봄날 명년 삼월 읊츠려 늙지 않고
 지는 꽃 남은 생도 정거장 인연 따라
 결연決然히 들쭉날쭉 즐거움 안겨주네

늙은 봄 허송세월 빈번히 펼치려다
 문고리 솔선수범 열고 선 들어오네
 발표회 만족하니 꽃힌듯 아우르네

가는 봄 머언발치 푸르다 장담 말고
 봄날의 생의 복기 그날 근황 알려주니
 내 안의 너울 되어 바빠 바빠 이르렀구나

대금굴

오억년 누리소서 황금을 누리소서
동굴방패 기둥 폭포 키 자랑 늘어지니 발을 높이 들다
만물상 천만산들 흘러내린다
옥좌대 껴안으며 또 이런 일인가 하노라

세월

기러기 락선불권 樂善不倦 세월 다시 아니오네
강물은 가는 길을 저버리지 않는다네
손바닥 들여다 보듯 무괴아심 無愧我心 하여라

만년교

아치교 무지개 영축산의 신필 새겨주니
함박산 그 꽃과 꽃은 너였다가 나였는지 한 번도 꺾이지 않았으리
역사와 통일 행간 틈새로 남아 있으리라

옛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중 하나가 길다. 정형보다 약간 길어진
시조로 농시조, 사설 지름시조이다.

漢詩白日場(한시백일장) 壯元詩(장원시)

-창녕향교 주최 제16회 창녕전국한시백일장대회[22.11.1(화), 창녕향교 명륜당]-

- * 詩題(시제) ; 讚文化財寶庫昌寧(찬문화재보고창녕)
- * 押韻(압운) ; 陽(양)/長(장)/張(장)/昌(창)/光(광)

比斯伐府訪秋陽(비사벌부방추양)
燦爛文財讚歎長(찬란문재찬탄장)
石塔優良千載屹(석탑우량천재홀)
古墳雄壯四方張(고분웅장사방장)
鮮朝冰庫最名振(선조빙고최명진)
羅代拓碑元寶昌(라대척비원보창)
第二慶州多史蹟(제이경주다사적)
保存處處帶祥光(보존처처대상광)

〈풀이〉

비사벌의 고을을 추양에 방문하니
찬란한 문화재에 감탄함이 길구나
삼층석탑은 우량하며 천년에 우뚝하고
송현동 고분들은 웅장 사방에 펼쳐져 있네
조선조 지은 석빙고는 최명함을 떨치고
신라시대의 척경비는 (元寶) 아주 귀중한 보물 아름답다
제2의 경주와 같이 많은 역사적 자취를 보존한 곳곳에는
상광을 띄었도다

慶北 安東市 臥龍面 모산골길 215-10
淸軒 鄭相鎬

- 자료제공 : 창녕향교 -

병풍



해송 신익교

어머니는 밤낮없이 근심에 쌓여지고
이 집안 병풍관련 자장가를 부르신다
저 노인 근심 걱정을 풀길은 없을까.

축석루 한시경연 장원은 할아버님
선물은 창암필체 집안의 보물이라
회농은 표구한 병풍 달빛아래 오솔길로.

자식들 타향생활 조상 산소 돌아볼까
사촌을 중계자로 동산에 꿈을 묻고
묘지에 할머니 산소 부부 합봉 이전 비용.

내외를 얹혀놓고 옛 병풍 찾아오라
식음을 전폐하듯 어머니는 호통치고
걸프전 불길 속에서 집안 가보 다시 왔네.

마을의 효도잔치 근언신행(謹言慎行) 일깨우고
청아의 일필휘지 산해장려(山海壯麗) 액자 한 점
조부님 가승 기록 필체 추사선생 비유로세.

- (주) 1. 창암(蒼暗) : 서예가
2. 회농(晦農) : 선 비
3. 청아(淸莪) : 서예가

명인대상



해승 신익교

해양문화 상정서책 모아모아 응모사진

고향을 물어물어 창작샘 붙인 현관
하산에 해양문화 내 정열 바치리라
관룡사 약사전에 면벽을 하는 순간
구룡산 고릴라와 용선대 백경물새
모래밭 수의 계약 바지선 거북선에
과도에 생사고락 돌무덤 쌓아놓다
조상님 땀방울을 모아둔 저 돌무덤
농막 내 해양자취 학자와 의병필력
현주소 돌무덤에 한세대 발전상을
씨앗을 뿌린 대지 움트는 파란새싹

내 고향 천년의 세월 조상님 얼 싹튼다.

*1. 문화예술부문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사 위원회 위원장 상

기다린 세월

길가에 앉아서니 모두들 외면하고
용왕님 회초리로 침묵을 깨우친 날
용선대 백경 일행이 어둠 길을 밝혔다.

요지경

흔탁된 이 세월에 민심을 천심이라
옥천사 일미사지 꽃피고 꽃은 지니
두피외 저 바다길을 해양진출 막았다.

풀뿌리 한

땀흘려 채운 곡간 생쥐 장독 뚫고
밭목에 채운 족쇄 풀어준 생불스님
풀뿌리 빈약한 단초 돌아올길 언제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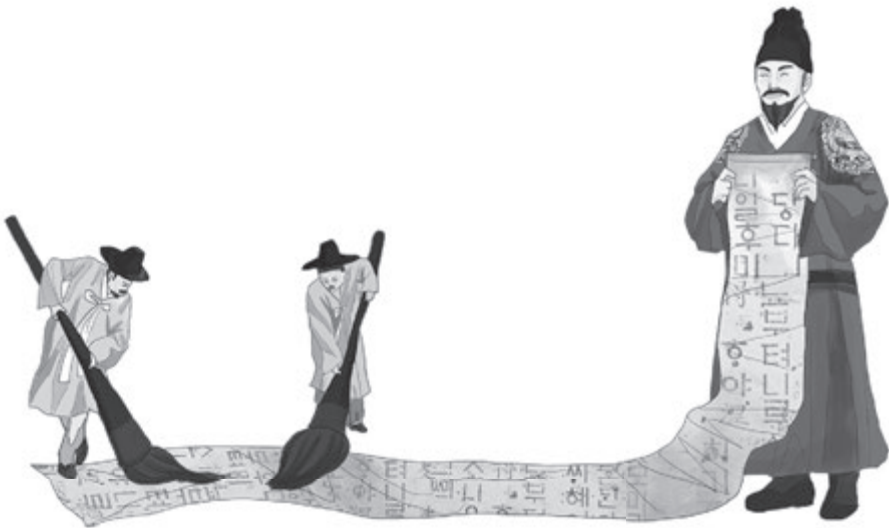
무지개

새파란 담수호에 구름도 두둥두둥실
새소리 바람소리 이렁이는 님의 얼굴
머리 위 목탁소리에 세상문 열렸다.

편조왕사

영산향교 전교 신 용 태

고려국 편조왕사 천년해안 뜻을 품고
옥천사 일미사로 천명지(天命知) 면벽이라
폭풍길 다리놓다가 황금하사 젖었구나



적선

滿超損 謙受益
만초손 겸수익

성태기

보라이봉임



‘적선지가 필유여경’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마련이다.
 <주역 文言傳>

차면 잃게되고
 비우면 얻게된다

무제

도연 김경옥



무제

혜암 이 두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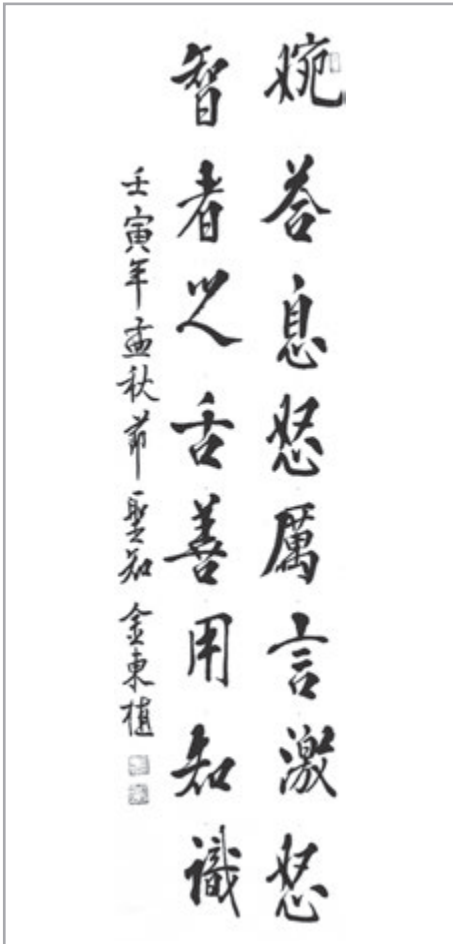
부지런하고 게으름은
 다 한번 생각에서 나고
 가정의 흥패는
 이 가운데서 다룬다

무제

‘유지자사의성’

성지 김동식

석호 하명술



어여쁜 대답은 노를 쉬게하고
 거친말은 노를 격동시키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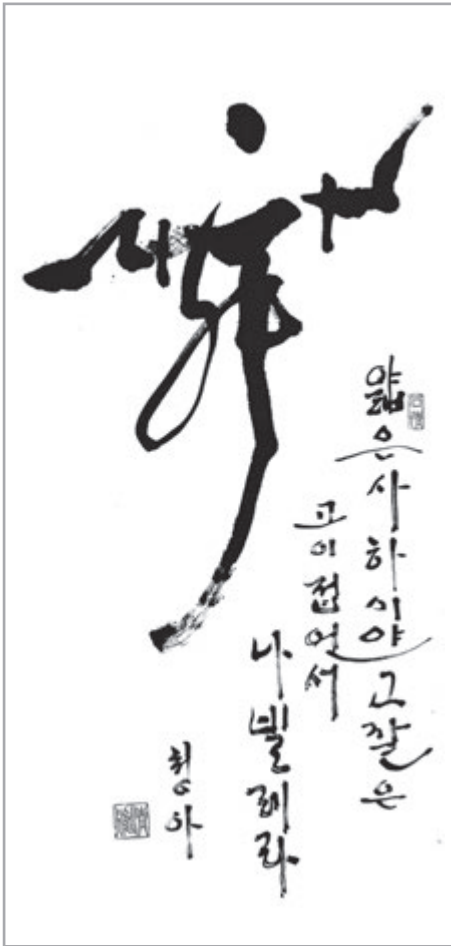
뜻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일을 성사시킨다.

무(승무의 무)

(창생) 인생을 다시만들자

청아 사공 순

고야 최상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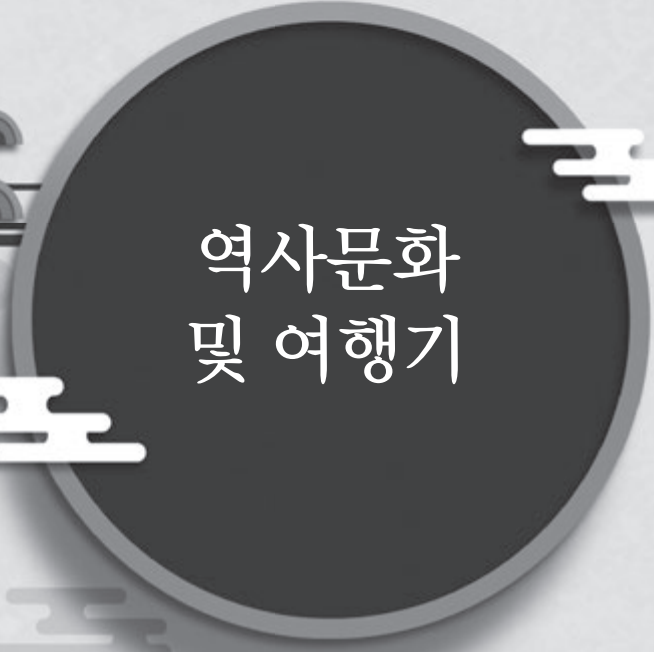
조지훈님의 승무 中 일부

몸에는 생기를 ... 마음엔 의기를...

얼굴에는 화기를

생활에는 운기를 가지자...





역사문화 및 여행기

◇ 문화탐방에 대한 소회

智光 한삼윤

◇ '온달장군과 문경새재' 답사 기행문

김호식

문화탐방에 대한 소회

智光 **한삼윤**
창녕문화원 부원장
겸 향토사연구소장



창녕문화원 유적답사팀에선 연례행사로 수시 문화유적탐방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약 2년 넘게 거의 갖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임인년(壬寅年) 한해엔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가 크게 수구려 들어, 지난 6.21(화), 올해 두 번째로 경북 포항과 영천 지역을 다녀왔다.

포항 영일만 일대 광활한 호미곶(虎尾串) 주변 ‘상생의 손’과 ‘전망대’, ‘해상 스카이워크’ 등을 둘러본 후, 오후에는 영천에 소재하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정신이 아로새겨진 임고서원(臨臯書院)을 답사했다.

모처럼 바다 바람을 만끽하고 성현들의 고귀한 얼이 깃든 성역을 돌아보니, 답답한 가슴에 청량한 빛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감회가 새로웠다.

누군가 ‘여행은 떠나는 것, 만나는 것,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익숙한 공간인 답답한 자기의 자리를 떠나 낯선 곳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넓어지기 마련이다.

자기를 떠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자기를 만나기는 어렵다. 이처럼 여행의 궁극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옴이다. 다시 말해 여행의 종착지는 ‘자기로의 귀환’이다. 떠남과 만남, 그리고 돌아옴. 이것이 여행의 본령이고 귀결점이다.

그래서 떠나는 건 돌아오기 위함이다. 삶 자체가 여행과 다름없다. 여행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존재형식이다. 부단히 만나고 부단히 소통하며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해서 성숙되어 나가는 게 역동적인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익숙한 자기를 떠나야 비로소 생소한 자기를 만날 수 있다. 선(禪)에 서는 이걸 어려운 말로, “생처방교숙(生處放教熟), 숙처방교생(熟處放教生)”, 줄여서 “생숙(生熟)”이라 부른다.

임인년(壬寅年)은 호랑이 해다. 우리나라 지형 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영일만 호미곶(虎尾串)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감을 느꼈다.

산을 꿰뚫어 보려면 산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분히 역설적이다. 마찬가지로 낮설고 생소한 참된 자기를 보려면 익숙한 자기를 떠나지 않고는 볼 수 없다.

에고(Ego/我相)에 갇혀있는 우울한 현재의 자기를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넓게 확 트인 바다로 나가보면 어떨까 싶다. 바다에선 모두가 하나가 된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상생의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바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사람 마음이 좁쌀처럼 좁다가도 바다처럼 넓고 커지면 높디높은 태산 같은 정상에서 느끼는 호연지기를 맛볼 수 있다. 호연지기는 넓고 큰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이 한마음이며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단심(丹心)의 마음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포은 정몽주 선생께서 남기신 단심가(丹心歌)에서도 한마음이 녹아 있었다. 영성이 깃든 당신의 유물관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 불생불멸의 이치를 생각해 보았다.

포항 영일만에선 땅과 바다, 하늘의 만남을 보았고, 영천 임고서원에선 현상과 본질, 생멸과 불생불멸의 이치를 봤다.

사람은 만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을 만나고 사물을 만나며 사건을 만난다. 만나서도 의미를 알게 되지만, 알고 만나면 의미가 새로워진다.

참여정부 시절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번 문화탐사를 주관하고 동참하면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해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단양 온달관광지와 문경새재’ 답사 기행문

김 호 식

창녕읍

전 창녕문화원 사무국장

때는 늦가을이지만 가을 날씨가 봄의 기온처럼 너무나 포근하고 10월 내내 햇빛이 내리쬐어 가을걷이와 우리 지역 농가소득의 주 작목인 마늘파종과 양파 이식도 거의 마무리 되는 시기에 잠시나마 일손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2022. 10. 28(금) 창녕문화원(원장이수영)주최로 국내 문화 유적지 답사현장에서 눈여겨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른 아침 창녕공설운동장에 집결한 창녕문화원 회원 320여명은 각자 지정된 버스 9대에 승차하여 아침 8시경 목적지인 ‘단양온달관광지’와 ‘문경 새재’를 향해 출발하였다.

우리버스는 7호 차량으로 창녕, 유어, 이방면에 거주하시는 남.여 38명이 승차하였다.

문화원에서 준비한 간식과 목걸이 명찰을 교부하고 문화답사 내용과 시간 계획을 안내받고 안전여행으로 참석자 모든분들이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자는 당부에 이어 각자 앉은 자리에서 본인소개와 덕

담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서먹함도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 주는 이심전심으로 인심동체가 되었다.

여행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설렌다.

같은 지역 같은 명승지라도 산천이 계절 따라 변모하는 현상이 확연히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일까!

참석자 한분이 인생이 진화되는 단계를 얘기한다.

-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는 단계를 1막 인생이요,
- 돈을 벌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교육과 아들, 딸 결혼시키고 밤을 낮삼아 열심히 삶을 영위하는 단계를 2막 인생이라 할 수 있고,
- 직장, 사업, 자영업, 자연에서 은퇴 후 삶은 3막 인생이라 할 수 있다.

3막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면 오늘처럼 가을에 해당된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놓는 순간까지 건강을 잘 지켜 질병으로 남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서 혼자 힘으로 거동과 생활이 여의치 않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오늘처럼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늘 운동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자는 얘기에 모두가 공감하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는 휴게소에 들러 휴식과 몸을 추슬리고 차를 마시면서 다른 버스에 승차한 분들과 반가운 얼굴로 손잡고 안부를 묻고 나누기도 하였다.

버스는 3시간 정도를 달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곳, ‘단양군’으로 진입하여 남한강이 보이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단양의 명물 남한강 주변에는 수상관광시설과 강변도로가 조성되고 절벽따라 자연과 조화롭게 보행로를 만들어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버스에서 하차하여 경치가 아름답기로 이름난 남한강 주변에 조성한 갖가지 시설물을 감상하면서 휴식과 보도를 걷고하였다.

남한강은 강원도 삼척의 대덕산에서 발원하여 경기도 남부를 지나 한강과 서해로 흘러드는 강이다.

11시 30분 지정된 식당으로 안내받아 남한강에서 어부가 직접잡은 단양의 대표메뉴 민물쏘가리 매운탕으로 점심을 하였다.

싱싱하고 얼큰한 국물이 당겨 옆 테이블에서 수제비 사리 2개를 주문했는데 주인은 계속 넣어 주시기에 “언제까지 넣어주세요?” 했더니, “그만이라고 해야지요~.” 하는 소리에 우리는 놀라 “뭐라고요?!” 하면서 서로를 보며 웃기도 하였다.

강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식당 형성이 특이하다.

낙동강을 연결하고 있는 창녕 남지 지역은 민물 횡집이 즐비하게 성업 중이지만 우리가 찾아온 단양 관광지의 식당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지고 같은 민물어종이지만 생식이 아닌 ‘쏘가리 매운탕’을 지역 브랜드로 각인시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색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점심을 끝내고 단양 온달 관광지 드라마 세트장을 찾았다.

이 날 문화 해설사는 “처음 오시는 분들의 느낌은 주차장에서 매표소를 지나 정문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우~와 하면서 축조한 높은 성벽과 다양한 건축물이 아기자기하면서 내부는 실물보다 더 화려하고 건축

물의 웅장함에 감탄사가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하기에 관람하는 우리들도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다.

1만 8,000㎡(5,500평)부지에 궁궐, 후궁, 부속사 등 60여 동의 고구려 건물과 그 당시 왕실과 농민들의 문화와 생활 모습을 옮겨 놓았다.

경복궁과 덕수궁은 조선시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면 이곳은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천추태후, 정도전 등 수많은 안방사극과 영화를 통해 잘 알려진 고구려의 정취를 느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화려함의 극치 ‘천추태후 기념관’의 관람은 모든 분들의 기억 속에 오랜 시간 각인 되리라 생각 되었다.

「우리 삼국시대 인물전은 주몽과 박혁거세 이후 백제를 멸한 신라와 고구려의 후신인 발해가 남북국 시대를 여는 서기 720년까지 살았던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과정을 뒤새겨 올바른 역사의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무한한 상상력을 불어넣어 우리 세대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나라의 도량으로 성장하기를 염원하는 뜻도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온달관광지 세트장’ 관람 후 문화해설사에게 궁금증을 문의하였다.

- 온달이 어떻게 바보 온달이 되었나?
- 신분사회에서 ‘평강공주’와 혼인이 정말 가능하였을까?

문화해설사의 얘기를 경청하였다.

온달은 대성산 아래에서 움막을 지어 홀어머니를 모시고 마부(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멀어 아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온달은 효성이 지극하여 일을 해서 돈이라도 생기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의복을 사다드렸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복은 늘 너털너털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었고 하루에 한, 두끼 거르기도 하였다. 온달의 행색이 이러기에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부르고 하였다.

하지만 온달은 그런 말을 들어도 늘 웃기만 할 뿐이었다.

(평강공주/ 고구려의 제25대 왕인 평원왕의 딸로 온달의 부인이다.

어릴 때 잘 울어 아버지로부터 바보 온달에게 주겠다고 말을 듣고 자랐다. 16세가 되어 평원왕이 상부 고씨 가문에 출가시키려고 하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궁궐을 뛰쳐나와 온달과 혼인하게 되었다.

후일 온달에게 무예와 학문을 가르쳐 고구려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만들었다.)

온달이 살았던 고구려 사회의 구조는 어떠했을까?

가난하고 낮은 신분이던 온달은 어떻게 공주였던 평강공주와 혼인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6세기 고구려 사회의 흐름을 찾아보자.

온달을 사위로 맞이한 평원왕은 장수왕 뒤로 계속되는 왕위 쟁탈전과 귀족사회의 갈등과 혼란 속에 즉위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뒤로 극심한 내분으로 고구려의 국력이 갈수록 약해졌다.

양원왕 때는 고구려 역사상 반란 사건까지 일어나고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고구려의 낮은 귀족 세력 때문이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왕들은 낡은 귀족 세력들을 견제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두루 영입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국가 행사인 사냥 대회에서 온달 같은 새로운 세력이 중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다.

고대 국가는 신분 사회로 토착되어 신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에서 온달이 고구려의 으뜸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구려 사회가 매우 어지럽고 혼탁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온달은 고구려의 으뜸 귀족인 상부 고씨 집안의 혼인 요구를 거절한 평강공주와 혼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무예를 중시하던 고구려 사회는 뛰어난 무술 실력과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벼슬의 길을 열어 놓았다.

온달은 해마다 3월 3일 낙랑언덕에서 열리는 무술대회에 나가 우승을 하고 또 후주와 맞선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면서 고구려의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온달을 비롯 신분은 낮았지만 당시 고구려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벼슬의 필수 조건을 두루 겸비 하였기에 새로운 세력을 키워서 왕권을 강화하려던 평원왕의 의지에 따라 왕의 사위가 되고 중앙 정치 세력의 중심에 나서게 되었다.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바보 온달은 이러한 고구려의 정치 상황 덕분에 평강공주와 결혼하여 귀족이 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온달장군의 최후

서기 590년 고구려의 평원왕이 타계하고 그의 장손 영양태왕이 등극하였다. 어느 날 영양태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고 있을 때 온달

장군이 나서서 신라가 우리나라 고구려의 영토인 죽령이북의 땅을 빼앗아 점령하여 아직도 그 곳의 백성들은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꾀하께서 군사를 내어 주신다면 그 땅을 찾아오겠다고 하기에 영양태왕은 3만명의 군사를 줄 것이니 반드시 승전보를 전하도록 하라면서 명을 내렸다.

온달은 군사를 이끌고 ‘아단성’(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으로 백제가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인 요충지)을 점령하고자 고구려 군사들의 속전속결 공격과 신라군의 거센 저항과 방어로 혼전의 전투에서 신라군의 아단성주 대명이 쏜 화살이 온달장군의 이마에 꽂혀 전사하였다.

온달은 어린 시절 바보라 놀림을 받으며 고생하다가 평강 공주를 만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천하를 호령하는 고구려 최고의 장수가 되었다.
그리고 용맹한 장수답게 전장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이했다.

우리는 온달 관광지 드라마 세트장 관람 후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단양 온달 동굴로 발길을 돌렸다.

안내 간판에는 온달 동굴은 천연기념물 제 261호로 지정되었다.

온달 산성이 있는 성산 기슭 지하에서 약 4억 5,000만 년 전부터 생성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며 동굴과 지굴의 길이가 800m 입구높이 2m 면적은 34만 9,485㎡(105,700평) 조성되어 있다.

안전모를 머리에 쓰고 들어가는 동굴 안에는 매우 신비스럽고 자연적인 석회암, 중류석이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현상으로 갖가지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이사이 작은 굴이 곳곳에 이어져있다.

바닥에는 폭포수처럼 물길이 흐르고 천장에 맺힌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동굴 내부는 조명이 비치고 있으며 철재 계단과 보행로를 만들어 관람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동굴의 중간과 곳곳에 폭이 좁고 낮아 몸을 숙이고 관람하는 구간에선 노약자의 보행이 힘들어 중간쯤 왔다가 뒤돌아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동굴이 수만년간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성되는 그 기나긴 과정이 너무나 신비스러움을 더해 주었다.

우리는 온달관광지와 온달 동굴을 관람하고 발길을 국내 옛길로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한적한 고갯길 문경새재로 출발하였다.

문경새재하면 먼저 청운을 품고 가는 고갯길, 장원급제의 길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기쁘고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문경(들을 문 聞, 경사 경慶)이라 이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이야 자동차도 즐비하고 먹는 것, 잠자는 곳은 지척에 흔하지만 그 시대의 선비들은 문경에서 한양까지 5일, 안동은 8일, 대구는 10일, 부산은 15일 정도 소요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군사적으로 천혜의 요새인 이곳을 막지 못하여 한양이 쉽게 함락되어 선조는 의주까지 피신을 가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의 쓰라린 경험으로 나라에서는 성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선조 때 먼저 2관문을 쌓았고, 그 후 숙종 때 1관문과 2관문을 건립하였다.

최근 옛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걷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소백산 자락길 등 각 지역마다 테마를 붙인 걷기 좋은 길들이 알려지고 있다.

창녕에도 남지 개비리길, 창녕 문화공원 둘레길에는 건강을 지키는 걷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길은 사람이 다니면 어디나 길이 되었고 사람의 발길이 멎으면 길은 점점 사라진다.

우리나라 옛길 중의 옛길이 문경새재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길처럼 확장이 되어 신작로가 되고 포장이 되어 국도가 된 경향이 없다. 문경새재는 다양한 생태 환경을 비롯한 조선시대 50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인문 환경까지 이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오늘 찾아온 문경새재에는 문경사과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길가에는 사과를 홍보하고 사과를 판매하는 부스에는 길을 거닐는 사람들과 맛을 보고 사과를 구입하는 사람들로 사과 축제장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우리는 문경새재 주차장에서 제1관문 성곽을 향해 일행과 함께 걸음을 재촉하였다.

오늘 우리는 창녕문화원의 배려로 화창한 날씨와 따듯한 기온 속에 유서 깊은 온달관광세트장과 온달동굴을 관람하고 문경새재에서 환경의 소중함과 건강한 삶을 다시 생각하는 뜻깊은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교양 및 정보

◇ 고전(古典)이야기 / 논어(論語)

冶堂 성낙은

◇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알자

海水 진태홍

古典이야기 - 論語

冶堂 成樂殷
향토사연구위원

논어는 유가(儒家)의 경전(經典)이라고 하는 四書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하나로 중국 최초의 어록(語錄)이기도 하다.

한사람의 저자가 일관된 구성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공자(孔子)의 생애 전체에 걸친 언행(言行)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경전들과는 달리 격언이나 금언을 모아놓은 듯 한 성격을 띤다.

공자가 제자나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토론한 것이 ‘論’제자들에게 전해준 가르침을 ‘語’라고 부른다.

공자의 삶과 행동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읽혀온 책이 論語다. 누가 언제 이 책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그러나 논어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책이 공자 사후(死後),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과 행적을 더듬고 자신들의 얘기를 첨가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자 사후 그의 제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재상(宰相)이나 장관 등 높은 벼슬을 하거나 주로 교육에 종사했는데, 여러 곳에서 스승의 말

을 죽간(竹簡) 등에 기록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고 이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편찬했다고 본다.

논어는전한(前漢)시대에 처음 출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논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漢나라 경제, 무제 연간이라고 하며 후한(後漢)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한국에는 삼국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3~4세기경 한성백제시대 목간에 5편인 공야장(公冶長)편의 주요내용이 기록되어 남아있다.

공자는 법이나 제도보다 사람을 통해 그가 꿈꾸는 도덕의 이상사회를 이루려고 했다. 그래서 ‘어짚’을 실천하는 지도자로 군자(君子)를 내세웠다.

원래 군자는 군주의 자제라는 고귀한 신분을 뜻하나 공자에 의해 이상적 인격의 소유자로 개념화되었다. 군자는 道를 추구하고, 도에 입각하고, 도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존재다. 이 위대한 사상가는 예(禮)로 자신을 절제하고 악(樂)으로 조화를 추구한다. 문(文藝)을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군자로 거듭나고, 정치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도덕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덕(德)과 의(義)가 사회의 중심가치가 되는 자신의 이상사회를 끝내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 지난(至難)한 삶의 역정 속에서도 도덕사회의 구현이라는 처음의 꿈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는데 이 꿈이 녹아있는 책이「論語」다.

공자 이후 논어는 중국인들의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이후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거의 2천년 동안 논어는 중국의 학자들이 배우는 기본과정이 되어왔

는데, 공자의 저작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중국의 과거시험은 진(晉)나라(265-420)에서 시작되어 청나라말까지 지속되었는데 과거시험에서는 유교 경전을 강조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현재 논어는 영어, 불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각국에서 연구서나 번역서도 많으며, 최근에는 미국에 특히 많다. 논어는 봉건시대의 보수성을 반영한 것도 있으나 어느 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만고(萬古)의 명언이 도처에 보인다.

정자(程子)는 논어를 읽고 나서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깊이 음미해 봄직하다. 논어를 읽고 그 가운데 단 몇 구절만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큰 보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인류의 영원한 스승인 공자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대부분 논어 한 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수도 석가도 진리를 말한 점에 있어서는 공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 삶과 행동에 있어서는 서로의 차이가 뚜렷하다. 우리로서는 따를 수 없는 점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공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면 되는 것이다. 독신생활도 필요 없고 굳이 깊은 산속 절간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최고 경전이라면 「유마경維摩經」을 들 수 있는데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는 거사(居士)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처자를 거느리고 집안에 있으면서 도를 닦은 사람이다. 작게 말하면 선비요, 학자였고 달리 크게 말하면 공자와 석가 같은 성인이었다. 불교에서도 공자를 이상적인 인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자를 알고 공자를 모방해서 「유마경」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상형

의 인물로 등장시킨 유마거사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한 선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기(史記)」세가(世家)에 이르기를, 공자의 이름은 구(丘)요, 자는 중니(仲尼)이며 그의 선조는 宋나라 사람이다. 아버지는 숙량홀(叔梁紇)이고 어머니는 안징재(顏徵在)이다. 노(魯)나라 창평향 추읍에서 태어났다(BC552-479).

장성하여 주(周)나라에 가서 老子에게 예(禮)를 물었고, 돌아오자 제자들이 더욱 모여들었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자 천하를 돌아다녔으나 써주는 임금이 없었다.

노나라에서 대사구(大司寇)라는 벼슬을 끝으로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리(鯉), 자는 백어(伯魚)이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백어가 급(倂)을 낳으니 자는 자사(子史)이고 후에 중용(中庸)을 지었다.

- 중국에서는 1990년부터 논어를 초.중.고 학생들의 필독서로 지정했다. 중국은 논어에 대한 주석 작업이 수없이 이루어져 漢나라 때부터 淸나라 말까지 1,100여종이나 되고 지금까지 합하면 2,000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논어를 국역(國譯) 한 때는 조선 선조21년 (1588) 〈논어언해(論語諺解)〉를 필두로 지금까지 약 300여종의 번역서가 나왔다.

중국속담에 「반부논어치천하(半部論語治天下)」라는 말이 있다. ‘논어 반만 읽어도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宋나라 개국공신이자 유능한 재상이었던 조보(趙普)란 사람이다.

그는 태조(960-974) 태종(975-996) 2대에 걸쳐 재상을 지내면서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어렸을 때는 가난하여 많은 책을 읽을 수 없어 오로지 논어만 열심히 읽었다고 한다. 새 왕조를 창업한 두 임금을 모시고 나라의 기반을 닦은 그가 겸손하게 말하기를 ‘논어 20편 가운데 나는 반밖에 읽지 못했소! 그래도 태조임금이 천하를 평정하는 일을 보좌할 수 있었소!’ 그래서 「반부논어치천하(半部論語治天下)」란 말이 생겨났고 유학통치의 명언으로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중국정부가 논어를 초중고 학생들의 필독서로 지정한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그런다고 우리가 따라할 이유는 없지만 앞서 얘기한 영어, 불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읽히는 책이 일시적으로 바람을 일으켰다가 사라지는 베스트 셀러가 아니라 수 천 년을 읽혀온 동양인들의 필독서였던 논어를 ‘어떤 내용의 책인가?’ 궁금해서라도 한번쯤은 읽어 보길 권하고 싶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이란 말이 여기에 해당될 듯 싶다. 논어를 한번 읽으면 지식인이 되고, 열 번 읽으면 지성인이 되고, 백 번 읽으면 지도자가 된다는 말도 있다.

논어는 전부 20편, 482장, 600여 문장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그 전부를 옮길 수는 없고, 대체로 쉽고 우리 생활에 자주 활용되는 몇 문장만 옮겨보기로 한다.

제 1 편 학이(學而)

- 공자께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했다.(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라도 而不濫이면 不亦君子乎아) *學習
- 공자께서,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에는 인이 적으니라, 했다.(子曰, 巧言令色은 鮮仁矣이니라)
*巧言令色
- 공자께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 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라, 했다.(子曰, 不患人之 不己知요 患不知人也 이니라)

제 2 편 위정(爲政)

- 공자께서, 시경삼백편의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사악한 생각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느니라, 했다.(子曰, 詩三百은 一言以蔽之하니 曰, 思無邪이니라)
*思無邪
- 공자께서,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모든 기초를 세웠으며, 40세에 사물의 이치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없었고, 50세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70세 에는 뜻대로 행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느니라, 했다.(子曰, 吾十有五 而 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

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 耳順하고 七十而 從心所欲不踰矩니라)

○ 공자께서,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 했다.(子曰, 溫故而知新이면 可以爲師矣니라)

*溫故知新

○ 공자께서, 군자는 그릇(한가지 구실 밖에 하지못하는) 같은 존재가 아니니라, 했다.(子曰, 君子는 不器니라)

제 4 편 이인(里仁)

○ 공자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 하셨다. (子曰, 朝聞道면 夕死라도 可矣니라)

- 공자처럼 위대한 성현은 그 품은 뜻이 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에서 나타난 정신을 보더라도 그 분이 얼마나 지극한 정성과 굳센신념으로 삶의 진리를 터득하려고 했었나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 공자께서,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 남루한 옷과 나쁜 음식을 수치로 여기는 자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 족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子曰, 士志於道而恥 惡衣惡食者는 未足與議也니라)

○ 공자께서, '삼(參)(증자)아! 나의 도는 하나로 관철되어 있느니라.' 증자가 대답하기를, 「예, 그러하옵니다.」 공자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의 제자들이 문기를 ‘무슨 말씀인지요?’ 「선생님의 도는 충(忠)과 서(恕)일 뿐입니다.」(子曰, 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曰, 唯라, 子出하거늘 門人이 問曰, 何謂也리잇고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니라)

- 공자는 자신의 도가 한가지 원리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 한가지 원리란 仁의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인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 증삼은 ‘예’하고 대답했던 것이다.

○ 공자께서 덕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느니라.(子曰, 德不孤란 必有鄰이니라)

- 덕이란,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고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덕은 남에게 베풀어질 때 더욱더 빛난다. 그래서 공자는 덕이 고립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감화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제 5 편 공야장(公冶長)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장은 가히 얻어 들을 수 있으나 선생님의 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과 천도는 가히 얻어 들을 수 없었다. (子貢曰, 夫子之文章은 可得而聞也어니와 夫子之性與天道는 不可得而聞也니라)

- 공자의 문장(학문)은 누구나 얻어들어서 알 수 있지만 그의 어진 성품과 하늘의 이치를 말한 깊은 진리는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말이다.

제 6 편 옹야(雍也)

- 공자께서, 어질도다. 안회여!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곳에 거처하며 산다면 다른 사람은 그 근심을 견디어 내지 못하거늘 회는 그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어질도다, 회여!(子曰, 賢哉라 회也여 一簞食와 一瓢飲으로 在陋을 人不堪其憂어늘 회也不改其樂하니 賢哉라 회也여)

*簞食瓢飲

- 공자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어진사람은 고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사람은 오래 사느니라.(子曰, 知者は 樂水하고 仁者は 樂山이니 知者は 動하고 仁者は 靜하며 知者は 樂하고 仁者は 壽하나라)

*樂山樂水

제 7 편 술이(述而)

- 공자께서, 거친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나에게 있어 뜬구름과 같으니라.(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이니라)

-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사상이 그대로 담긴 글이다. 가난하게 살아가더라도 마음을 편안히 갖고 제 분수를 지켜나감을 말하고 있다.

- 공자께서,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 것을 좋아하여 재빨리 구하는 사람이니라.(子曰, 我非生而知之者라 好古敏以求之者也니라)
- 공자께서, 세 사람이 행하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느니라. 그 착한 사람을 가려서 따를 것이고 그 착하지 않은 사람은(그를 보고) 고칠지니라.(子曰,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니 擇其善者而從之 오 其不善者而改之니라)
- 공자께서는 낚시는 하셨으나 그물 질은 아니했고, 주살로 자는 새는 쏘지 않으셨다.(子는 釣而不網하시며 弋不射宿하셨다)

제 8 편 태백(泰伯)

- 공자께서, 배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하고 오히려 배운 것을 잊어 버릴까 두려워하라.(子曰, 學如不及이요 猶恐失之니라)

제 9 편 자한(子罕)

- 공자께서, 이익과 운명과 인(仁)에 관해서는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다.(子罕言利與命與仁)
- 이익을 추구하면 의를 해하기 쉽고, 운명이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정의(定義)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仁)은 그 뜻이 너무나 넓고 커서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자는

利.命.仁에 대하여 자주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 공자께서, 나는 아직까지 미색(美色)을 좋아하는 것 같이 덕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子曰, 吾未見好德을 如好色者也니라)
- 색(色)을 좋아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등과 같이 배워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본능은 강한 것이다. 공자는 이 본능의 하나인 색을 인간의 덕에 비유한 것이다.
- 공자께서,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디 시드는 것을 아느니라.(子曰, 歲寒然後에 知松柏之後彫也니라)
- 공자께서, 삼군(三軍)에서 그 장수를 뺏을 수는 있어도 굳게 다져진 필부의 뜻은 뺏을 수가 없느니라.(子曰, 三軍은 可奪帥也어니와 匹夫는 不可奪志也니라)
- 우리는 예로부터 충신, 열사, 열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들의 정의에 불타는 굳은 의지는 목숨이 다했을지언정 끝내 뺏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 11 편 선진(先進)

- 공자께서, 진나라와 채나라에 있을 때 나를 따르던 자들이 지금은 모두 나의 문하에 없구나. 덕행에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이고, 언어에는 재아와 자공이고, 정사에는 염유와 계로이고,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가 뛰어났느니라.(子曰, 從我於 陳 萊者 皆不及門也이로다 德行엔 顏淵, 閔子騫, 冉伯宇, 仲弓이요 言語엔 宰

我, 子貢이요 政事엔 冉有, 季路요 文學엔 子游, 子夏니라
 - 공문십철(孔門十哲)에 대한 분야별 뛰어남을 말하고 고락(苦樂)
 을 같이 했던 제자들을 회상하면서 한 말이다.
 지자(智者)이면서 현자(賢者)인 그도 회자정리(會者定離)의 감상에
 젓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도 인간인 것을...

- 자공이 사(師)와 상(商)〈자장과 자하〉은 누가 더 현명한가를 물었다. 공자께서, ‘사는 과하고 상은 미치지 못하느니라.’ 말하기를 「그러면 사가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함과 미치지 못함은 마찬가지로니라.(子貢問師與商也孰賢이니 잇고子曰, 師也는過하고 商也는 不及이니라 曰, 然則 師愈與리 잇고子曰, 過猶不及이니라)
 *過猶不及

제 12 편 안연(顏淵)

- 안연이 인(仁)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감이 곧 인이 되는 것이니, 하루라도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게 된다면 온 천하가 다 인을 따르게 될 것이니라. 인이 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으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안연이 말하기를 「그 조목을 말씀해주시기 바라 나이다.」공자께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안연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우둔하오나 스승님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顏淵이 問仁한대子曰, 克己復禮爲仁 이니 一日克己復禮면 天下歸仁 焉하나니 爲仁이 由己니 而由人乎哉아 顏淵이 曰, 請問其目하

노이다. 子曰, 非禮勿視하며 非禮勿聽하며 非禮勿言하며 非禮勿動이니라 顏淵이 曰, 回雖不敏이나 請事斯語矣리이다)

- 자공이 정사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이 믿게 하여야 하느니라.” 자공이 다시 묻기를, 「부득이하여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에서 어느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군비를 버려야 하느니라.” 자공이 묻기를 「또 부득이하여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군비를 버려야 하느니라.” 자공이 묻기를 「또 부득이하여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려야 하느니라. 예로부터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있게 마련이 거니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하는 법이니라.”(子貢이 問政한대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니라 子貢이 曰 必不得已而去면 於斯三者에 何先 이릿고 曰, 去兵이니라 子貢이 曰 必不得已而去면 於斯二者에 何先 이릿고 去食이니 自古로 皆有 死어니와 民無信不立이니라)
-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니, 그대가 바르게 통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따르지 않으리오?”(季康子 問政 於 孔子한대 孔子 對曰, 政者正也이니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 이리오)

제 13 편 자로(子路)

- 공자께서 “「시경」의 시(詩) 3백편을 다 외우되 정사에 보탬을 줄 정도에 달하지 못하고, 사방에 사절로 보내져도 자기의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비록 시를 많이 외고 있다 한들 무엇 하리오.”(子曰, 誦詩三百하되 授之以政에 不達하여 使於四方에 不能專對하면 雖多나 亦奚以爲리오)

- 〈시경〉의 시는 전부 305편이며 대부분이 인간의性情(性情)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그 시를 다 외우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알지 못해 정사(政事)에 응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학문이란 단순히 지식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를 실생활에 옮길 수 있어야만 그 뜻이 있다고 한 말이다.

○ 공자께서, 그 자신이 바르면 영을 내리지 않아도 실천이 되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영을 내린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子曰, 其身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니라)

○ 공자께서,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뇌동(雷同)은 하지 않고, 소인은 남에게 뇌동은 하지만 화합은 하지 못하느니라.(子曰, 君子는 和而不同하고 小人은 同而不和니라)

- 和가 의기로 결합 된 것이라면 同은 이해관계나 감정으로 뭉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남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다고 옳지않는 일에 남을 도와주지도 않는 것이다.

제 14 편 헌문(憲問)

○ 공자께서, 군자이면서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있겠으나, 소인이면서 어진 사람은 아직 없었느니라.(子曰, 君子而不仁者는 有矣夫 어니와 未有小人而仁者也이니라)

- 공자께서,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앓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앓기는 쉬우니라.(子曰, 貧而無怨은 難하고 富而無驕는 易하니라)
- 공자께서, 군자는 위로 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달하느니라.(子曰, 君子上達하고 小人下達하니라)
 - 학문과 도를 좋아하고 지켜나가는 군자는, 날이 갈수록 인격이 완성되어 가지만 재물과 명리(名利)에만 마음을 둔 소인은 날이 갈수록 인간성이 허물어지고 타락할 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점점 고상해지고 소인은 점점 천박해진다는 말이다.

제 15 편 위령공(衛靈公)

- 공자께서,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여 인(仁)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일은 있느니라.(子曰, 志士 仁人은 無求生以害人이요 有殺身以 成仁이니라)
 - * 殺身成仁
- 공자께서, 군자는 (일의 결과에서 잘못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子曰, 君子求諸己요 小人求諸人이니라)
- 공자께서, 인(仁)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子曰, 當仁하여 不讓於師니라)

제 16 편 계씨(季氏)

- 공자께서,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 있느니라. 정직한 이를 벗하고, 진실한 이를 벗하고, 박학다식한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니라. 아첨하는 이를 벗하고, 유순한 이를 벗하며, 말을 잘 둘러대는 사람을 벗하면 해로우니라. (子曰, 益者三友요 損者三友니 友直, 友諒 友多聞이면 益矣요 友便辟하여 友善柔하며 友便佞이면 損矣니라)

제 17 편 양화(陽貨)

- 공자께서, 큰길에서 듣고 작은 길에서 이야기한다면 덕을 버리는 것이니라(子曰, 道聽而塗說이면 德之棄也이니라)

*도청도설 : 道聽塗說

공자께서, 나는 자주색이 붉은색을 뺏는 것을 미워하고, 정나라의 음악이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약삭빠르게 둘러댄 말이 나라를 뒤엎음을 미워하노라. (子曰, 惡紫之奪朱也하고 惡鄭聲之亂雅樂也하며 惡利口之覆邦家者하노라)

*惡紫奪朱

- 청색과 적색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자주빛은 붉은색보다 이름답다. 음탕한 정나라 음악은 인간의 비애만 자아내어 아악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욱 현혹시킨다. 나라를 다스리는데는 옳은 말을 따라야 하나 때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둘러대는 말에 나라가 어지러워 지기도한다. 이 모두는 邪가正을 뒤엎은 예(例)인데 그것이 공자가 미워한 까닭이다.

제 18 편 미자(微子)

○ 장저(長沮)와 (결익)(桀溺)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공자께서 지나시다가 자로로 하여금 나루터를 물어오게 하셨다.

장저 : 수레를 잡고있는 저 사람은 누구요?

자로 : 공구(孔丘)라는 분입니다.

장저 : 저 사람이 바로 노나라의 공구라는 분이오?

자로 : 그렇습니다.

장저 : 그렇다면 나루터 짚은 알고있을텐데....

(결익에게 다가가 물으니)

결익 : 당신은 누구시오?

자로 : 중유(仲由:자로)올시다.

결익 : 그렇다면 노나라 공구의 제자요?

자로 : 그렇습니다.

결익 : 도도한 물결에 온천하가 다 휩쓸려 있거늘 이를 누구의 힘으로 바꾸리오? 또 그대는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기 보다는 세상을 피하여 사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고무래로 흙을 덮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자로가 가서 이일을 말씀드리자 공자께서, “새나 짐승과는 함께 살수 없으니,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산단 말인가?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나는 구태어 바꾸려 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월문생략)

- 여기 나오는 장저와 결익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다만 난세를 피해 초야에 숨어사는 은자(隱者)라고만 짐작된다. 그들이 번갈아가며 자로와 주고받는 이야기는 공자를 존경하는 뜻 보다는 비웃고 있는 느낌을 준다. 이 글은 자신이

이상사회(理想社會)를 만들고자 천하를 편력(遍歷)하는 공자와, 도교적(道教的)사상을 지니고 있는 두 숨은 은사의 체념적인 처세관이 맞부딪히는 일화라고 본다.

제 19 편 자장(子張)

- 자하가 말하기를, 널리 배우고 뜻을 돈독하게 하며, 간절하게 묻고, 가까운것부터 생각하면 인(仁)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子夏曰, 博學而篤志하고 切問而近思면 仁在其中矣니라)

*學問

제 20 편 요왈(堯曰)

- 공자께서,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禮)를 알지 못하면 남 앞에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느니라. (子曰, 不知命이면 無以爲君子요 不知禮면 無以立也요 不知言이면 無以知人也니라)

- 천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 처세를 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말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는 명(命), 예(禮), 언(言)의 세 항목은 늘 군자가 새기고 있어야 할 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자는 분명 지극한 현실주의자이다. 논어는 죽어있는 고전이 아닌 살아있는 실용서(實用書)다. 유학(儒學)은 현실의 학문으로서 그 자체가 실학(實學)이다. 삶을 살아가는 지침을 주기 때문이다.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알자



海水 陳台洪

집에 네 기둥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네 가지 정신적 기둥이 있다.
즉 인의예지(仁義禮智) 인지사주(人之四株)다.

서울의 사대문(四大門)에 인의예지(仁義禮智) 사덕(四德)을 배치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이를 설명하면,

동대문(東大門)은 흥인문(興仁門)이다.
=> 인(仁/사랑)을 일으키는 문(門)이다.

서대문(西大門)은 돈의문(敦義門)이다.
=> 의(義/정의)를 두텁게 갈고 닦는 문(門)이다.

남대문(南大門)은 숭례문(崇禮門)이다.
=> 예(禮/예절)를 숭상하는 문(門)이다. (國寶 第1號)

북대문(北大門)은 홍지문(弘智門)이다.

=> 지(智/지혜)를 넓히는 문(門)이다.

우리의 선현(先賢)들이 서울의 사대문(四大門) 이름을 유교의大本(大本)인 인의예지(仁義禮智)로 지은 것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도의국가(道義國家)로서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그러하려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을 갖추어야 한다.

맹자(孟子)는

인(仁)을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 했다.

불쌍한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

의(義)를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 했다.

잘못 되었을 때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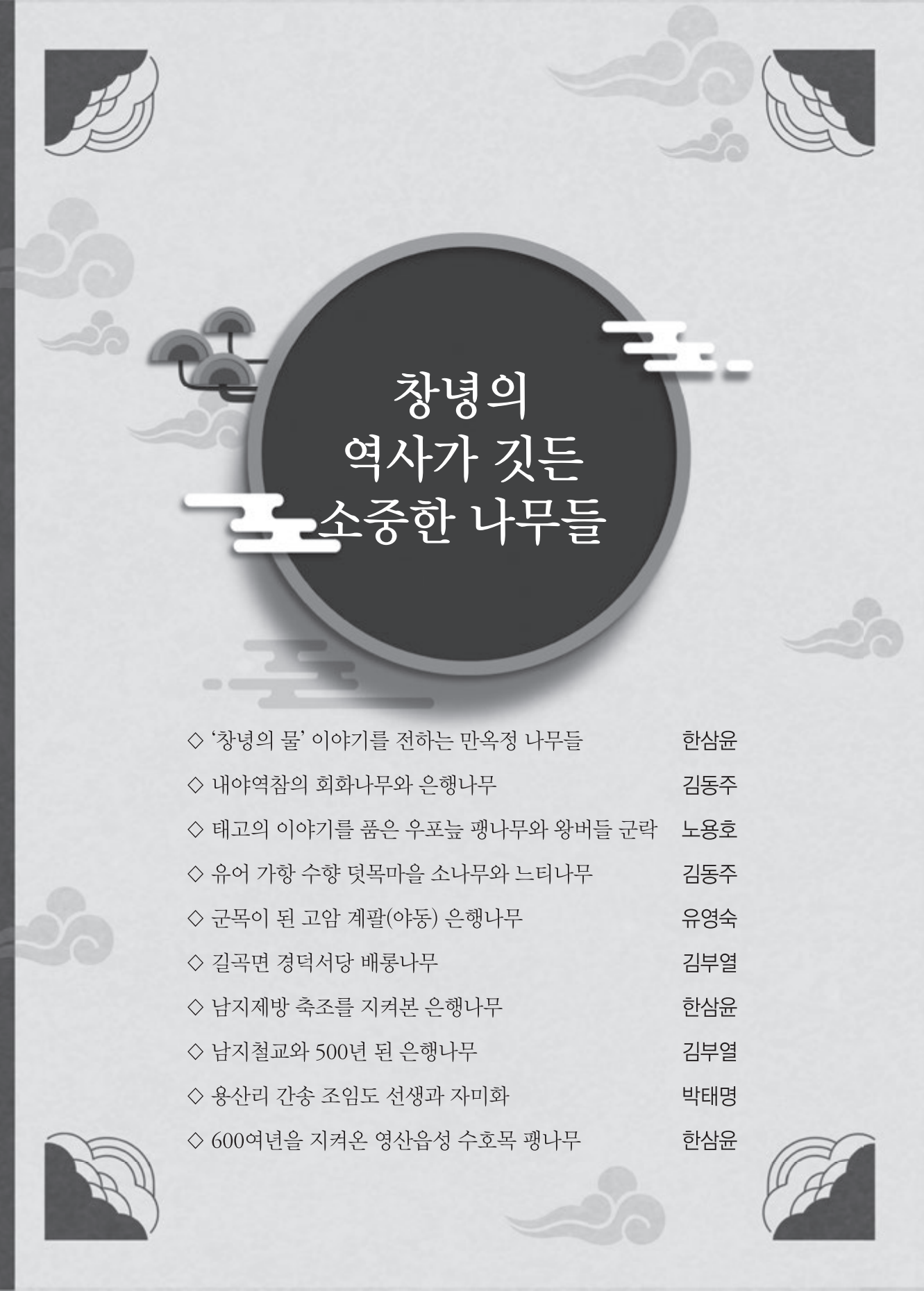
예(禮)를 사양지심(辭讓之心)이라 했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다.

지(智)를 시비지심(是非之心)이 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이다.





창녕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나무들

- | | |
|-------------------------------|-----|
| ◇ ‘창녕의 물’ 이야기를 전하는 만옥정 나무들 | 한삼윤 |
| ◇ 내야역참의 회화나무와 은행나무 | 김동주 |
| ◇ 태고의 이야기를 품은 우포늪 팽나무와 왕버들 군락 | 노용호 |
| ◇ 유어 가항 수향 덧목마을 소나무와 느티나무 | 김동주 |
| ◇ 군목이 된 고암 계팔(야동) 은행나무 | 유영숙 |
| ◇ 길곡면 경덕서당 배롱나무 | 김부열 |
| ◇ 남지제방 축조를 지켜본 은행나무 | 한삼윤 |
| ◇ 남지철교와 500년 된 은행나무 | 김부열 |
| ◇ 용산리 간송 조임도 선생과 자미화 | 박태명 |
| ◇ 600여년을 지켜온 영산읍성 수호목 팽나무 | 한삼윤 |

“창녕의 물” 이야기를 전하는 만옥정 나무들



만옥정(객사)



만옥정 나무들



만옥정 벚나무



만옥정(공원입구)



만옥정(비군)



만옥정 소나무



창녕읍사무소 보호수



창녕경찰서 향나무

만옥정은 옛 창녕현의 동헌이 있던 곳으로 오랜 기간 행정의 중심 센터가 되어 왔다. 지금은 국보33호인 신라진흥왕척경비와 창녕객사, 퇴천3층석탑, 현감비군, UN전승기념비 등 많은 문화재를 품고 있는 창녕읍민의 소규모 공원이다. 1984년 상반기까지 공원입구에 군청사가 있었으며, 지금 그 자리엔 창녕읍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다. 공원 내에는 소나무와 벚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등 갖가지 나무들이 창녕의 오랜 애환과 희로애락의 역사를 말해주며 우뚝 서 있다.

물은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생명수다. 물 없이는 모든 존재들이 단 한 순간도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없다. 창녕은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고질적인 식수난으로 해

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잦은 가뭄에다 식수는 제한 급수가 일상이었고 심지어 빨래할 물조차 없어 가구마다 시내버스를 타고 휴먼지를 마시며 산골짜기를 찾아 해매는 것이 일췌였다. 적어도 이 시절, 창녕

읍내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창녕은 지리적으로 동쪽은 산이 높고 개울의 길이가 짧아서 비가 오면 곧장 흘러 내려가 버려 개울이나 소하천의 물이 쉽게 말라버린다. 그런데 반대로 남서쪽에 자리한 7개 읍면(남지읍, 부곡면, 길곡면, 도천면, 유어면, 대합면, 이방면 등)은 낙동강을 안고 흐르는 저습지 평야이기 때문에 비가 100mm정도만 와도 며칠 동안 물바다가 되었다. ‘사흘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고, 사흘 햇볕이 나면 거북등이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났던 시절이 있었다.

토지는 상당히 비옥하고 농작물은 잘 자랐지만,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농사 짓기가 어려웠다. 그것이 군민들이 겪는 큰 애환이었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먹는 물도 심각한 문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은 풍부한데 사람이 일

상 먹을 물은 없었다. 이전에는 낙동강 물을 그대로 길러다 썼지만 대구 경북지역 등 상류지역의 공업화로 오염되면서 음용수로 쓸 수 없는 형편이었다. 지하수는 거의 안 나오고 간혹 물이 많이 나는 샘을 발견해도 철분이 많아 식수로 부적합하였다. 1990년까지도 1일 두 시간 제한 급수를 하였기 때문에, 주부들이 물을 받기 위해서 마음대로 외출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상수도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설도 불가능하였다.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행정을 원망하는 민원이 많았다. 물 없는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그 때 당시 우리 군에서는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큰 집수 댐이 없었다. 낙동강 물을 인수, 정화해서 쓰고자 역대 행정 책임자들이 창녕, 남지에 상수도 취수시설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농업용

으로 축조한 상월, 노단이, 구계 저수지 물을 농사 비수기에 2~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마침 1995년 밀양댐을 축조해서 그 물을 상수원으로 하여 양산, 밀양 광역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부곡온천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므로 이 지역에도 밀양댐 상수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 하였던 바, 급기야 일일 5천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당시 행정의 총책이셨던 기산(箕山) 김진백(金鎭伯) 전 군수께서는 이에 만족

하지 않고 이왕 부곡에 밀양댐 상수도 물을 공급한다면 군 소재지인 창녕읍과 부곡에서 창녕읍까지 가는 경유지인 영산면 소재지도 급수 구역으로 하여 일일 2만 3천톤의 물을 공급하여 달라고 백방으로 때를 써서 노력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급수계획이 확정되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당시 밀양(댐 상수도 배수지)에서 창녕까지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 상수도 문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전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규정이었다.

1997년 1월 16일부터 밀양댐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을 세웠다. 당시 밀양쪽 시설을 모두 하는데 드는 부담금은 111억원, 우리 군 자체 배관시설과 배수지를 만드는데 131억원, 총 240억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벽찬 규모였다. 그럼에도



창녕읍 전경

불구하고 창녕의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는 모두 기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당시 수도법상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의 배수시설 설치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중소도시는 물을 인수하는 관로, 배수지 등 모든 시설을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수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국 11개 중소도시 시장군수들이 국회를 방문해 수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가뭄(하천물길작업) / 사진 : 하동철



밀양댐 광역상수도 통수에 따른 주민 설명회 / 사진 : 하동철

처음에 시작 할 때는 기채로 시작했지만 결국 마치고 나서는 수도법이 바뀌어서 시설자체 전부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됐다. 우리 창녕군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런 엄청난 대형사업을 해결한 셈이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했는데 2000년 5월 23일 드디어 통수를 하게 되었다. 이날 창

녕군민들은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만대에 걸쳐 먹을 깨끗한 샘물을 확보했다는 기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이와 병행하여, 185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대구권지방상수도과 노단이 상수도, 대합권지방상수도를 각각 개발하고, 간이상수도 수원(水源) 이전과 상수도 노후관도 정비하는 등으로 창녕의 만성적인 물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다들 ‘사람도 먹을 수 없었던 수돗물을 이젠 소도 먹고 있다’고 자랑했다.

상기 사실은 2019년 발행된 기산만보(箕山漫步/김진백 군수 자서전)에 상세히 기록돼 있는 내용이다.

오늘 날 살기 좋은 창녕으로 발돋움 한 이면에는 깨어있는 지도자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는 말 할 것도 없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했던 여러 공직자와 군민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숨은 애환과 비화를 품고 있는 나무들이 군내 곳곳에 우뚝 서 있다. 현재 창녕읍사무소가 위치한 곳은 1984년 이전에는 창녕군청이 자리했고 더 오랜 이전에는 창녕현의 동헌이 있던 곳이다. 이 곳에 창녕읍민의 쉼터인 만옥정이 자리한다. 이 곳에서 있는 나무들은 오늘도 말없는 가운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전한다.

내야역참(內野驛站)의 회화나무와 은행나무 (창녕읍 하리 940)



하리 회화나무

내야역(內野驛) 터 하리 서편의 내야역 터를 일명 도개마당이라 하는데 여기에 술도가(양조장)가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도개마당과는 짝은 술도가(양조장)의 사투리다.

이 나무의 수령을 추정하건데 역참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조선경국대전에 전국의 역참조직을 41역도와 524개의 속역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경국대전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1485년(조선 성종 16)에 편냈다고 하니 만약 그 당시에 내야역(內野驛)에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 수령이 5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나무 수령이 500년이 넘는 나무가 현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당시의 나무라고 추정하기보다는 내야역참이 폐지된 시기가 고종 32년(1895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25년이전에 내야역참(內野驛站)에 자리했던 나무라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내야역은 임



하리 회화나무와 은행나무

간 역사도 간직하고 있으리라 보여진다.

말발굽소리로 요란하던 역은 없어지고, 어느 날 술도가가 생겨 간간히 술 찌꺼기 얻어먹으며 취객들의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에 즐거웠던 한 때를 거치고, 술도가가 사라지고 여름마다 띄약벌에서 일

하던 농부들의 더할 수 없는 힘의 큰 역할을 해왔으리라. 또 삼시나마 6.25의 참화 속에서 밀려드는 피난민의 안식처로도 큰 역할을 했으리라 보여진다.

오늘날의 역이란 기차나 지하철의 정거장을 역이라 한다. 역참이라 함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방의 긴급한 군사정보 및 공공물자의 운송을 위해 설치된 교통통신기관으로 고려 때의 전국 역 규모는 22도에 525곳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40도 540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창녕현의 역원(驛院)편 기록을 보면 현(縣)의 북쪽 7리에 내야역(內野驛)이 있고, 동쪽으로는 대구(大丘)유산역(楡山驛)과 통하는데 4리이고, 서쪽은 초계(草溪) 팔진역(八鎭驛)과 통하는데 5리이고, 남쪽은 영산(靈山) 일문역(一門驛)과 통하는데 25리이고, 북쪽은 현풍(玄風) 쌍산역(雙山驛)과 통하는데

50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역의 규모는 리(吏)가 20명, 노(奴)가 45명, 비(婢)가 56명이며 대마(大馬) 2필, 중마(中馬) 2필, 복마(卜馬) 10필이니 넓은 마당이 필요 했으리라 짐작된다.

역 운영상의 필요 경비 조달을 위해 관둔전(官屯田), 마전(馬田) 등의 토지를 지급하였다고 한다. 역마 또는 역간에 두었던 원(院)이 7개소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단 한 곳도 흔적이 없고, 문헌상으로만 존재 할뿐이다.

1. 서원(西院) 현의 서쪽 3리
 2. 다견원(茶見院) 현북쪽 29리
 3. 적견원(赤見院) 북쪽 25리
 4. 경산원(京山院) 북쪽 9리
 5. 구곡원(仇谷院) 서쪽 25리
 6. 방문원(防文院) 남쪽 15리
 7. 감물창원(甘勿倉院) 서쪽 40리
- 진(津)의 동쪽.

여기서 원(院)이라 함은 조선시

대 역과역 사이에 두었던 출장 관원을 위한 여관을 말함이다. 후일에는 일반 나그네도 이용하였다.

이 나무와 같이 했던 내야역은 내야(內野) 즉 들의 안쪽이라는 뜻이고 이들은 위쪽 도야리 마을앞에서 시작되어 하리앞, 대지면 효정

과 석리를 지나 창산리 앞에서 유어면 대대들과 만나면서 우포늪에 다달아 있는 아주 큰 평야지로서 도야 하리 구간을 '황세만리' 라 하고, 그 아래쪽을 어멀리들이라 부르며 그 아래쪽이 대대들이다.



하리 회화나무와 은행나무

태고의 이야기를 품은 우포늪 팽나무와 왕버들 군락

우포늪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나무들이 있다. 그 중에서 사지마을의 팽나무, 우포늪 징검다리 부근의 왕버들군락, 장재마을의 왕버들군락과 누운 왕버들 나무가 인상적이다.



우포늪 징검다리



사지마을 팽나무



징검다리 왕버들

사지마을 팽나무

사지마을의 팽나무는 우포늪이 시원하게 보이는 곳에 위치한 나무이다.

약 200만명이 보았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주인공 ‘잎싹’은 양계장을 두려움 속에 빠져나와 이 나무 앞에 자유롭게 평화스럽게 펼쳐진 겨울 철새들의 군무(群舞)를 보고 자유를 느꼈다고 한다.

사계절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이 팽나무는 거의 200여 년되었다.

나무도 오래되니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가 된다. 이 나무를 유심히 보면 말이나 소같은 모양을 보여 준다. 또 위에 난 줄기 중의 하나를 관찰하면 마치 양이나 머릿결이 색다른 다른 나라의 사람처럼 보이기

도 한다. 이 나무에게서 관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이 나무 앞에서 우포늪을 보면 두려움과 걱정 속에 도망쳐 나와 자유를 느낀 잎싹 처럼 온갖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날려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두손과 팔을 올리고 나의 두 팔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크게 뛰어 오르며 점프(Jump) 해보자. 크게 외쳐보자. 이 나무처럼 멋진 자유인이 될 것이다.

예~ 자유~ 프리덤(freedom) 프리덤 (freedom) 오 예~

징검다리 부근의 왕버들군락과 수지나무

이곳을 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우포늪 옆 사초군락의 끝부분으로 가서 징검다리 인근에 있는 왕버들군락을 보는 곳ियो

또 하나는 목포제방에서 남쪽 방향으로 300미터 정도 가면 징검다리를 볼 수 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아름답드리 왕버들 군락이 물가를 따라 이어져 있다.

왕버들 주위의 사초군락에서는 자운영, 물억새와 창포, 부들 등의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왕버들을 본 많은 우포늪의 방문객들은 “아아~ 한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너~무 멋지다.” 하고 감탄을 연발한다.

이 왕버들 친구들을 보지 않고서는 우포늪에 왔다고, 가보았다고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포늪을 대표하는 가장 멋진 풍경 중의 하나이다.

가수이자 배우인 수지가 2016년 가을에 우포늪에 영상을 찍기 위해 왔다. 인기 연예인 수지가 우포에

서 영상물을 찍는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니 가을인데 겨울 부츠를 신은 젊은 여자 한 명이 내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수지였다. 수지가 영상물을 촬영한 나무는 수지나무라고도 불린다.

장재마을의 왕버들군락

장재마을의 왕버들군락은 장재마을이 있는 목포의 오른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멋진 왕버들군락은 사계절 내내 이쁘다. 봄에는 봄대로 금빛 색깔의 잎들을 보여주고 겨울에는 있는 그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몸매를 보여준다.

장재리 왕버들



누운 왕버들



목포에 왕버들이 우거진 이유를 물으니 창녕군 공무원인 친구가 이야기해준다. 오래전에 우만 마을 사람이 장작용으로 나무를 심었다. 나무가 크는 몇 년 사이에 장작불을 아궁이에 때던 시대에서 연탄을 사용하던 시대로 넘어가 버렸다. 장작용 나무의 필요성이 적어졌다. 장작용으로 심은 나무들이 수 십년 동안 멋지게 자라서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나무를 베지도 사용하지도 않으니 나무는 더욱 무성하게 크고 커서 멋진 군락을 이루었다. 많은 왕버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내니 바람부는 날이면 마치 무용수들이 자신들만의 모습으로 춤을 추는 형태를 보는 것 같다.

봄이 되면 연하디 연한 연녹색의 아름다운 숲을 이룬다. 솟아나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는 감동을 받는 곳이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감탄하고 멋진 장면을 선물해주니 사진을 찍고 또 찍는다. 자연과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고마운 나무이다.

누운 왕버들 나무

이 나무를 보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나무에 관심이 없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유심히 보는 사람이다.

우포늪에 많은 왕버들 중의 하나라고 지나치는 사람에게 이 나무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 쓰러져 다시 왕성하게 자라는 왕버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쓰러진 나무에 놀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감탄하게 된다.

처음 이 나무를 보면 어? 나무가 왜 이래?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태풍으로 넘어진 나무는 가지가 땅에 닿아서 새로운 큰 가지들을 만들었다. 이는 생명을 향한 버드나무의 열정을 보여주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무의 생명에 대한 열정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칭찬한다.

나무에게 받은 감동을 자신에게 투명하여 열심히 산다면 그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고 위안을 얻고 감사하며 지나갈 수 있는 나무이다.



비밀의 정원 왕버들

비밀의 정원 왕버들 군락

이 나무를 보려면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유어면 세진리 우포늪생태관을 지나 양수장으로 사용하던 시멘트 시설을 지나면 우포늪 사초군락이 시작된다. 사초군락에서 100여미터 정도 가다가 왼쪽을 보면 작은 연못을 만날 수 있고 그 연못 주위에 아름답디 왕버들이 둘러싸고 있다.

다른 한 방법은 징검다리과 사초군락을 지나 부영이 텃 가기 전의 우측 방향에 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작은 연못에 왕버들군락들이 둘러싸고 있다. 왕버들은 주위에 있는 맑은 웅달샘 물속을 지키고 있는데, 그 곳에 우포늪의 요정들이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고요하고 멋진 곳이다.

이 아름다운 곳을 사람들은 비밀의 정원이라 부른다. 비밀의 정원은 그냥 스쳐 지나 갈 수 없는 곳이다. 안 보면 후회할 멋진 곳이다.

유어 가항 수향 덧목마을 소나무와 느티나무



가항 느티나무



가항 소나무

유어 가항리에는 자연마을이 많다. 그 중 가항리가 중심마을로서 덧붙이다. 창녕~합천간 도로의 유어면 등대 마을을 통과하는중 도로 우측의 가항리 표시석을 따라 등대들을 지나면 가항 늪을 만나 늪기를 따라 마을앞에 다달으면 마을길을 포함하여 넓게 펼쳐진 마을 공동시설인 마당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북쪽 가장자리에 그 자태가 아주 아름답게 생긴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고 광장 남쪽가장자리에 느티나무 한 그루 또 광장 서편에도 옛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이 세 그루의 나무가 마당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소나무 곁에는 수향(水鄕)덧목, 이리는 마을을 찬양하는 시비가 아담하게 세워져 소나무와 대화를 나누듯 다정다감해 보인다.

추석앞날 현장을 찾아갔더니 마침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 손녀 인듯한 어린애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오시길래 정중하게 소나무의 수령을 물었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른들 이야기가 당시 100년도 넘는다고 하셨다니 그분 말에 의하면 150여년은 되리라 짐작된다.

덧목(加項)이라는 마을 이름은 정구현감이 창녕현감으로 재임중 이곳에 왔다가 동리 뒤에 있는 고개가 낮은 것을 아쉬워하며, “조금만 고개를 돋우면 큰 인물이 날 곳이다”하였다.

목(項)이란 산 또는 길, 고개 등으로 그 곳이 아니면 지날 수 없을 때 다니는 길목을 목 이라 한다, 옛적에는 이곳 사람들이 이방면으로 또는 창녕읍으로 갈려면 마을 뒤의 이 고개를 지나야 되는 목이다. 이 고개를 좀 더 높혀야 부자마을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뜻으로 고개를 더한다는 말로 더목이 덧목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마을앞 시비의 주인공이신 황우 이준범(?~2004. 1. 24.)선생은 덧목 태생으로 건국대학 국문학과 출신으로 시인이며 아동문학가로 평생 동안 문단에서 활동하신 문학계의 거목이시다.

1961년 시집 황우(黃牛)의 출판을 시작으로 여러 편의 시집과 아동문학을 발표하시면서 문단에 큰 족적을 남기시고 한국 아동문학가협회 상임이사 등 여러 문학단체와 출판업계도 관여하는 등 분주히 사시면서 덧목의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자주 들려 고향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으며 창녕문화원과 창녕문인협회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말년에는 어렵게 사시면서도 창녕문화원에 금 오천만원과 창녕문인협회에 금 삼천만원 등 거금을 쾌척하셔서 고향 발전에 크게 기여 하셨다.

우리 문화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황우문화상을 설립하여 매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원발전에 공이 있는 분께 시상하면서 황우선생의 뜻을 기리고 있다.

황우선생이 평소 고향 덧목을 아끼고 사랑하며 남긴 시비의 내용을 여기 기록한다.

수향(水鄉)덧목

黃牛 李俊凡

역수십리(逆水十里)가
낙안소(落雁沼) 안고 도는
아득한 수향
가향 덧목,

엄(嚴)하지도 야(野)하지도 않게
중용(中庸)에 정좌(正坐)하여
시원하게 앞이 트인 등대들 전망,

당산(堂山)의 가호와
안산(案山)의 자애가 은혜하여.

세세손손이
낙동강 물이 가져다준 비옥에
철 따라 심고 거두어
안분요토(安分樂土)의 향속(鄉俗)이
스스로히 순박 하여라

조금만 마을고개를 돌우면
큰 인물 날거라고
덧뫂(加項)으로 불러온
다정히 감싸 안긴 생활의 터전
수향, 가향덧목.

1995년 9월 24일



〈수향덧목 시비〉

*역수십리(逆水十里) : 낙동강의 흐름은 서쪽에서 동쪽방향인데 반대로 동쪽의 누구
 늪에서 서쪽의 기항늪으로 거슬러 올라 흐르므로 역수라 하고
 그 길이 십여리나 되므로 역수십리라 한다.

*안분요토(安分樂土) : 마음편하고 분수를 지키며 살기 좋은 곳,

군목(郡木)이 된 고암 계팔(야동) 은행나무

창녕군의 군목(郡木)은 은행나무이다. 은행나무를 군목으로 지정(1982.5.15.)한 의미는 ‘바르고 울창한 나무의 자태는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며, 긴 수명은 창녕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 한다.



고암 계팔마을 수령 440년생 은행나무

창녕지방에도 수백년생 은행나무가 웅장한 자태로 성장하고 있다. 고암면 계팔리 야동마을의 은행나무는 440년 수령의 창녕군 보호수(2003.12.30. 지정)로

성재(惺齋) 김립(金立)선생과 한강(寒岡) 정구(鄭逵) 선생이 심었다고 구전(口傳)되어 오고 있다. 선조 13년(1580년) 4월에 창녕현감(縣監)으로 부임하신 한강선생이 이곳 갈동(褐銅)에 계시던 진외종숙(陳外從叔)이신 성재 선생을 틈틈이 문안드렸을 때 함께 심었다고 한다. 긴 세월 두 분 선생의 도덕유풍(道德遺風)을 담고 마을 주민과

함께 해온 소중한 나무로 수고(H) 40m, 수관폭(W) 45m, 가슴높이 둘레가 8.25m로 대목이다.

경향(京鄕) 각지(各地)의 학자와 선비의 쉼터와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하였고, 서흥김씨 문중 재실의 제사상 비용을 2섬의 은행종자로 충당했다고 전해진다.

은행나무는 기나긴 역사만큼이나 다른 나무가 갖지 못하는 태고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 우선 나무를 잘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 속에 독특한 모양을 한 머리카락 굵기의



천연기념물 제59호 문묘 은행나무 유주(乳柱)

10분의 1 정도 되는 다각형의 작디 작은 ‘보석’이 들어 있다. 이것은 수산화칼슘이 주성분인데, 현미경 아래에서 영롱한 빛을 내어 은행나무에 또 하나의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창녕 화왕산 입구 민속가든의 은행나무와 서울 성균관 명륜당에 천연기념물 59호로 지정된 문묘은행나무를 비롯한 몇몇 고목 은행나무에는 ‘유주(乳柱)’라는 특별한 혹이 생기기도 한다. 유주는 모양새가 여인의 유방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공기뿌리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암수가 다른 나무로 진기하게도 수꽃에는 머리와 짧은 수염 같은 끈지

를 가지고 있는 정충이 있다. 그래서 동물의 정충처럼 비록 짧은 거리지만 스스로 움직여서 난자를 찾아갈 수 있는 특별한 나무다.

은행나무는 1목, 1과, 1속, 1종의 암·수 단그루(자웅이주)이며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침엽수이다. 햇볕을 좋아하고 공해에 강하며 열매는 식용, 잎은 혈액순환제(징코민) 약용 원료로 사용된다.



천연기념물 제59호 문묘 은행나무 유주(乳柱)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의 나이가 1,100년이 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에 승려들이 중국에서 씨를 가져와 절 근처에 심은 것이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것을 비롯하여 19그루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은행나무는 불에 잘 타지 않고, 병충해에 강해 오래 살며, 흔히 정자나무와 가로수로 많이 심었다.

양평 용문사(龍門寺)는 신라 선덕여왕 통치 3년 되던 해인 649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심었다는 설과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고 갔는데 그 지팡이가 싹이 나서 은행나무로 자랐다는 설이 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수고(H) 42m, 수관폭(W) 28m, 가슴높이 둘레 14m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은행나무로는 최고령의 노거수이다.

천년동안 8.15 해방과 6.25 전쟁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은행나무에서 소리를 내며 사전 암시를 했다고 한다. 수령 1,100년이지만 실제 나이는 1,500년 정도이고 향후 200년 더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는 1조 7천억이라고 수목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최근에 가로수로 식재한 은행나무 열매 채취로 교통사고 유발 및 고약한 냄새 등으로 은행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암·수 구분은 열매의 모양이나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고 있다.

창녕군의 군목(郡木)인 은행나무의 탄소저감 공기 정화 능력이나 가을철 황금물결의 가로수길이 추억과 낭만의 거리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길곡면 경덕서당 배롱나무



창녕함안보를 지나 길곡면 초입에 들어서면 커다랗게 벽진이씨 세거지 표석이 장승처럼 서있다. 왠지 뭔가 예사롭지 않았다. 1607년(선조 40) 봄 한강(寒岡)정구(鄭逋)와 여헌장현광, 망우(忘憂)곽재우(郭再祐), 외재(畏齋)이후경(李厚慶) 등이 용화산 아래에서 풍류를 즐기고 기록한 것이 『용화산

하동범록(龍華山下同泛錄)』이다. 여기가 외재(畏齋) 이후경(李厚慶) 선생의 후손들 집성촌이었다. 문이 잠겨있어 담 너머로 살펴보니 붉은 배롱나무가 선생의 학덕처럼 은은하게 빛난다.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배롱나무가 본 건물을 에워싸듯 붉은 꽃으로 가지를 편 모습에 이끌려 다시 앞쪽으로 작은 통로가 있었다. 살며시 들어가니 백당 정기헌(白堂 鄭基憲)선생이 쓰신 경덕서당(景德書堂) 편액과 여재헌 편액과 주련도 보인다. 7월 불타는 태양 아래 미풍에 흔들리고 있지만 큰 울림처럼 빛을 발하는 배롱나무를 한참 바라보았다. 자미화(刺微花)라고도 불리며 오래된 절과 고택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은 이유는 무엇일까? 꽃말은 부귀(富貴) 인데 꽃말보다 백일동안 피어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은 아닐까 싶다.

배롱나무는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백일홍나무라고 하며, 나무껍질을 손으로 긁으면 잎이 움직인다고 하여 간즈름나무 또는 간지럼나무라고도 한다. 높이 약 5m이다. 나무껍질은 연한 붉은 갈색이며 얇은 조각으로 떨어지면서 흰 무늬가 생긴다. 작은가지는 네모지고 털이 없다. 새가지는 4개의 능선이 있고 잎이 마주난다. 잎은 타원형이거나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며 길이 2.5~7cm, 너비 2~3cm이다. 겉면에 윤이 나고 뒷면에는 잎맥에 털이 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꽃은 양성화로서 7~9월에 붉은색으로 피고 가지 끝에 원추꽃차례로 달린다. 꽃차례는 길이 10~20cm, 지름 3~4cm이다. 꽃잎은 꽃받침과 더불어 6개로 갈라지고 주름이 많다. 수술은 30~40개로서 가장자리의 6개가 길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삭과(蒴果)로서 타원형이며 10월에 익는다. 보통 6



실이지만 7~8실인 것도 있다. 흰색 꽃이 피는 것을 흰배롱나무(for. alba)라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자란다. 중국 원산이며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꽃은 지혈·소종의 효능이 있어, 한방에서 월경과다·장염·설사 등에 약으로 쓴다. [출처: 두산백과]

배롱나무가 유명한 곳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병산서원이다. 2008년 4월 7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400년, 수고 8m, 둘레 0.85m인 배롱나무를 포함해 약 12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극복하는데 큰 공을 세우

고 후일을 염려하여 『징비록』(懲毖錄)을 남긴 서애 류성룡선생을 배향한 곳에 배롱나무가 지천이다. 여기 길곡면 증산리는 하회마을 병산서원 만큼 승경이 뛰어난 곳은 아니지만, 서애 류성룡선생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위민정치를 한 것처럼 외재 이후경 선생도 국난 극복을 위해 온 몸을 던지셨던 분이다.

외재 이후경 선생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자. 자는 여무(汝懋), 호는 외재(畏齋). 본관은 벽진(碧珍). 엄(嚴)의 아들. 정구(鄭逵)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배웠으며, 학행(學行)이 뛰어나 영남(嶺南)의 명유(名儒)로서 추앙을 받았다. 광해군때 이시발, 김우옹의 추천으로 천거받아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胡亂)에 강화(江華)로 왕을 호종(扈從)하고 돌아와 그 공으로 서울로 돌아와서는 음성현감(陰城縣

監)을 지냈다. 만년에는 성리학을 연구하는 데에 몰두하였으며, 사망 후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추증(追贈) 되었다. 1703년(숙종29) 영산(靈山)의 덕봉서원(德峰書院)에 제향(祭享) 되어 있다.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경덕서당에 보존되고 있다는 『외재집』은 1744년(영조20) 그의 후손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이 문집에는 아들 이도보(李道輔)의 『익암유고』도 함께 실려 있다. 두 사람의 문집을 하나로 묶어 1864년(고종1) 총 82매로 판각하였다. 이후경 부자는 왜란과 호란이라는 국난의 시대를 몸소 겪으며 살았던 인물로 부자의 시문이 함께 실린 문집 판각이 전해 오고 있어 좋은 선례이다. 이 문집은 당시 사대부들의 우국충절 정신과 성리학에 대한 관심과 사회인식, 시국관, 향촌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 향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한다.

열정으로 지난 봄부터 교사신축에 착수하여 거의 완성을 보게 되었으나 아직 미비한 것이 많아 각방면으로 계속 노력중이라는데 현재 학생수는 남녀 50여명이라 하며 강사는 이우만 이무성 양군은 문맹퇴치에 만일이라도 돕자라는 정성으로 아무 보수 없이 열심교수중이라더라’.

위의 기록에서 1920년대 길곡면 증산리에 세워진 한내야학교(大川夜學校)는 낙동강이 있는 마을의 야학교라는 웅대한 기상을 품고 이정화(李禎和)씨가 사재를 털어서 의병을 일으킨 이후경, 이도보선생의 얼을 이어 만들었으리라

생각된다. 혼자의 능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그 다음엔 이민화(李珉和)씨가 이어가고 남녀 50명 아이들의 문맹퇴치를 위해 이우만(이우만) 이우성(이우성) 두사람은 무보수로 열심히 교수하였다는 기사는 길곡(吉谷)이 동네 이름만큼 상스러운 기상이 넘치는 곳이다. 또 1938년 3월 9일에 발행된 부산일보에도 ‘빈궁을 참으며, 학년연장, 자금연출’이라는 기사에서 남지와 영산까지 먼길을 다니며 열심히 배우는 길곡면민의 취학열을 보도하고 있음을 볼 때 역사와 전통을 하루 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남지제방 축조를 지켜본 은행나무



남지철교 보호수 은행나무(낙동강 건너 함안쪽)

창녕 남지의 현안 남지제 축조사업

남지의 최대 현안이었던 남지제 축조사업은 오늘의 남지읍과 창녕군 발전을 있게 한 마중물이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다스리는 치수(治水)사업이다. 창녕은 낙동강을 관통하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조건 속에 해마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그러나 한 지도자의 의지와 열정, 군민의 단합된 역량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성적인 물 문제를 완전 해결했다. 사람은 세월 속에 명멸해 가지만 역사와 숨은 스토리를 머금고 있는 남지제 부근의 나무들은 아직도 말 없는 가운데 그 때의 상황과 진실을 전하고 있다.

당시 군 행정의 수장으로 봉직하셨던 기산 김진백 전 군수께서는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과 애환을 자서전 “箕山漫歩(기산만보/2019년 발간)”를 통해 이렇게 밝히셨다.

남지제방축조사업은 우리 창녕군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남지는

낙동강 변에 자리한 지역 촌락이었으나 1930년경 영남수리가 개간되자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현재는 1만 여명이 거주하는 읍 소재지로 상전벽해의 발전을 구가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잦은 대홍수로 낙동강이 범람할 시 주위는 물바다가 되었고 마을은 외딴 섬으로, 강변 저지대는 물에 잠기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1939년 5월에 마을 주민들은 홍수 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마을 가운데 모래 독을 강을 따라 남북으로 1.6km 정도 쌓았다. 이를 이름 하여 피수대(避水臺)라고 하였다.

정부는 1964년 피수대를 제방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하천구역 법선을 고시하였다. 하폭은 650m로 되었는데 남지 집단마을의 반 정도가 하천구역이 되었다. 남지과출소와 우체국, 정부양곡도정공장, 남지5일시장과 국도5호선 구간이 강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낭패를 당하였다. 토지와 건물 등 매매가 중지되고 주택의 증개축과 보수를 할 수 없게 규제되었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거나 딴 곳으로 이사를 하고자 해도 속수무책이었다. 주민들은 아우성이었다. 피해 주민들은 관계 당국을 상대로 남지 용산제방에서 남송교(도천면 송진제방)에 이르는 구간에 제방을 축조하거나 강의 하폭을 대폭 축소하여 변경 고시하고 강으로 편입되는 토지와 시설물을 현 시가로 보상하고 안전지대로 이주시켜 달라는 민원을 줄기차게 요구 하였다.

창녕군에서도 경남도와 건설교통부에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였다. 그러던 중 창녕군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하폭 650m를 450m로 축소하고 하천 법선을 변경 고시하였다. 그렇다고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제방축조와 이주대책은 계속 현안이 되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

관선과 민선을 합쳐 약 9년 동안 고향 창녕에 재임하셨던 기산 군수께서는 남지제방 축조와 밀양댐광역상수도 사업 등 두 개의 대형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창녕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셨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소요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건설교통부 관계 국장을 찾아 설명하고 예산국회도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관선군수 때인 1990년 초에는 저지대 주민이 언젠가는 안전지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택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남지읍사무소 북쪽 흥포동 중심부 모래밭 10만평을 대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남지읍의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1993년 14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출범 시 추진 할 국정공약사업 목록에 남지 제방축조 사업이 책정

되었다. 따라서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해당부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을 꼭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럼에도 남지제방사업은 김영삼 대통령 5년 임기 중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생각건대 1985년 2월 1일 하폭 변경 고시 때 제방축조와 이주대책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군이 책임진다는 조건을 핑계로 방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하천법선 밖의 토지와 시설물 그리고 영업권 보상자료를 확실히 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였다. 용역결과 토지 123만 9천 제곱미터, 수목 및 농작물 122만 4천 제곱미터, 463세대와 건물 1,999동, 영업권, 이사비, 정착금 등 총 1,045억원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다. 이들 자료를 갖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청와대, 건설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도 없이 방문하여 건의하였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다. 하늘의 도우심인가 2000년 9월 사오마이 태풍으로 남지가 물바다가 되었고 중앙 일간지(동아,조선)에 대서 특필로 보도되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2000년 9월 17일 남지수해지구를 직접 순방하여 주민들을 위로하였고, 그 다음 날 9월 18일에는 이한동 국무총리가 인근 함안군 칠서지역을 순행하였다.

당시 기산 군수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총리 일행이 귀경하려는 헬리콥터 앞에까지 달려가 남지제방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35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질 민원을 이번 기회에 꼭 성사되게 하도록 울먹이면서 읍소하였다.

이 한동 총리께서도 우리 군의 보고서와 감동적인 설명을 듣고 이를 가납하시고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2000년 10월 10일 수해복구 지원 사업 예비비에서 우선 300억원을 배정해 주셨다. 2000년 11월 25일 그 동안 외면하던 건설교통

부도 150억원을 재배정하므로 인해 사업은 본격 시작 되었다.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남지제 축조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해야 할 업무를 지역주민의 편의와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대행하기로 하고, 남지제 추진팀을 구성하여 남지 현지에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045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478세대의 방대한 보상업무, 2,048동의 시설물 철거, 주민이주대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담당 공직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밤낮없이 열성을 다하였고 한 건의 비리나 부조리가 없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은 2005년 종결되고 그 해 7월 준공식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이한동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격려사를 하시면서 김진백 전 군수의 열성의 덕이라고 칭찬해 주셨다.

이제 남지는 낙동강 홍수로부터 방호되고 고층아파트가 우뚝 섰으며 매년 봄에는 유채축제로 전국의 명소가 되어 웃음과 희망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 보조금 1,045억원 중 집행잔액 150억원은 건설교통부의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 남송교 재가설과 상대포에서 남송교에 이르는 계성천 제방보강공사 사업비로 전용하였다.

구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비 8억원은 낙동강 하천부지 상에 축구장 2개(잔디축구장 1면, 모래 축구장 1면) 유채단지 조성, 주차장 건설 등에 재투자 하였다.

낙동강 홍수 방지를 위해서 이후에도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하여 죽전제방, 유어제방, 남지의 월상과 월하제방, 길곡제방, 부곡 학포제방 등등 기존 낙동강의 부실한 제방을 모두 보강했고 배수장 시설 문제는 농림부장관에 건의해서 모두 개수하였다. 또한 근본적으로



남지 제방축조 (전) / 사진 : 하동철



남지 제방축조 (후) / 사진 : 하동철

농사용 용수는 낙동강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조그만 양수장은 큰 가뭄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큰 양수장을 만들어야 했다. 이 일은 농림부에서 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지방에 요구하지 않으면 해 줄 리 없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창녕에서 가장 큰 양수장인 우강양수장과 광산 농업시설양수장, 이 두 사업을 진행했다. 돈으로도 100억에서 200억이나 드는 큰 사업이었다. 이 사업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창녕에는 1년, 2년 비

가 오지 않더라도 낙동강이 마르지 않는 한, 이 두 양수장만 가동이 되면 농업용수가 거뜬히 해결되었다. 2017년 큰 가뭄에도 군 전역이 물 부족 없이 모내기를 마치고 풍년을 구가하였다.

남지제 축조사업과 주변 양 배수 시설 등이 차례로 들어서, 치수와 농업 생활용수 확보가 용이 해 짐으로서, 창녕은 전국에서 치수사업의 가장 모범적인 선진 자치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남지철교와 500년 된 은행나무



남지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다리와 나무가 있다. 남지철교와 그 아래 은행나무이다. 그 나무를 심었다는 간송당 조임도 선생은 함안과 창녕을 대표하는 거유로 학문적 교량 역할을 하였다고 보면, 남지철교는 500년전 예정된 운명적 구조물이 아니었는가 싶다.

오른쪽 그림은 『용화산하동범지도』중 4번째에 해당하는 도판이다. 일명 ‘용하산수도’라고 불리는

데, 1607년(선조40년) 한강(寒岡) 정구(鄭逵),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 선생이 함안의 용화산 아래에서 밧놀이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사실을 1728년에 박상절이 조임도선생의 현손인 조홍엽에게서 『용화산하동범록』에 자신의 선조인 박진영의 기록을 발견하고 『근서용화산하동범록』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후 1744년에는 간송당 조임도 선생이 남긴 8폭의 병풍

을 모사하여 (1) 용화암 (2) 청송사 (3) 도흥보 (4) 내내촌 (5) 경양대 (6) 시우포 (7) 평사면 (8) 창암사 8쪽의 병풍그림을 1744년에야 『용화산하동범지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도판을 보이는 큰 나무는 간송당이 심었다고 후선생이 쓴 <징사간송당유행비>가 남아있는 은행나무로 보인다. 이 은행나무는 합강정과 청송사 그리고 내내촌에 나란히 어떤 위세를 자랑하고 있음은 공자님이 은행나무를 심은 뜻을 좇아가려는 학문하는 자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숨은 뜻이 임금이 불러도 나가지 않은 선비라는 뜻의 징사(徵士)로 불린 남명 조식선생의 뜻을 이어간 것을 기리는 것일까? 아니면 소리없이 세상을 올리는 징처럼 살았던 것일까? [출처 : 김부열, 남지닷컴]

도판과 사진을 비교해보면 남지철교만 추가되었을 뿐 신기하게 500년전 그대로이다.

이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조임도 선생에 대하여 『취산군지』 이사(異事)에 보면 망우당 유희비에 관한 이사와 함께 조간송 사우(祠宇)의 자미화(紫微花 : 백일홍나무, 배롱나무)에 대한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依舊簇立云趙澗松先生祠宇內有紫微花一樹本先生手植而屢世經驗則其宗家運否則其本死幾年間之無枝葉幾年後其家運復則或一邊生芽惑中心出芽依舊簇立云云而(조간송선생사우내 유자미화일수 본선생수식이 누세 경험칙 기종가운불칙 기목사기년 간지 무지엽기년후 기가운복칙 혹 일변생야 혹중심출야 의구족립 운 운이)

조간송 선생님의 사우 안에 자미화(백일홍) 한 나무가 있으니 이는 선생께서 심으신 것이다. 여러 대(代)로 경험한바 그 종가의 운이 쇠(衰)한 즉 그 나무가 말라 죽어서 몇 해고 원 줄기와 가지와 잎이 없어지고 또 몇 년 후 그 집안 운이

돌아 온 즉 그 한쪽에 눈이 뜨고 혹은 중심에서 눈이 나와 옛날처럼 순이 무성하게 자라나더라고 한다.

위 기록처럼 간송 조임도는 유가적 학문 기반에 도가적 기상도 겸비한 학자였다.

조임도는 선조 18년(1585)에 태어나서 현종 5년(1664)에 죽었는데 자는 덕남(德男) 호는 간송으로 본관은 함안이며 입암(立巖) 식(植)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에게 학업을 닦았다. 승정 계유년(1633년) 봄에 기강(岐江 : 지금의 용산리)으로 옮겨왔다고 그가 쓴 「망모암기(望母庵記)」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낙동강변 용화산(龍華山) 기슭에 소정삼간(小亭三間)을 지었는데 그 중 하나는 망모암이라 하였고 그 왼쪽 하나는 사월루(沙月樓)라 하였고 오른쪽 한 칸은 연어대(鰲漁臺)라 하였는데 이를 합하여 합강정사(合江精舍)라 하였는데 여기서 간송은 큰 뜻

을 품고 가차없이 자신을 궁구(窮究)하면서 숨어 살았다.

광해조 때 정인홍이 오랫동안 권세를 잡고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도암(陶庵) 이언적(李彦迪)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하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진계(陳戒)의 소를 올리고 마침내 미움을 받아 기강으로 피신, 몸소 고기를 낚아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한다. 간송은 평소 존모(尊慕)하기를 곽망우(郭忘憂) 정동계(鄭桐溪) 이외재(李畏齋) 문모계(文矛溪) 유수암(柳修巖) 허미수(許眉未) 등 제공(諸公)이었는데 서로 도의풍절(道義風節)이 같았다 한다. 1660년 76세 때 망모암을 지었고, 1664년 2월 15일 향년 80세에 타계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천거로 벼슬이 내리기를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이르렀고, 현종 때 어사 남구만(南九萬)의 서계로 행의(行誼)의 표장과 쌀과 콩을 하사 받았으며, 후에 사후인 1666년 사람들이 행의순영(行議巡營)에 글을 올려 사헌부지평으로 추증되었고 1721

년에 함안 사람들이 상소하여 송정 서원을 세우고 위패를 봉안, 송정 서원(松亭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는 이광정(李光庭)이 서문을 쓴 간송집『澗松集』이 있다.

전해 오기는 임금님께서서 간송의 높은 명성을 듣고 망모암을 찾아왔더라고 한다. 그런데 간송은 짚신을 삼으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임금님을 알았으나 짐짓, “선 빛 얻고 후 빛 갚다니!” 하면서 맞았다. 임금님이 하도 기가 막혀, “낙동강 구구봉(용화산)을 줄까? 낙동강 칠백리를 줄까?” 물었다. 간송은 구구봉을 달라고 하여 용화산을 하사 받았고 그리하여 용화산 구구봉이 함안 조씨의 소유가 되었다고 전한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남지철교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동아일보는 1931년 9월 15일 ‘남지교(남지철교)의 기공식’ 기사를 아래와 같이 실었다. 기사를 요약하면, 경남 창녕, 함안, 마산, 창원 등 각지의



좌) 부산일보 1928년 12월 20일
우) 부산일보 1930년 10월 4일

실업가 및 관민유지 사이에 지방교통 및 산업계발을 위하여 오랫동안 맹렬한 운동을 하였고, 총공사비는 25만원(국고보조, 지방비, 지원민 1/3 부담), 15일 오후 2시에 거행되고, 준공은 1933년 3월말 예정으로 적고 있다.

그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1928년 12월부터 부산일보를 통하여 ‘수출이 성행하는 남지의 발전’이라는 기사에서 보인다. 즉, 1920년 도천수리조합과 1925년 영남수리조합 설치인가 후 그곳에서 생산한 쌀을 마산항으로 연결되는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재조 일본인 대지주 가운데 조선총독부를 움직일 수 있는 神戸(고베) 출신 川崎武之助(가와사키 다케노스케, 천기농장(川崎農場)를 중심으로 정략적 결탁으로 이어졌다.



부산일보 1931년 9월 1일

1930년 10월 4일 기사에는 남지교 건립을 추진한 요체가 창녕군이 아니라 마산상공회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931년 9월 부산일보는 창원군수와 마산상공회장이 ‘산업개발에 획기를 이룬 남지교의 가설’이라는 제목으로 ‘남지교 가설은 마산항의 꿈을 실현할 계획’이라며 ‘쌀의 산지 남지는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고 다리가설로 혜택받을 대발전을 상세히 보도

하고, 마산상공회도 방문하였다. 1933년까지 남지교의 준공 무렵, 1933년 1월 부산일보는 ‘대구에 빼앗은 남지교의 이용가치’ ‘동면상태에 있는 마산상인 분발할 때’라는 제목으로 상권확장과 마산항의 활로를 기사화한 것은 일제가 얼마나 쌀 수탈에 매달렸는가를 알 수 있다. 준공식의 축사에 마산부윤(馬山府尹)과 마산상공회장이 축사를 할 정도였다. 그 결과, 1934년 4월의 기사와 같이 마산항은 남지교의 가설로 인해 엄청난 산업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1934년 4월 2일자 부산일보는 [마산항에 쇄도하는 쌀, 전년동기보다 5만석의 증가] 라는 제목 아래 그 원인은 나락 값 상승과 남지교 완성 전국의 우수 신문과 지방지에서 집중 기사화한 것은 마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임을 증명하고 있다.

남지사람들의 앨범에는 1장이라도 없다면 남지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명절이나 기념일엔 기념사진을 많이 찍어 사진사가 대기해있



사진 : 남지닷컴

을 정도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은 이 남아 있다. 남지를 노래한 대표
남지철교와 은행나무에 추억이 많 적인 시를 읽어 보자.

洛 東 江

아침엔
안개 감돌아 오르고
저녁엔
노을이 피어 잦아 지는 곳

천만년 흐르는
푸른 물줄기
億萬怯 우뚝 솟은
저 절벽

이 언덕
저 들에서
아버지도 살으셨고
할아버지도 살으셨다

내 서 있는 곳
흙냄새 그윽하고
뺨을 스치는 바람
이다지도 화사한고

산이여
들이여
내 이 땅에서 살고 지고
우리 다 함께
여기서 살고 지고

* 강홍운(1909-1999)

시집 [노방초] [노방조후집]

은행(銀杏)나무

낙강 물 위에 그림자를 띄워놓고
흐르는 세월 속에
저처럼 늙었느냐?

풍상에 가지 마냥 꺾이고
거구(巨軀) 텅 비어 거죽만 남아
아롱진 연륜에 새겨진 기록은
비에 씻기고 이슬에 닳여졌다

변천도 무상도 전란의 쓰라림도
이제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바위 위에 꿈틀꿈틀 얽힌 뿌리에
꿈도 맺히고 전설도 깃들었다

* 강홍운(1909-1999)

시집 [노방초] [노방조후집]

남지 철교

그게 그냥 다린가
가슴 뭉클한 그리움이지.

가파른 난간 위로
누군가 두 팔 짝 벌리고,
성큼 성큼 깨금발로
건넜다더라.

어린 눈망울에
까마득히 높아만 보이던
그 엷음쇠 위로
하늘은 눈이 시리게
푸르렀는데.

누가, 참 누가
우리 여리고 소박한
꿈을, 그리움을 난도질 하고
추억의 보금자리
둥지째 들어내는가.

벼락 맞은
지양담 은행나무,

아직도 눈 시퍼렇게 뜨고
손 대려는 자 누군가
옹골차게 지켜보고 있느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철교는 남지다
남지의 텃줄이다
그리움의, 꿈의 우리 엄마다.

우리 모두
말 안해도 알고 있지 않은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느낌만으로 훤히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냥 다리가 아니다
철교는, 남지 철교는.

- 사향인 2004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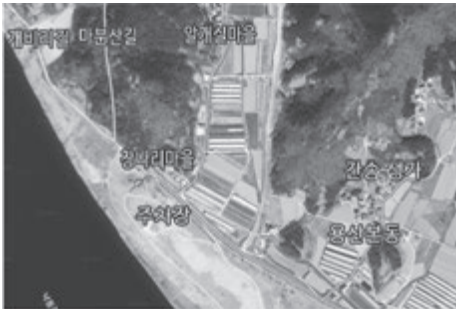
남지교(남지철교) 1931년 착공, 1933년 준공 - 국도 5호선 대구 마산간 교량



남지철교에서 바라본 용화산 능가사 절경 (사진 : 김부열)

용산리 간송(澗松) 조임도(趙壬道)선생과 자미화(紫薇花)¹⁾

축산군지(鷲山郡誌)²⁾ 이사편(異事篇 p625)의 기록을 찾아 창녕군 남지읍 용산 본동길 37-4번지(용산리 447)의 함안 조씨 간송파(咸安趙氏 澗松派) 파조(派祖) 간송(澗松) 조임도(趙壬道) 선생의 사우(祠宇)가 있는 종택(宗宅)을 찾아갔다.



400여년을 종손이 대를 이어오다 6.25 한국전쟁으로 마을이 모두 불탔을 때 모두 소실되었으나 선생의 사우(祠宇)만 건재하여 이상히 여겼다 한다. 종택(宗宅)은 복원하여 14세 종손이 거주하다 수년 전에 서울로 거주를 옮기고 선생의 위패는 아호제³⁾ 사당으로 옮겨 불천위(不遷位)⁴⁾ 제사를 봉행하고 있으나 종택은 인적이 끊어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초만 무성하였다.

위패가 없는 빈 사우는 관리하는 후손이 없으니 칩냉쿨이 담장을 뒤덮고 사우

- 1) 자미화(紫薇花) : 배롱나무를 당나라 장안의 자미성에서 많이 심었기 때문에 중국 이름으로 '자미화(紫薇花)'라고 하는데 백일동안 꽃을 피우므로 백일홍(百日紅) 또는 백일홍나무라고 부르며, 매끈한 나무껍질을 문지르면 간지럼을 탄다하여 '과양수(柏瀟樹)', '간지럼나무'라고도 한다. 본군 남지리에서 박진을 연결하는 지방도 가로수로 붉은 꽃 배롱나무 그리고 도천면 송진1구 가로수는 흰꽃 배롱나무가 7월부터 9월까지 꽃을 피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배롱나무는 천연기념물 제 16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800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다.
- 2) 축산군지(鷲山郡誌) : 昌寧文化院에서 昌寧鄕土史料第九輯으로 2006.11.25. 발행한 창녕현지 축산군지 합책(昌寧縣誌 鷲山郡誌 合冊).
- 3) 아호제(鵝湖齋) : 경남 함안군 대신면 구암4길 194-2번지(장암리 산 60-21)에 위치하는 함안조씨 재실. 아호제 뒷산에는 선생의 부모와 선생과 두 부인의 묘가 있으며, 함안군에서 합강정에 보관되어 오던 간송문집 책판과 금라전언록 책판을 보관하기 위하여 아호제 곁에 책판서고를 지었으나 완벽하게 보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책판을 함안박물관으로 옮겨서 보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어 있는 서고는 용산리 사우에 모셔져 있던 간송 선생과 부인 벽진이씨와 안악이씨의 위패를 이곳으로 옮겨서 모시는 사우로 사용하고 있다.
- 4) 불천위(不遷位) : 일반적으로 조상의 기제사(忌祭祀)는 4대까지만 봉사하고 5대부터는 혼백을 무덤에 묻고 묘사의 대상으로만 하는데, 불천위는 그 자손들이 있는 한 분묘와는 별도로 사당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라에서 정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유럽에서 정한 유럽불천위(儒林不遷位) 문중에서 정한 사불천위(私不遷位)가 있으며, 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럽과 사불천위에 속한다. 불천위와 그에 대한 제사는 국가나 유럽, 문중에서 정하는 공훈이 있는 훌륭한 사람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훌륭한 조상은 살아 있을 때의 지위에 따라 죽어서도 특별대우의 영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중 성원들의 단결과 동질감을 강화시켜 주고 위세와 우월감을 가지게 한다.



선생의 사우(祠宇)

뒤편의 팽나무를 꼭지까지 뒤덮고 있다.

굵은 가지가 앞도 없이 앙상하게 말라 죽고 겨우 팽나무 정수리에만 듦성듬성 있는 푸른 잎이 무정한 세상사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선생은 34세(1618. 광해10년) 때 폐모론(廢母論)⁵⁾이 일어나자 “신자(臣子)로

서 대비를 폐출(廢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로 인하여 정인홍(鄭仁弘)⁶⁾을 비롯한 대북파의 미움을 받게 되자 이들의 세력을 피하여, 가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검암에서 내내(奈內)⁷⁾로 피신하여 상봉정(翔鳳亭)⁸⁾을 짓고 살면서 몸소 고기를 낚아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공양과 모심에 효성을 다하여 백효(伯孝)로 칭송받으셨다.

선생은 생육신(生六臣)⁹⁾의 한 분이신 어계(漁溪) 조여(趙旅, 吏曹判書 追贈)의 6세손으로 선조 18년(1585)에 검암(儉巖)¹⁰⁾에서 사도사 첨정(司導寺 僉正) 입암(立巖) 식(植)의 아들로 출생하여 8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친을 따라

-
- 5) 폐모론(廢母論) : 광해군 5(1613년)년 대왕대비인 인목왕후를 폐하자는 논의. 인목왕후는 경운궁에서 서궁으로 옮기고 대비 호칭을 폐하는 선에서 종결되었으나 후일 인조반정으로 인목대비는 복호되고 광해는 폐위된다.
 - 6) 정인홍(鄭仁弘) :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來庵), 본관은 서산(瑞山)으로, 1535년 함천에서 출생.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수제자. 임진왜란 때는 58세 고령에 직접 의병을 일으켜 충의(忠義)를 실천하였으며 광해군 즉위의 일등공신으로 우의정에 이어 영의정으로 대북의 영수로서 1품(品)의 관직을 지닌 채 고향 함천에 기거하다 인조반정으로 참형되고 가산이 적몰(籍沒)되었다. 1908년 4월 30일 관직이 회복되어 신원(伸冤) 되었다.
 - 7) 내내(奈內) 함안군 칠서면 내내리로 지금의 남지철교 앞 능가사 일대의 마을
 - 8) 상봉정(翔鳳亭) 함안군 칠서면 내내리 능가사의 남서쪽의 산자락에 간송이 지은 정자 이름. 상봉정 유허지(遺墟地) 풋말이 있었으나 찾을 수 없음. 함강정 중수 때에 함강정으로 옮겨 지었다고 한다.
 - 9) 생육신(生六臣) : 1455년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여 세조로 즉위하자 단종 복위를 계획하다가 모진 고문으로 죽임을 당한 성삼문, 박팽년, 허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6명을 사육신(死六臣), 죽지는 안았지만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사는 이맹전, 남효온, 김시습, 조여, 원호, 성담수를 생육신(生六臣)이라 함.
 - 10) 검암(儉巖) : 지금의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종택의 살림집



종택의 사랑채

경북 봉화로 피난하여 퇴계의 재전제자(再傳弟子)인 반천(槃泉) 김중청(金中淸)과 의성(義城)에 사는 두곡(杜谷) 고응척(高應陟)에게 학문을 배우고, 17세(1601) 때는 경북 인동(仁同)에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¹¹⁾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여 20세에 향시(鄕試)에 합격했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셨다.

선생은 용화산(龍華山)¹²⁾ 동편 끝인 내내(奈內) 상봉정(翔鳳亭)에 살면서 용화산 서편 끝 아호제 뒷산에 부친의 묘소를 모셔 놓고 바라볼 수가 없어 안타까워 애를 태우다가 49세 되던 1633(인조11년, 癸酉)년 봄에 홀어머님을 모시고 부친의 묘소를 바라볼 수 있는 창녕군 남지읍 용산마을로 이사를 와서 생가 옆에 망모암(望慕庵)¹³⁾을 짓고, 가을에 낙동강 건너 용화산 아호(鵝湖)에 합강정(合江亭)¹⁴⁾을

11) 장현광(張顯光1554~1637) : 경상도 인동부 인의방에서 출생. 호는 여헌(旅軒). 영남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퇴계학을 공부하였으며, 간송 조임도의 스승으로 학문은 지행병진(知行并進)으로 학문의 길은 앞과 행함에 있다고 강조하는데 특징이 있다. 간송은 스승인 장현광으로부터 퇴계학을 배움으로서 스스로 퇴계문인임을 밝히고 있다.

12)용화산(龍華山) :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서 대산면에 이르는 낙동강을 따라 있는 해발 193.5m 99봉에 9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전하는 산. 남지읍의 남측 정면의 낙동강에 붙어 있는 산.

13)망모암(望慕庵) : 간송 선생이 남지읍 용산마을로 이사와 선고(先考)를 사모하여 살림집 동편에 선고의 묘가 보이는 곳에 지은 정자 이름. 선생은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바라보기 위해서'라고 간송집에 밝히고 있다. 선생 사후에 망모암 뒤편에 선생의 사우를 마련했다.

14)합강정(合江亭) 선생이 은거하며 수학하던 곳으로, 49세(인조11년.1633) 봄에 내내(奈內)에서 기강(岐江지금의 용산리)으로 옮겨와 살 때, 용산마을에서 마주 보이는 강 건너 용화산 기슭 함안군 장암리 장포 산60-1의 현 위치에 왼쪽에 사월루(沙月樓) 오른쪽에 연어대(鰲漁臺) 등 소정삼간(小亭三間)을 지어 합강정사(合江精舍)라 현관하고 은거(隱居)하였다고 암모암기(望慕巖記)에 전한다. 정사(精舍)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와가건물(木造瓦家建物)이며 이곳에 간송문집 및 금라전신록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함안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합강정은 1924년과 1937년에 중수(重修)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었다고 간송집(澗松輯)에 전하고 있다.

선생은 퇴계학을 공부하였으나 23세에 남명의 제자인 래암 정인홍의 문인인 이 흘(李屹)의 따님과 혼례하여 퇴계학과와 남명학과의 융화를 위하여 평생을 노력한 대표적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선생은 인조12년 50세에 공릉참봉(恭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불취(不就)하고, 남명을 배향(配享)한 신산서원(新山書院)¹⁵⁾의 원장을 맡았다. 남명학의 후학에 원장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던 것을 유림의 여러 선비들의 추대로 선생이 원장을 맡았음은 퇴계학을 공부한 선생이 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당시의 강우지방(江右地方)에서 선생의 학문적 명망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인조25년 대군사부(大君師傅)에, 현종 1년에 공조좌랑(工曹佐郎)에 제수되었으나 불취(不就)하였으며, 문집으로 『간송집(澗松集)』이 있으며, 함안지역에서

배출된 인물의 전기와 업적을 수록한 『금라전언록(金羅傳言錄)』을 저술하였다.

현종 5년(1664년) 향년 80세로 용산 자택에서 고종(考終) 하셨다.

1666년(현종7년)에 통선랑 사헌부지평(通善郎 司憲府持平)으로 추증(追贈)되었고, 1721년 송정서원(松亭書院)¹⁶⁾을 건립하여 간송을 향사(享祀) 하셨다. 후손들은 선생을 함안조씨 간송파 파조(派祖)로 송조(崇祖)하고 불천위(不遷位) 제사를 모시고 있다.

선생은 창녕군의 입향조(入鄕祖)로 선조, 광해, 인조, 효종, 현종까지 5왕조를 거치면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합강정(合江亭)에서 학문 탐구와 저술 활동을 하신 큰 학자이시다.

선생에 대하여 축산군지(鷺山郡誌)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축산군지(鷺山郡誌) 이사편(異事篇)에 선생의 자미화(紫薇花 배롱나무)에 대한 기록에,

15)신산서원(新山書院) : 산해정(山海亭)은 1530년(중종 25)에 남명 조식 선생이 학문에 정진하면서 제자들을 강학하기 위하여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에 건립한 누정이다. 신산서원(新山書院)은 조식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이 산해정 옆에 창건한 서원으로 임란 때 소실과 서원 철폐로 훼손되었으나 지금은 복원과 중건을 거쳐 한 건물이 되었으며, 남명과 송계 선생을 병향하고 있다.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125호로 지정되어 있다.

16)송정서원(松亭書院) : 1721년(경종 1) 간송(澗松) 선생을 향사하기 위해 창건된 서원이다.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된 후 복원되지 않았으며 서원터에 유희비가 건립되어 있다.

『趙潤松先生 祠宇內 有紫薇花一樹 本先生手植而 屢世經驗則 其宗家 運否則 其木死幾年間之 無枝葉幾 年後 其家運復則 或一邊生芽 或中 心出芽 依舊簇立 云云而』

「조간송선생사우내 유자미화일수 본 선생수식이 누세경험칙 기종가운불 칙 기목사기년간지 무지엽기년후 기 가운복칙 흑일변생아 흑중심출아 의 구축립 운운이」

“조간송선생 사당 안에는 선생이 손수 심은 자미화(紫薇花) 한 그루가 있는데 여러 대를 거쳐 경험해보니, 선생의 종가 가운데가 쇠하면 자미화는 몇 해고 가지도 나지 않고 잎도 나지 않고 죽은 듯이 있다가, 종가에 운세가 돌아오면 자미화는 새싹이 나고 흑은 중심에 주간(柱幹)이 나서 옛날과 같이 울창해지면 종가도 옛날과 같이 번창하더라.”라고 기록으로 전한다.

간송집 권2 시편(詩編 p140)과 축산군지(鷲山郡誌 p643)에 『龍山一樹紫薇花 花外茅檐是我家 只爲松楸長入望 非無勝地寄生涯』

「용산일수자미화. 화외모첨시아가 지 위송추장입망. 비무승지기생애」



선생이 심은 400년 수령의 자미화

‘용산에 한 그루 자미화, 자미화 앞에 초가집이 내 집이다. 장차 소나무와 오동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을 보고자 좋은 땅이 없지 않으나 여기서 살아간다.’라고 하였다.

축산군지(鷲山郡誌 p641) 옥천동(玉川洞) 제하(題下)에 『溪流如玉石如杯水 弄潺湲坐濯纓 安得移家專一壑 薜蘿烟月送餘生』

「계류여옥석여평 수롱잔원좌탁영 안득이가전일학 벽라연월송여생」

‘흐르는 개천은 옥같이 맑고 돌관은 바둑판처럼 편평하네. 잔잔히 흐르는 물에 장난치며 앉아서 갓끈을 씻노라. 오로지 편히 살고자 이 골짜기로 이사했으니 태

평한 세월에 자연과 더불어 남은 생을 보 내리라'

간송과 종중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불천위 제사를 모실 때는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강가로 선생을 모시러 나가면 선생이 타고 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현재 용산리 생가의 망모암(望慕庵)은 빈터로 남아 잡초만 무성하고, 아래채와 살림집은 인적이 끊어져 400년 세월을 이어온 선생의 자취들이 사라지는 느낌에 안타깝다. 자미화가 거목(巨木)으로 성장하여 선생의 음덕(蔭德)이 종택과 이 땅에 고루 미치기를 기원해 본다.



살림집 뒤 지붕 위로 보이는 자미화

600여년을 지켜온 영산읍성 수호목 팽나무

영산면 성내리 553-1번지에 영산읍성 책실이 있다. 책실은 책을 모아두는 곳이면서 옛 영산 고을원의 자제가 공부하는 공간이다. 영산읍성지 내에 위치한다. 조선시대에 건축한 것으로 전해지나 건물의 원형이 변형되고 기록이 없어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다. 행정에서 옛 형태를 짐작하여 2010년 4

월부터 11월까지 정면 3칸, 측면1칸의 맞배지붕 삼량가로 보수했다. 면적은 21.87㎡이다.

책실 옆에는 수령이 674여년이 되는 군내 가장 오래된 창녕군 보호수 팽나무가 서 있어 운치를 더한다. 바로 부근에 영산천도교당이 있다.



성내리 팽나무

옛 영산현의 역사를 간직하며 읍성을 수호하고 있는 신령스런 팽나무는 창녕과 영산의 보배다. 나무가 지키고 있는 책실은 한때 문호장 포교당으로 사용되었지만, 문호장 사당이 옮겨가면서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이다.

영산읍성은 조선시대 영산현의 치소(治所)로, 지금의 영산면 성내리 일대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읍성의 평면 형태는 북쪽 가장 높은 곳에 ‘태자각’이라는 산신당을 두고 있으며 읍성이 그 신당을 감싸는 형상으로 남북으로 긴 오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책실은 읍성 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T자형 도로의 좌측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 책실 앞마당에는 우물 1기가 있고

책실 주변에는 ब्ल록조의 건물들이 애워 싸고 있다. 조선시대 관아 건물인 내아, 향청, 동헌 등의 건물 및 건물지가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읍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약 1.3km, 성벽 높이 4m 정도로서 임진왜란 시 의병장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수축한 것으로 전한다. 구전되기로는 가야 또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성이라 하며, 남아있는 100m 정도의 석축이 조형석과 자연석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석의 축조는 신라 이전의 것으로 추증된다.

성내리는 조선시대부터 개시되어온 5일장(5일, 10일) 상거래의 군 남부지역 중심지로 지금은 많이 쇠락했지만 옛 명성의 명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성의 안팎에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성 안 50~60호, 성 밖 150호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성내리에는 영산초등학교, 영산여중과 영산여고 등이 있다.



영산읍성(사진 : 하동철)



영산 천도교당

성내리(城內里)와 접경을 이루는 마을이 교리(校里)다. 교리는 영산향교가 있는 마을이다. 성내리와 교리를 잇는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를 ‘유다리(儒橋)’라고 불렀다. 영산 성내리 영산시장 뒤편 100m지점에 위치한다. 옛 객사터의 동쪽으로, 향교에서 흘러내린 시내가 구계천과 합류하는데 이 시내를 연결하는 소 교량이다. 이 다리는 향교의 유림들이 많이 왕래하는 다리라 해서 ‘유다리’라 한다. 다리는 교류와 소통의 상징이다. 작은 만년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금은 복개가 되어 묻혀있고 지상에 표지석만 남아있는 상태이나 무

지개처럼 작은 돌을 맞대어 월형으로 만든 상징적인 문화유산인 만큼 복원이 절실하다.

영산은 매년 3.1민속문화제가 열리는 지역으로 임진왜란과 일제식민지 3.1독립운동, 6.25한국전쟁 등 국가적 위난이 있을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나 맞서 싸운 호국충절의 얼이 서린 고장이다. 선조들의 애국정신과 긍지를 오늘날까지 잘 이어가고 있다.

영산은 옛 가야의 소읍국가로 신라 때는 서화현, 상락현 등으로 존재했던 유서 깊은 고장이다. 유감스럽게도 가야 때의 나라이름은 남겨져 있지 않았으나 그 역사의 깊음을 말해주는 고분과 유적들이 지역 곳곳에 즐비하다.

영산면의 모양은 동쪽 구계리에서 서쪽 월령리까지 동서의 길이가 9km가량 되고, 남북의 폭이 좁은 형태인데 이것은 옛날 현(縣)의 정치를 고루 펴기 위해 가급적이면

현내 모든 면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산(靈山)’이란 지명은 ‘삼국사기지리지’에 처음 등장하며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영산을 수호하고 있는 진산은 영축산(靈鷲山, 681.3m)과 함박산(芍藥山, 501m)이다. 특히 영축산은 인도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던 산의 이름과 같으며, 양산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과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영축산(靈鷲山)’의 ‘축(鷲)’은 본래 독수리 ‘취’로 읽지만 불가에선 일반적으로 ‘축’으로 읽는다. 양산에 있는 영축산도 영취산, 취서산으로 읽히다가 2001년 ‘영축산’으로 명칭을 통일시켰다고 한다.

영축산 기슭에는 법화사 등 많은 유명 사찰이 있다. 당시 불교가 그

만큼 성행했음을 보여준다. 부처님이 불교의 진수를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법을 하셨다. 그 중 ‘영산회상거엄화(靈山會上舉拈華)’란 말이 전해진다. 말을 통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뜻하는 ‘염화미소(拈華微笑)’의 유래가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고대의 마가다국에 있는 영축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부처님이 그 중 연꽃송이 하나를 들어 보이자 모두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마하가섭’이란 제자만이 그 뜻을 알아채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이에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문자나 교리가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교외별전(敎外別傳)’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말도 여기서 유래하였다.

이 곳 성내리는 영산시장통의 중심터전이었다. 문화행사나 정기 5일장마다 전국의 각설이들이 모여 들었다. 그 중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자주 들렀는데 한 가지 잊혀 지지 않는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각설이들이 하는 노랫말 가운데 ‘명텡구리’라는 노래가 있었다. 옛 양산 통도사 경허 선사께서 자주 범문하고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걸 옮겨본다.

명텡구리 명텡구리 모두 모두가 명텡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 누나

그것도 저것도 명텡구리 명텡구리
올 때는 빈 손에 왔으면서 갈 때는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 누나

그것도 저것도 명텡구리 명텡구리

백년도 못사는 그 인생이 천만년 죽지를 앓을 것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 구나

그것도 저것도 명텡구리 명텡구리

세상에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에 모든 걸 안다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구나

그것도 저것도 명텡구리 명텡구리
명텡구리 명텡구리 모두모두가 명텡구리

그 당시 민초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 생존에 급급하다보니 인생 무상을 잊어버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집착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예나 별 다름없이 자기 자신을 잊고 산다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곱씹은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 행정의 중심지였던 성내리 팽나무는 영산의 오랜 생활사와 역사를 말해 준다. 영산의 신령스런 오랜 역사가 창녕의 역사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오랜 노거수 아래엔 평소 약속이나 한 듯 밤낮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일상에 지친 촌로들

이 밭을 갈다 쪼갠 수박을 들고 한 낮의 더위를 피해가고 나면 한 여름 더위에 주눅이 든 노인들이 다녀가곤 했다. 또한 해가 질 무렵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며 소란을 떨었던 곳이다. 이런 저런 연유로 여름날 밤 동네 아

낙네들이 밤 마실 나갈 때 모이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창녕군내 최고 수령을 자랑하는 이런 거목이 책실과 함께 우뚝 서 있음은 살아 있는 영산의 자랑이다.



영산 유다리(사진 : 최완규)



영산 유다리 표지석



영산 만년교(보물 제564호)





수상 소식

- ◇ 2022년 경상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부곡농협 가마골 풍물단 최우수상 수상
- ◇ 2022년 제4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구계목도 최우수상 수상
- ◇ 제22회 황우문화상 수상

2022년 경상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부곡농협 가마골 풍물단」 최우수상 수상



- 일 시 : 2022. 9. 28 (수) 09:00 ~ 17:00
- 장 소 : 의령 서동생활공원 다목적구장
- 대 상 : 경남 시·군 문화원 20개팀 / 1,000여명

부곡농협 가마골 풍물단 소개

부곡 농협 가마골 풍물단은 2001년도에 창단되어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오랜 기간 소규모 활동을 해오다 현재는 김종목 회장 외 6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곡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순수 아마추어 팀으로 지역문화계승과 각종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문화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으나 새로운 강사진을 구성하여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20여명의 아랑장구 교실도 병행하며, 최고의 실력을 갖춘 창녕군 최고의 단체입니다.

2022년 제41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구계목도」 최우수상 수상



- 2022년 11월 11일 ~ 12일 (2일간) 창녕공설운동장에서 경남민속예술축제가 문화원 주관으로 열려 11개 경연팀과 1개 시연팀이 참여하여 창녕 대표로 출전한 '구계목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

구계목도 소개

구계에서는 원시적 운반노동의 한 방법인 '목도질'을 조상 대대로 이어왔다.

목도질은 무거운 목재나 석재를 운반하는 노동이다. 이때 옮기려는 목·석재의 크기에 따라 2·4·8·16명이 짝이 되어 운반한다. 그리고 목도질의 무사안전과 일의 능률을 위해 '목도질소리'가 곁들여진다.

구계에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도 사찰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관을 짜거나 저수지를 만들거나 돌담을 쌓을 때 목도질과 목도질소리를 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와 교통의 발달로 대규모 노동보다는 소규모 노동으로 소소하게 이어왔다. 그렇게 목도질이라는 운반노동은 점차 사라지는 듯 하다가 이를 안타까이 여겨 1994년 제33회 <3·1 민속문화제> 참가를 기점으로 현재는 놀이화하여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22회 황우문화상 수상



수상 자격

군민 또는 출향인사로서 덕망 있고 문화 창달에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 또는 단체

• 수 상 자 : 한삼윤 (창녕문화원 부원장 겸 향토사연구소장)

• 공적내용

- 문화원 이사,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소장 재임 중.
- 창녕문화 창달에 기여.
- 창녕문화지, 근대문화유산총람,
스토리텔링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이야기' (1천권) 등 발간
- 한국문화원 발간 월간 '우리문화지' 창녕문화자원 소개
【경남의 톨아보기 (창녕) 5회 연재】
- 창녕신문을 통한 창녕문화재 홍보 강화.
- 창녕 교육지원청 '창녕교육 증보판' 발간 기여.
- 창녕군내 중,고교 학생대상 우리문화 강의 및 책자 배포.
- 창녕문화원 각종 문화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적극 참여.

2023년 창녕문화원 주요활동계획

일시	사업명	장소	내용
1월	제1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2월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문화원	한문, 한국무용, 서예, 민요, 요가,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사진, 건강체조, 시조창, 바둑, 다도, 파크골프
	계묘년 설 합동 세배회	본관 3층 대강당	기관 및 사회단체, 문화원 고문 및 임원, 부설단체, 회원 등 300명 참석 1부- 합동 세배회 2부(웃놀이 13개 단체참여)
	제2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제70차 창녕문화원 정기총회	본관 3층 대강당	문화원회원 및 기관단체 참석 400여명
3월	문화학교 개강	별관 2층 강당	한문, 한국무용, 서예, 민요, 요가,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시조창, 바둑, 사진, 다도, 파크골프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부설단체 및 분원장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부설단체장, 분원장
4월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국내유적지	전 회원
5월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복지시설	부설단체 참여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시조창)
6월	2023 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 경남지역 오디션		부설단체 참여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우포농협 마을축제 및 한마음대회		부설단체 참여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대상 :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일시	사 업 명	장 소	내 용
7월	부설단체 동아리회원 현장학습		동아리회원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제3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복지시설	부설단체 참여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시조창)
8월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9월	2023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참가	서울	경남오디션 본선 진출팀
	2023 실버문화페스티벌 “어른이 행복 무대”	서울 어린이대공원 특설무대	부설단체 2팀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대회 참가	미정	참가 농악팀 임원 및 향토사연구위원 참여
10월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전 회원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및 연구위원 40여명
	비사별 문화제 동아리 참여	젊음의 광장	색소폰, 민요, 난타,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시조창 참여
	제4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제3차 향토사연구위원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11월	제17회 경남도지사배 경상도사투리 말하기 대회	경남문화원연합회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문화 나눔 봉사공연	관내	부설단체 참여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시조창)
12월	제5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제11호 창녕문화보, 제43호 창녕문화 발행	우편발송	전 회원 및 기관단체
	창녕문화원 “문화의 날” 행사	본관 3층 대강당	부설단체 공연 회원 200여명 참석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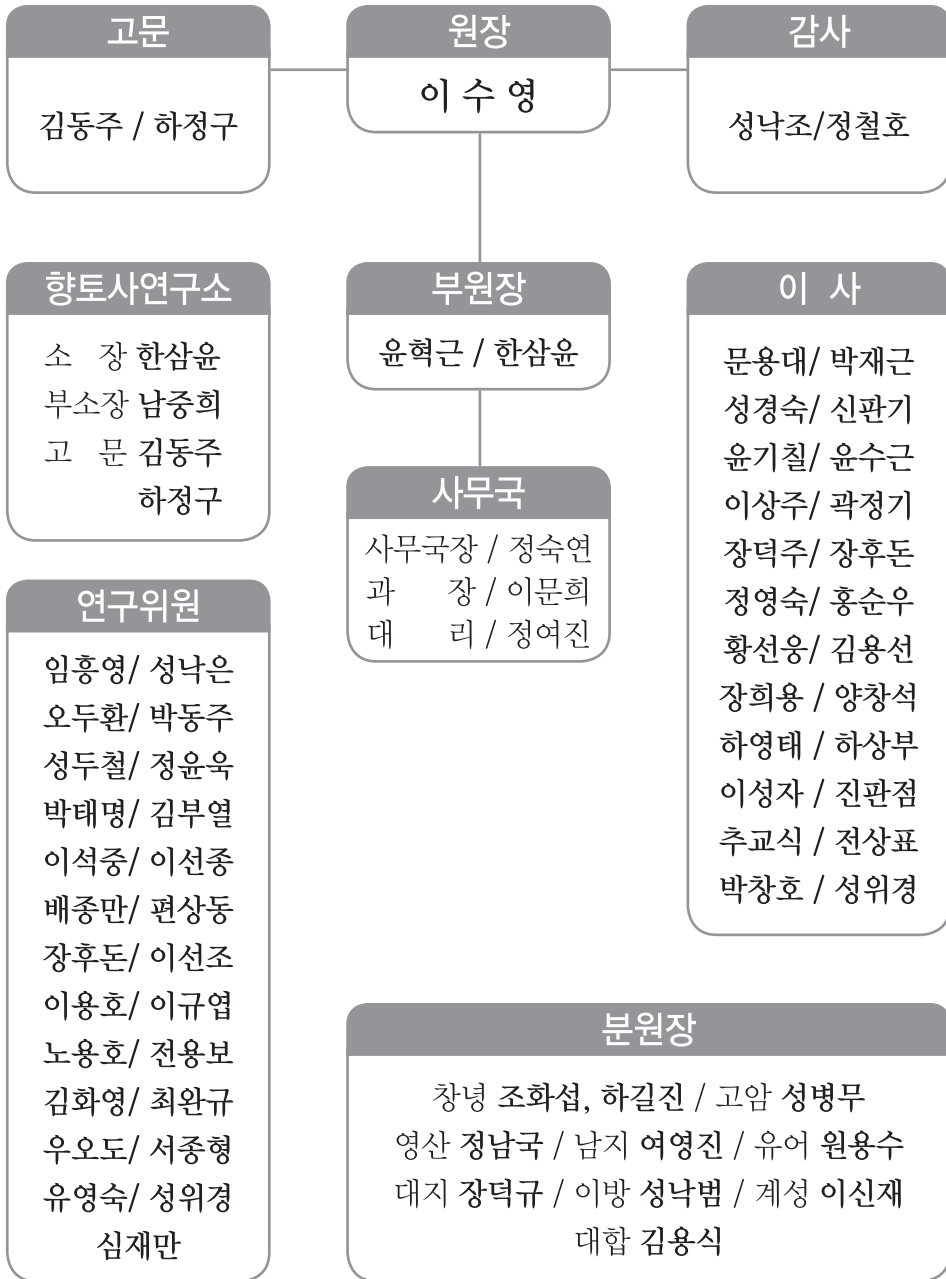
연번	강좌명	요일	시간	장소(별관)
1	시조창	월	10시~12시	3층 2강의실
2	바둑교실	월	10시~12시	4층 문화사랑방
3	요가	월	19시~21시	2층 강당
4	색소폰(중급)	화	10시~12시	2층 강당
5	서예	화	14시~16시	본관 2층 서도회
6	건강체조	수	10시~12시	2층 강당
7	한문	수	10시~12시	3층 2강의실
8	민요	수	14시~16시	2층 강당
9	댄스스포츠	수	19시~21시	2층 강당
10	색소폰(초급)	목	10시~12시	2층 강당
11	한국무용	금	10시~12시	2층 강당
13	난타	금	19시~21시	2층 강당
14	사진			3층 1강의실
15	다도			4층 문화사랑방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수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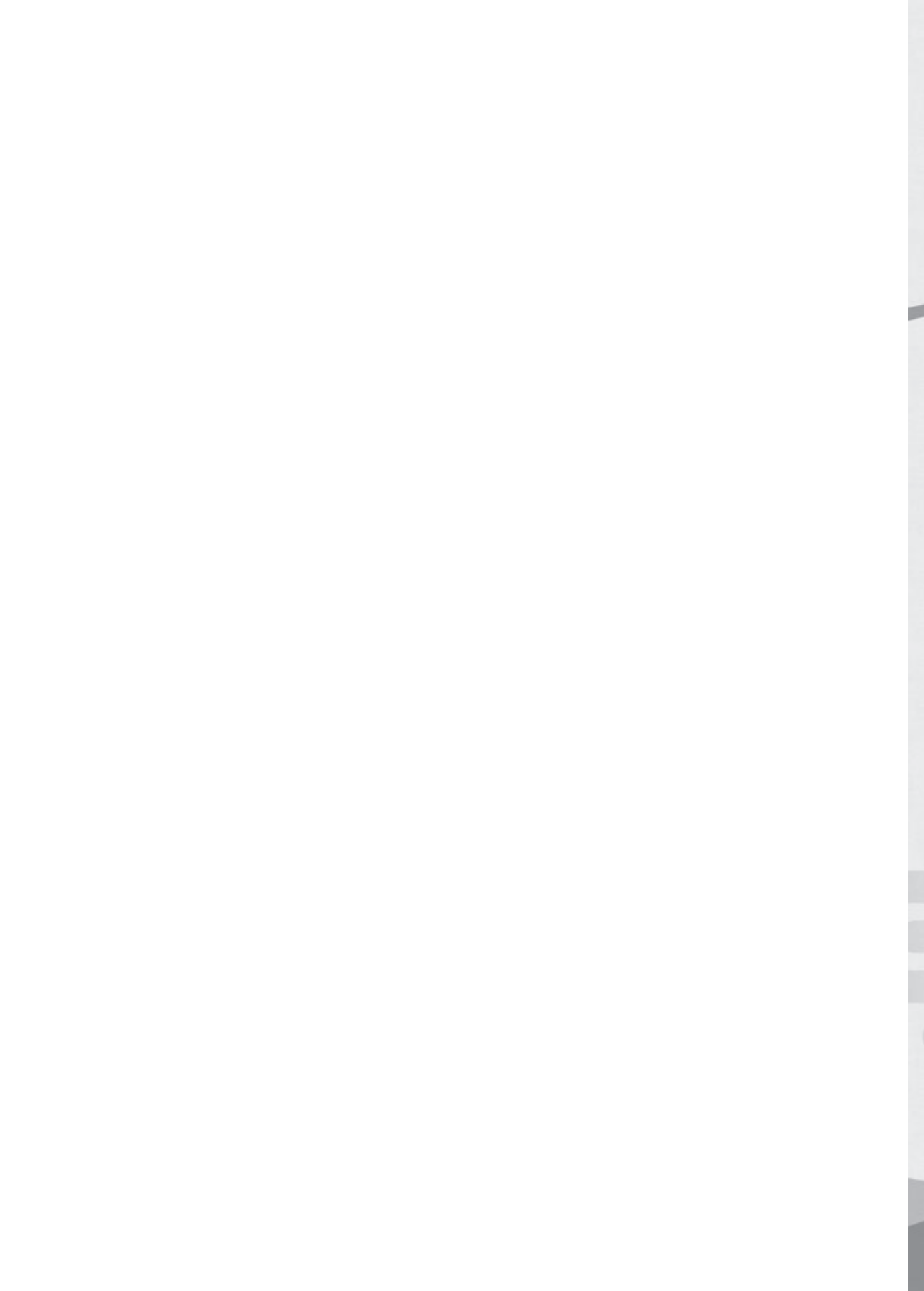
- 모집기간 : 2023. 2. 1 ~ 2. 20
- 수강신청 : 창녕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 개강 : 3월(예정) • 개설 과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사무국 533-3777 / 532-6663

창녕문화원 조직도



창녕문화원 부설단체(동아리) 현황

부설단체	직책	회장	회원수
향토사연구소	소장	한삼윤	29
우리문화재를 찾아서 문화탐방	회장	장후돈	71
파크골프 (울타리파크회)	회장	윤기철	20
시조창	회장	손선애	27
요가	회장	유영숙	36
서예	회장	성태기	18
색소폰(초급)	회장	김일식	22
색소폰(중급)	회장	하길진	17
건강체조	회장	곽정기	40
댄스스포츠	회장	박순덕	27
한문	회장	양창석	22
민요	회장	임순희	9
한국무용	회장	이윤경	20
난타	회장	유옥련	26
바둑	회장	성낙은	13
사진	회장	김종화	24
수석회	회장	하진돈	28







창녕문화원 원고모집 및 기사제보

■ 창녕문화 책자에 게재할 원고를 기다립니다.

창녕문화원이 매년 1회 발행하는 책자로 시, 수필, 여행기, 독후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 및 기사 보내실 곳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 길 10
 - 전화 : 055)533-3777 / 532-6663
 - 팩스 : 055)533-3775
 - E-mail : cc635cn@hanmail.net
 - www.cnccenter.co.kr
- 
- 

昌寧文化 제42호

2022년 12월 인쇄

2022년 12월 발행

| 발행처 | 창녕문화원

| 발행인 | 원장 이수영

| 편집인 | 창녕문화편집위원회

| 제 작 | 일성프린팅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9

E-mail ilsungpr@hanmail.net

昌寧文化院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길 10

Tel 055.533.3777 Fax 055.533.3775

E-mail cc635cn@hanmail.net

본 책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비매품>